



#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www.kkp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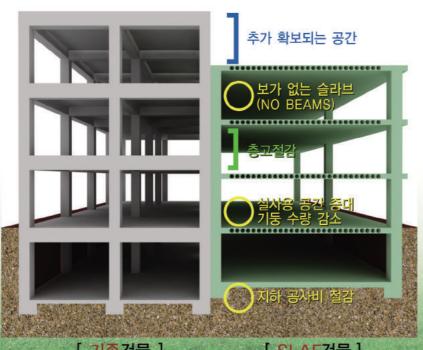


#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P조기술사사무소/벤쳐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 (054)287-2883 TEL (02)555-2055(代) FAX (02)554-1476



#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 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A/S: 02)333-4448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E-mail: cgp210@kornet.net ■ FAX: 054)973-0067







# 회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간혹 공적 혹은 사적으로 협회의 휘장을 사용할 때 협회의 상징인 '휘장'의 모양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휘장은 우리나라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의 상징이므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휘장은 협회의 상징(Symbol mark)으로서, 도안에 응용된 「ㄷ, ㄱ, ㅎ」은 대한건축사협회를 뜻하며 전체적인 모양은 건축적 분위기가 짙은 한국의 고유한 완자무늬로부터 착상되었습니다.









# 콘덴싱의 길,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좋습니다

콘덴싱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23년 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보일러를 만든 경동나비엔

이제 모두가 콘덴싱 보일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니

지난 세월이 보람되게 느껴집니다

이 길을 걷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의 겨울은 더 따뜻해지고,

지구는 더 깨끗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경동나비엔은 그렇게,

콘덴싱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对心证 生일러

和证 圣约





# KOREAN ARCHITECTS 10 칼럼 시론 기후온난화 방지와 녹색건축 건축사!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소통과 변화 \_정병협 \_유병권 국내 설계표준계약서는 \_김미연 하나뿐인가? 21 13 만평 \_김낙중 회원작품 회원작품 회원작품 회원작품 회원작품 56 62 70 설계경기 83 88 건축마당 발 행 인 강성익 담당이사 위 원 장 조충기 박찬정 구만열 · 김희곤 · 송호섭 · 이동우 · 정병협 · 최동호 취재·편집 발행 처 주 소 우편 번호 최락청 팀장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 – 55 건축사회관 137-877 대표 (02)3415-6800 화 팩시밀리 (02)3415-6898~9 http://www.kira.or.kr



인 터 넷 편집·인쇄

광고문의

(주)랜스케이엠 Tel: (02)2273-8576 홍보편찬팀 (02)3415-6862~4



10 COLUMN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and Sustainable Architecture \_You, Byeong-kwon **CARTOON** 42

# **FOCUS**

Serch for lost-dream of Architects \_Chung, Byung-hyup

Only one for Architectural standard form of contract documents in Korea? Kim, Mi-yeon

Vol. 511 November 2011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1년 11월호 통권 511호

# Contents

\_Kim, Nak-jung

45

- -Korean Architecture Fair & Festival

24

30

66

**D-CUBE CITY** 

\_Park, Sung-hyun

Jeongyangjae

SPECIAL ISSUE



56

Publisher Kang, Sung Ik Zo, Chung-gi Director Committee Chairman Park, Chan-jung

Editor

Committee Ku, Man-yeol & Kim, Hee-gon & Song, Ho-seob

& Lee, Dong-woo & Chung, Byung-hyup & Choi, Dong-ho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02)3415-6800 Tel (02)3415-6898~9 Fax

83

Overseas News Review
\_Kim, Eunmee
Book review
Statistics





# 기후온난화 방지와 녹색건축

#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and Sustainable Architecture



유병권 | You, Byeong-kwon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 약력

- 전남대학교 경영학사미시간주립대 도시및지역계획학석사
- 서울시립대 행정학박사
- 제33회 행정고시 재경분야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과장, 지역정책과장 역임

어쩌면 많이 늦었을지도 모르는 화두인 '지구온난화방지'에 대해 관심들이 높다. 리우 세계환경정상회담 이후 국제연합기본협약(1992)과 교토의정서(2007)를 통해 국제적 협력의 기본방향이 설정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당사국총회가 수차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제15차 코펜하겐 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존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개별 국가는 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든스의 역설'이 시사 하듯이 모두가 방관했을 때 지구 전체적으로 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누군가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도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위원회를 설치하여 녹색성장정책을 주도하고, 민간부문과 협력 창구를 마련하고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50.1%), 건축물(25.2%), 수송(17.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산업분야의 배출량 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진화될수록 건축물부문이 늘어나 40퍼센트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더욱 이 건축물은 한번 지어지면 고치기 쉽지 않고, 잘 관리하면 적은 비용으로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어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6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녹색건 축물 활성화방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회의는 건축물의 에너 지 절감을 위해 신축 및 기존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재건축 등 건 축물의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우선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단계에서 에너지 절약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소비총량제도를 도입하며, 그린홈 실증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며, 에너지 소비증명제를 도입하고, 건축물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건축단계에서는 그린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건축물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구축과 기술개발도 간과할 수 없는 관심영역이다. 정보체계로는 2014년 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건축물 에너지 통합 데이터베이스가구축 중에 있다. 건축물 단위별 에너지소비증명제, 단지별 에너지수급정책 등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정보체계 못지않게 각종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건물 에너지 관리, 고효율설비, 자연에너지 활용과 환경부하 저감기술 등 그린 빌딩 구현기술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건축물분야의 에너지절감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건축주나 관리자들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울러 건축서비스업도 보다 에너지절감시대를 적응하고 선도하는 기술과 재능을 필요로 한다. 결국 모든 일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할 때, 대학의 커리큘럼도 진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기술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정부와 시장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해외진출이나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그렇다. 遺







# 건축사!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소통과 변화

# Serch for lost-dream of Architects



정병협 | Chung, Byung-hyup, KIRA 나은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지편찬T/F위원회 위원
- 서울시건축사등산동호회 부회장

가 시끌시끌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벌 써 입동(立冬)이 지나간다. 곧 한 해가 마무리 되겠지만. 올 초 야심차게 세웠던 목표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세상이 갈수록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건축사 업무수행을 위해선 공부할 것은 많아지고. 건설 경기 불황으로 열심히 배운 것을 활용할 기회는 별로 없으며 실질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만나는 건축사들마다 더 이상 견뎌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설계. 감리비 단 가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 다. 또한,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술자들의 거센 압박도 심 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설계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에서 외주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건축사들에게 어려움을 더 해주고 있다. 예전의 건축사는 창의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건 축물을 창조해내는 '종합예술가'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살아왔으 며 건축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구조, 설비 등 관련 기술자들은 물론 부동산 업자들에게까지도 끌려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이대로 포기하 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건축사! 이제는 잃어버린 꿈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힘을 길러야 건설경 기가 회복되었을 때 그 동안 잃어버렸던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축 공학적인 디테일에만 치우쳤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문·사 리들의 시대를 다시 만들어 나가자! 崮

세월이 참 빠르다. 여름의 긴 장마와 태풍, 산사태로 온 나라 회·과학적인 요소가 융합된 인간의 삶에 기초한 종합적인 접근 이 필요하며,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에 걸친 흐름과 변화 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 정보의 네트워크(Network)가 구축되어

> 이러한 관점에서, 협회는 건축경기의 심각한 위축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 '힘없는 건축사'들을 활성화시 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회 예산에서 많은 비중의 회비를 내고 있는 그들은 협회 임원도 아니고 대의원도 아니면서 '평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기에 건축 사협회는 그들이 실질적인 주인이며, 집행부나 '힘 있는 건축사' 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 다. 더 나아가서 건축사들의 합당한 위상과 권한을 회복할 수 있 도록 대외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지난 11월초, 문경 주흘산에서 열린 '대한건축사 등산대회'에 다녀왔다. 약간 쌀쌀한 날씨였지만 전국에서 모인 400여명의 건 축사들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화려하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서 로의 친목을 다지고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 졌다. 우리는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회원들 간에 소통하고 화합 하는 방법과. 거스를 수 없는 자연 앞에서 인생의 진리를 배우게 된다. 험준한 계곡과 능선을 거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오른 산 정상에서는 대자연의 풍광 앞에 찬양과 감탄을 토하고, 하산할 때는 지평선 너머로 펼쳐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면서 자연과 소 통하며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다.

>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불 어 넣어주는 태양을 내일 아침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건축사들이여, 희망을 가지고 서로 소통과 변화를 통하여 우







론 — F O C U S

# 국내 설계표준계약서는 하나뿐인가?

Only one for Architectural standard form of contract documents in Korea?



김미연 | Kim, Mi-yeon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약력

-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축사업본부 •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 University of Pennsylvania, March1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人

건축실무를 떠나 교직에 몸담은 지 벌써 5년째가 되었다. 대부분의 그 때 일들은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건설회사 재직 시 건축설계회사와의 계약업무는 지금도 종종 되짚어 보게 된다. 그럴 때 마다 '참 불합리한 면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이번 기회에 건축실무를 벗어난 입장에서 '국내건축업계와 설계계약'을 담론화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설계계약서란 계약당사자 간의 약속을 기록한 법적 문서로서 건축용역내용과 그에 대한 보수를 규정하고 리스크요소와 설계변경에 대한 대응 및 분쟁해결방법도 명시된 중요한 문서이다. 건축사로서는 제일 중요한 법적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등한시 해 온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국제적으로 건축서비스업의 개방이 곧 이루어질 이 시점에서 발등의 불이 되었다.

건축설계업계는 '건축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다. 또한 '건축사법 제3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 50조에 따른 각 업종 별 협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표준계약서는 단순한 법적 문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양한 고 객유형에 맞춰 용역 제공 방식을 명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단순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별 계약조건들을 적용할 수 없다. 개별 설계회사는 여러번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계약 특수조건 등으로 수정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는계약당사자 관계를 갑과 을의 상하 관계로 규정하여, 계약 특수조건은 갑에 의해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이 변경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특히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회사는 설계조건을 '을'인 건설회사와 계약하며 건설회사는 모든 설계 조건 및 공사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갑'인 발주처와 일괄 계약을하기 때문에 건축설계만의 전문적 상황이 무시되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계약당사자 관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며, AIA(미국건축사협회), EJCDC(미국연합엔지니어협회), DBIA(미국디자인빌드협회) 등의 협회에서 제정된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각 협회별로 저마다의 표준계약서가 다양한 프로젝트수행 시 더 좋은 계약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경쟁적으로 홍보하여 사

용을 권하고 있다. 그 중 AIA는 표준계약서의 종류만도 1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1888년 이래 개정횟수가 16번에 달하는 방대한 업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수많은 건축사, 엔지니어, 학술연구자,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더불어 그 연구 성과는 엄청나다.

최근, 해외설계사인 자하하디드와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컨 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현장을 답사 할 기회가 있었다. 평소 해외설계회사와의 설계계약에 많은 불만을 가 졌던 필자는 계약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만 의거하여야 하 는데, 자하하디드 측은 계약조건이 계약상대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주 장하여 'FIDIC(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의 표준계약서' 적용을 요구 하였다고 한다. 설계금액 및 기간을 합의하는 데 2개월, 계약서 내용 을 협상하는데 2개월을 보냈고, 그 결과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기 준으로 '설계용역특수조건'을 기본 틀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 다. 자하하디드 측은 설계기간이 촉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 결되기 전까지 아무런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서울시는 급히 서둘러 '설계용역특수조건'을 작성하게 되었다. 양측이 변호사를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자하하디드측은 설계계약 전문변호사가 참여하였지만 국내 는 그러한 전문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 계약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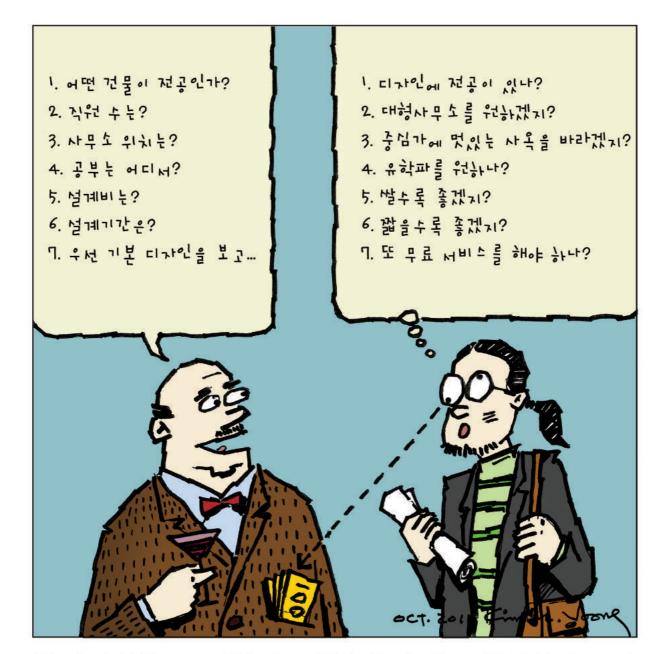
이처럼 국내는 계약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낙후되었고 계약 없이는 일을 하지 않는 해외사에 관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제 제기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나약하게 한탄하고 하소연한다고 들어주는 사회가 아니다. 연구를 해야 한다. 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협조하여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서를 차마 건축주에 내밀지 못하는 소심함과 안면으로 일을 하는 풍토를 개선한다면 건축사야말로 정말 멋있는 전문직이 아닐까?

건전한 설계시장의 육성을 위해 건축사와 그와 관계되는 관련자들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固** 









# 클라이언트 와 아뜰리에 건축사 사이의 일상적 Q & A



김낙중 | Kim, Nak-jung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 홍익대, 미 Pratt 건축대
-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 수상









#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20년간 1천1백여 우수작품 선정, 한국건축의 맥 이어와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시상식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4층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해양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해 올해로 20회 째를 맞이한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사장 등 정부관계자 및 수상자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성익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정부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건축문화 행사로서 역사와 전통을 쌓으며 이 시대의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해 건축문화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

이 중심이 된 건축을 만들어낸 주인공들을 격려해 창작의욕을 북돋아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가치가 있다"며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건축문화 창달의 기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시대의 그릇으로 남을 훌륭한 작품들을 창조해주시기 바라다."고 말했다.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장인 박경립 강원대학교 교수의 심사보고 이후 시상식에 서는 준공건축물부문, 계획건축물부문,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공로상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수상작은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동 장소 Hall A '한국건축산업대전2011' 전 시장에서 전시됐다.















1.2011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장 전경 4.축사\_이종환 서울경제신문 사장 7.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시상\_박길룡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2.개회사\_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5.계획건축물부문 시상 8.축사\_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3.공로상 시상\_황일인 (주)일건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경립 강원대학교 교수 6.준공건축물부문 시상 9.한국건축산업대전2011에서 열린 수상작 전시장 전경

# 

# 한국건축산업대전 2011

# 4개 전시 동시개최, 우수건축자재추천심사,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 등 풍성

대한건축사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건축전문전시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11(이하 KAFF2011)'이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성대히 개최 됐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의 주제는 '친환경 건축재료의 발 견'으로 예년에 비해 보다 다양해진 건축자재와 프로그램 등을 선보였다. 10월 27일 오전 11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등 외빈과 강성 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및 협회 임직원이 참석했다. 특히 개막식 컷팅 후 권도엽 장관과 내외빈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참여 업체들과 일일이 대화 를 나누며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KAFF2011은 공공디자인전시회, 기후변화방재산업전, 스마트그린빌딩엑스

포 3개의 전시회와 코엑스 1층 전홀(Hall A, B)에서 Green City Week로 동 시에 개최돼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특히 전시회 기간 동안 '우수건축자재 추천심사'를 실시했으며, 우수한 건 축자재를 발굴, 추천하여 회원들에게 우수 건축자재에 대한 자료 및 정보 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에서 환경부장관상은 원기업(주), (주)씨엔에스,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수상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상에는 (주) 라인테크시스템, 천지건업(주), 주신기업(주)이,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은 (주) 하나기공, 경민산업(주)이 수상했다.

부대행사로는 건축사 연수교육, 대한건축사 미술전, 건축법률 무료상담 등 이 개최됐다.















1.한국건축산업대전2011 개막식 4.건축사 연수교육 전경 7.관람객과 상담 중인 참가업체

2.내외귀빈에게 한국건축산업대전을 설명하는 서용주 사업위원회 위원장 3.전시장을 관람중인 내외빈 5.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 수여 장면 6.전시장 전경 8.우수건축자재 추천업체(일산산업)

15 1111 대한건축사협회





#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 관객층 다양해지고, 유료관객 대폭 늘어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화여대 ECC 아트하 우스 모모에서 개최됐다.

10월 20일 개최된 개막식에는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림 한국 건축가협회 회장 등 건축계인사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유영식 감독과 영 화배우 황우슬혜씨가 진행했다.

대회장인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로 건축영화제가 3회째를 맞이했다. 해마다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건축영화제가 올 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즐겁고 재미있게 영화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수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막을 연 이번 영화제는 'Between'을 주제로 총 8개국 16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상영작을 증편하고 상영

관을 2개관으로 늘려 5일간 총 3,079석, 63.7%의 객석점유율을 거두는 등 매우 성 공적이었다는 평이다.

상영작 중 '빌딩 173+메구니카', '인사이드 피아노+죽은 자의 정원', '프루이트 아이고'는 전회 매진됐으며, 단편영화 6편을 함께 상영한 '비트윈 숏 앤 숏'은 다양한 관객층을 불러 모았다. 특히 비트윈 숏 앤 숏 중 애니메이션인 '로베르토:개미건축사', '폭풍의 밤', '픽셀'의 상영관을 찾는 유소년 및 부모 관객들도 줄을 이어 관객층이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페스티벌 아키텍트)에는 영화배우 박상민과 황우슬혜가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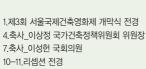














2.축사\_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5.축사\_유병권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8.축사\_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3.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영화배우 박상민과 황우슬혜 6.축사\_정연규 KCC 전무(Main Sponsor) 9.개막선언\_김형수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 \*.dwg 납품! 하지 맙시다!

국내의 건축설계 및 각종 설계에 중요한 수단인 CAD 프로그램은 그 결과물을 주로 \*.dwg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간 인허가, 심의 등 대관업무나 납품 등 건축주 관련업무, 또한 시공사와의 업무에서 \*.dwg파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스(source)파일 형태로서 변경과 재생산이 용이하여 인허가상 기록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관리측면에서도, 또 업로드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저장장치의 용량도 매우 많은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건축주나, 시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에 관련한 자료로 활용되는 도서류에 있어서도 기록의 의미가 크므로 dwg 포멧의 파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일 현장에서 도면의 치수 등을 알기위해 dwg파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dwf파일로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서의 치수를 알고 싶다면,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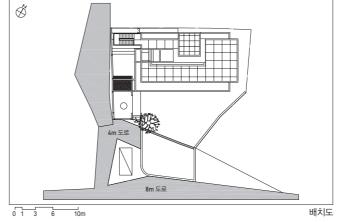
따라서 도면을 납품하시거나, 업로드 하실 때는 \*.dwg파일 대신에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도면의 크기대로 만드셔서 납품 하시면 건축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고, 편리한 업무를 하실 수있습니다. 여러 건축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민원신청 내용과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699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보현 어린이

Project team | Moon, Jung-eun / Kim, Sung-hoon
Client | Oh, Jee-ae
Location | Jejudo Jeju-si Ara 2-dong 1313-1
Site Area | 459.00m²
Gross Floor Area | 297.86m²
Building to Land Ratio | 44.27%
Floor Area Ratio | 64.89%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Ko, Man-young
HVAC Engineer | Han-wool Engineering Co.Ltd
General Contractor | Dong-hyun Construction Co. Ltd
Building Scope | 2F
Finishing Materials | Preservative treatment wood,

















기족구성원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유이들은 가족을 통한 학습보다는 전문 유아교육기관을 통한 학습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유이들이 가정을 떠나 사회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단순한 탁아의 기능을 넘어서 영유아의 제영역 발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제공하여야한다.

타인의 공간적 욕구를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는 작업이 건축사의 고유영역이지만 아이들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며 그 출발점은 인간성의 근본적인 부분이며 유이들의 심리적, 물리적, 감성적인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놀이활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다.

### 놀이

유아에게 '놀이'는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말하며 또한 유아기의 놀이는 신체적, 지적, 그리고 정서 적 발달의 상호간에 관련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로 유아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발달을 나타내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질적으 로 우수한 놀이 환경을 제공받는 유아들은 쉽게 놀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 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언어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 놀이풍경(Play-scape)

부여된 동일한 조건에 대해 경험이라는 고정된 틀이 전혀 없이 단지 주어지는 조건에 암호 같은 몸 짓으로 반응하는 유아들의 공간은 단지 독자적인 건축물이나 그 환경 자체만이 아닌 오히려 건축 물의 내·외부를 채웠거나 앞으로 채워나가게 될 모든 종류의 물체들. 공간들을 포함한 확장된 개 념으로 해석하여 다채로움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에 대응하는 다 목적이며 가변적인 공간 안에서 유아들은 서로의 경험들과 관계 맺으며 나 자신과 서로를 알아가 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이 각자의 상상력과 꿈을 가득 키워 나가는 풍경을 기대해본다.

Due to social changes such as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and the increasing social activities of women, the trend is for there to be more opportunit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take place at professional learning institutions rather than through the traditional method of learning from family members.

Since childcare centers are a child's first social and educational encounter outside the domestic setting, it is necessary for them not only to merely offer daycare services but also to provide various functional spaces and facilities to support children's overall development. Reconstructing the spatial needs of people using the available resources may be accepted as a definition of an architect's area of expertise. Creation of a space for children, however, is a challenging task. The initial starting point for such an endeavor begin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human nature and reconsidering "play activities" which have a great impact on children's psychological,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 Playing

Playing for children is a means of talking about what they want to do as well as a way of exhibiting the mutual relationships that exist amongst physic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development. Playing also helps children to understand the world around them and as such reflects the developmental stages of children. Accordingly, children who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that gives excellent play opportunities can easily become absorbed in play activities which will in turn act as a catalyst in increasing physical, social, emotional, linguistic and cognitive 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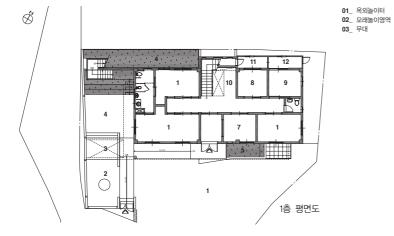
# Play-scape

A child's space is a place for them to use their bodies like a password in response to given conditions and not one wherein their experience is constrained within the confines of static, assigned conditions. To embrace diversity, we not only focus on the independent structure or the environment itself, but also interpret the extended concept of a perfect mixture of the space and the items that are already or will be placed inside and outside of the structure. The play-scape should be a multipurpose, ever-changing space that can respond to the curiosity and imagination of children, and the process of children learning about each other and about themselves will be able to take place inside this space. We expect that the design of such an environmental space will encourage this process so that each child can develop his or her own imaginative powers and dre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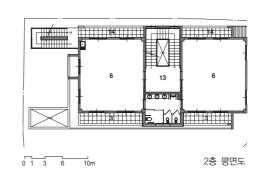








**(** 



10\_ 도서실 11\_ 교사실 12\_ 다용도실 13\_ 홀 14\_ 발코니(탐구영역)

07\_ 사무실 08\_ 자료실 09\_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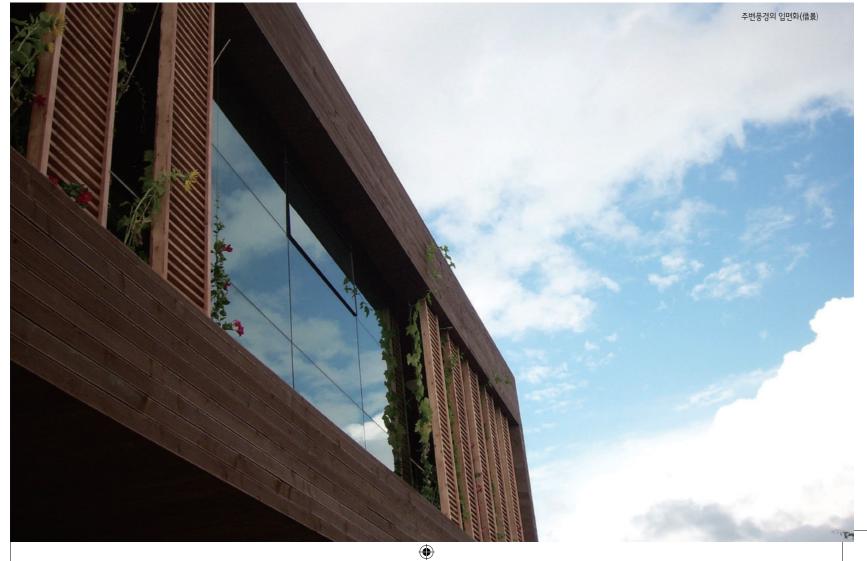
04\_ 소집단놀이영역 05\_ 학부모대기공간 06\_ 보육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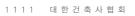
옥상난간의 호기심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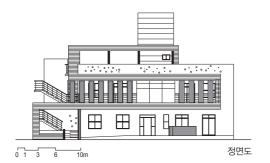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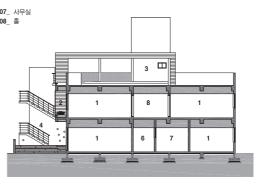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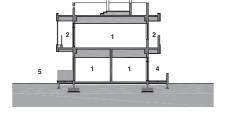




주단면도-1

04\_ 소집단놀이영역 05\_ 옥외놀이터 06\_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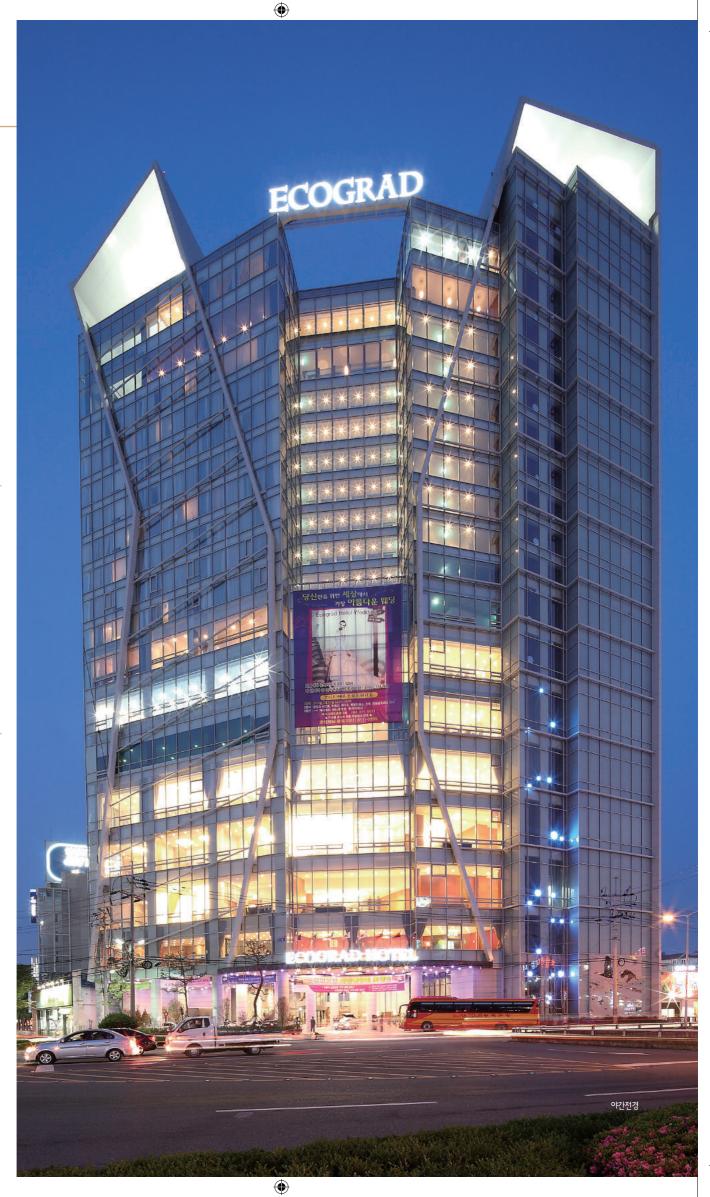




0 1 3 6 10m

주단면도-2









Project team | Park, Se-jin / Kim, Kil-soo / Yoon, Jae-min / Kim, Min-soo

Client | ECOGRAD

1 1 1 1 대 한 건 축 사 현 회

Location | Jeollanam-do Suncheon-si Jorye-dong 1587-4

Site Area | 2,008.40m<sup>2</sup>

Building Area | 1,793.82m<sup>2</sup>

Gross Floor Area | 22,759.67m<sup>2</sup>

Floor Area Ratio | 890.71%

Building Coverage Ratio | 89.32%

Structure | R.C+S.R.C

General Contractor | ECOGRAD Construction

Building Scope | B3-18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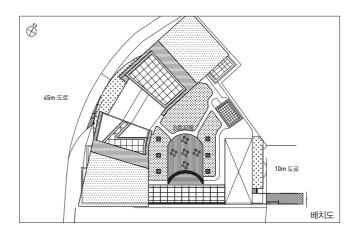
Finishing Materials | THK 22, 24 LOW-E DUC Glass

Photographer | Yoon, Jae-min Cost | not disclosed

'에코그라드'는 자연환경이란 뜻의 '에코로지'와 도시란 뜻의 '그라드'의 합성어로써, 순천시 조례 동 사거리 모서리 부분에 있어 어느 방향에서도 쉽게 눈에 띄며, 2,000㎡가 넘는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로 고급 스위트룸을 비롯해 104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전남 동부지역 5성급 특1급 호텔이다

'에코그라드 호텔'의 설계는 우리로 하여금 건축물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좋은 기회였다. 건물이 지어진 전남 순천시에는 아직 이렇다 할 호텔이 없어서 제대로 된 행사를 유치하기가 어려웠고, 이 같은 여건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시 입장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순천과 인접한 여수에서 2012년에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와 함께발전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호텔의 완공이 순천시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계를 시작했다.

설계의 주안점은 건물이 애초 극장이 포함된 복합 상가로 허가를 받고, 지하 3개 층 골조공사를 마 무리한 상태로 약 2년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호텔로 설계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보다 차별화되며 획기적인 디자인의 호텔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골조를 자세히 분석 했고, 그 결과 기존의 코어(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제약 속에서 도 로와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는 매스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1층 공간을 남북으로 길게 쪼개고 그 사이로 전면도로(55m 광로)에서 배면 도로(10m 소로)로 직접 차량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형성된 양측 코어는 서로 다른 기능으로 출입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다행히 호텔 바로 뒤편 건물이 비교적 큰 규모의 10층 주차 빌딩이어서 주차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 이 주차 빌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호텔 2층 배면과 주차 빌딩을 있는 오버브리지를 설치해서 주차 후 바로 호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건물 전면이 상당히 넓은 것을 완화하기 위 해 쌍둥이 건물처럼 해석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건물 정면을 더 분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 다. 그래서 0.8m의 대형 알루미늄 띠를 활용해서 과감한 선형 디자인을 도입했으며, 그것이 일률 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마치 친형제나 친자매 혹은 부부의 모습이 건물 전면 에서 느껴지도록 했고, 그 형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보이도록 계획했다. 호텔의 사 면 모두는 커튼월 시스템을 적용해서 외관이 현대적 의미로 녹아들 수 있게 했고, 어느 곳에서나 차별화된 조망을 누릴 수 있으며, 고층으로 올라가면 주간에는 운치 있는 순천만까지의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고, 야간에는 도시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Ecograd is a combination word of 'ecology' and 'grad' that means a city. Being located on a corner of Jorye-dong junction in Suncheon, the site is recognizable from every direction. The five-star hotel in the eastern Jeollanam-do consists of three underground and eighteen above-ground floors, and is equipped with 104 rooms including premium suites.

The design of 'Ecograd Hotel' provided us with a chance to think about the influence of an architectural building over a local community. Suncheon had not have a decent hotel to host a large event, and such a situation had placed limit on local developments. The city's recognition on the immediate need of proper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the announcement of EXPO 2012 Yeosu Korea brought us this great opportunity to be a part of developments. We set out to work in the hope that the hotel would be the foundation of future developments in Suncheon.

The focus in this project was to design a unique and innovative hotel; the incomplete building was originally conceived as a shopping center with a cinema, and the construction was deferred for about two years before the change of the building use. The detailed analysis on the existing frame revealed that the core[public facilities such as the staircase and elevator] should be retained, leaving us to create a mass that is adaptive to the typology and the road. The first floor was divided in length centering the north-south axis. Vehicles have a direct access to the rear road(10m wide small road) from the front road(55m wide expansive road). The resulting two cores with different functions disperse the entry of vehicle users. Behind the hotel is a tenfloor parking building that would relieve possible parking difficulties. To increase the use of this space, the rear side of the hotel's second floor is connected to the parking building through an overbridge that enables visitors to enter directly to the hotel after parking their veh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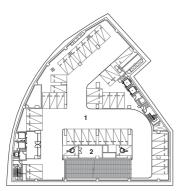
We tried to make the hotel appear as a pair of twin buildings, visually separating the oversized facade; 0.8m wide long aluminum bands were introduced for a daring linear design, giving the building the appearance of brothers, sisters or a married couple while avoiding them from becoming identical. As a result the facade changes its appearance according to the point of view. All four sides of the hotel features curtain wall system to obtain a contemporary exterior, and the users can enjoy differentiated view wherever they are. The high levels secures an open view over the Suncheon bay during the day, and a sparkling nightscale at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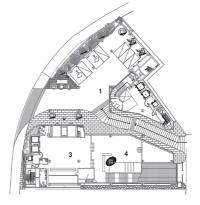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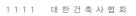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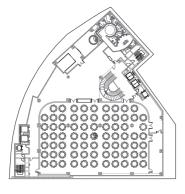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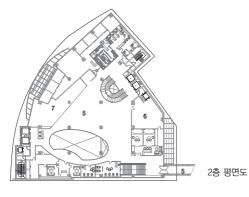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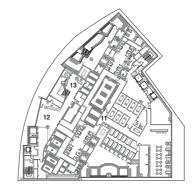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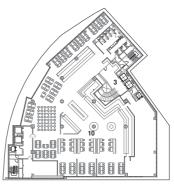


3층 평면도





6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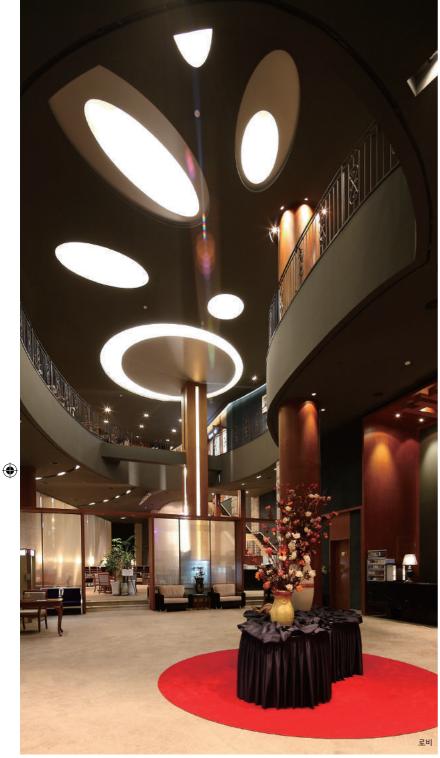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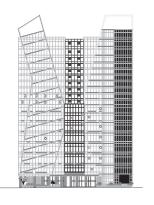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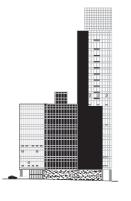
— KOREAN ARCHITECTS Novemb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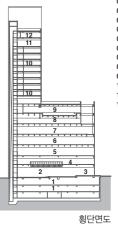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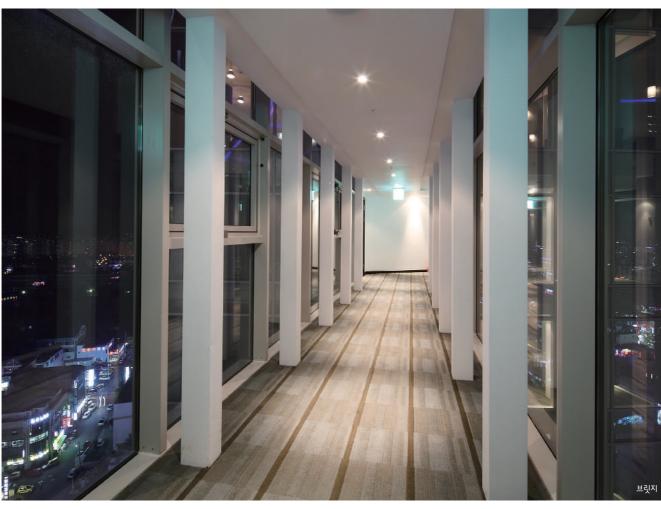
종단면도



01\_ 주차장
02\_ 호텔라운지
03\_ 커피숍
04\_ 식당
05\_ 연회장
06\_ 회의장
07\_ 프레스센타
08\_ 사우나
09\_ 휘탄니스센터, 수영장
10\_ 복도
11\_ 스카이라운지
12\_ 객실

정면도 좌측면도















Project team | Park, Chan-suk / Kim, Byung-sung /

Jeon, Yong-seog / Kim, Sang-hoon / Cho, Hyoung-jin / Song Hoon / Ku, Za-hae / Song, Hyuk-joon / Jung, Tae-jong / Jung, Jong-bum / Kim, Sung-chul / Lee, Joo-hyuk / Eun Jeong / Sang Ahn

Client | DAESUNG

Location | Seoul Guro-gu Shindorim-dong

Site Area | 25,756.8m<sup>2</sup> Building Area | 14,516.21m<sup>2</sup>

Gross Floor Area | 350,051.50m²

Building to Land Ratio | 56.36%

Floor Area Ratio | 746.77% Structure | SRC,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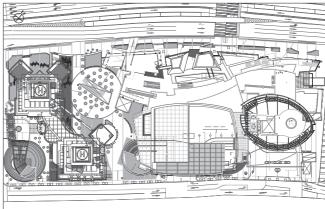
 $\underline{\hbox{Structural Engineer | Chunglym Structure Consultant,}}\\$ 

Barun Structure Engineering

General Contractor | Daesung Engineering &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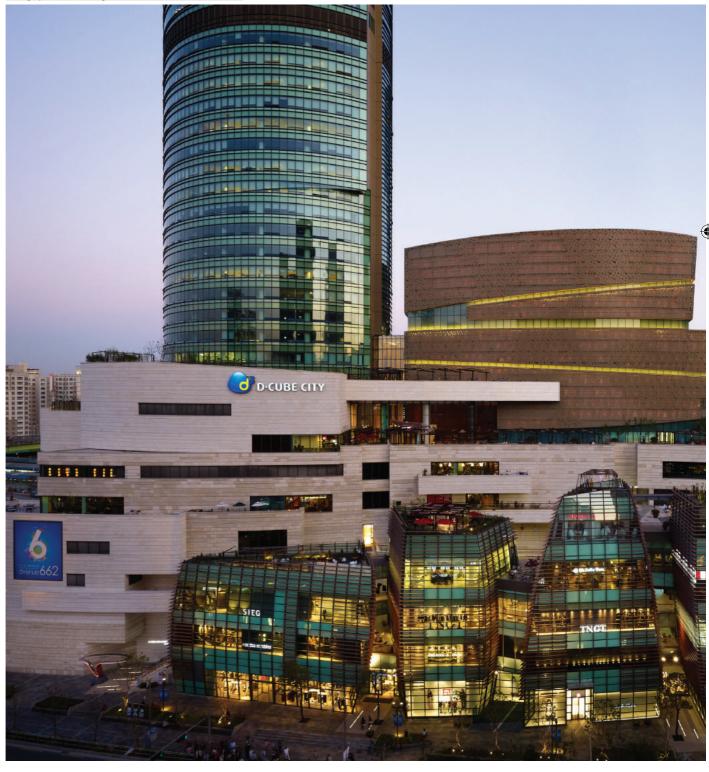
Building Scope | B8-42F/B7-51F

Photographer | Park, Young-chea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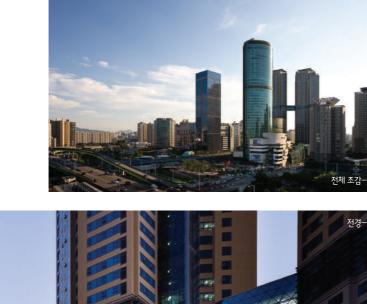












서울시는 서남권의 노후 공업지역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쇠퇴한 도시재생을 통하여 서울 서남권을 환경, 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의 신경제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 젝트를 추진하였다. 이에, 대성연탄부지를 개발하여 신도림역 주변지역에 문화와 자연이 함께하고 주거-상업-업무의 기능이 융화된 대규모 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디큐브시티 설계의 핵심은 자연과 문화를 프로젝트 안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 복한문화시설

디큐브시티의 Main Concept은 다양한 자연 요소 속에서 느끼는 문화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외부 의 공원, 광장, 쌈지공원 등을 구성하는 물, 바람, 나무, 흙의 자연적 요소는  $Podium \ u \cdot 외부를 구$ 성하는 공간요소의 모체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향 유한다. 자연을 닮은 복합문화공간 디큐브시티를 통해 신도림은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것 이다.

디큐브시티의 몰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콘셉트는 '산책'이다. 150m 수평적 공간과 8개층에 달하는 수직적 공간에 다양한 자연 요소를 도입하여 산책을 하듯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건축적 장치를 배치하였다. 수공간과 실내 폭포, 다양한 재질의 바닥패턴과 천장,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연속된 흐름을 통해 단순한 쇼핑공간은 수직적, 수평적 움직임을 통해 자연 속을 걷는 산책이 된다.

## 청사초롱-Lantern

건축 디자인의 콘셉트는 한국의 전통적 요소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용하였다.

부정형의 Poolium 공간이 한국의 산과 계곡을 형태적 은유로 삼고 있다면, 경인로에 면한 분절된 Mass는 '청사초롱'을 형태적 모티브로 삼고 있다. 휴먼스케일에 맞게 분절된 Mass들은 서로 다른 3차원 곡면의 만남을 통해 각각의 Lantern을 이루고 있다. 밤이 되면 이들은 어두움 속에 빛을 발 산하는 요소로 변하여 도시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다.

## 도심녹지- living ribbon & city forest

공용부 인테리어 디자인은 '도심 녹지(City Forest)'를 Main Concept으로 계획되었다. 몰 중앙부의 대형 Open Space는 도심의 거대한 숲으로 은유되며, 자연 요소를 디자인 모티브로 한 각 층의 다 양한 마감 재료는 그 숲을 이루는 자연 요소를 재정의 한다.

The Center that never sleeps

Nature+Culture=Cultured / Cultivated nature

디큐브시티는 도림천의 자연으로부터 점차 정형적(경작지)으로 변화된다.

식생은 Millefleur Park의 자연형 식재에서, 형태는 자연 식생과 대조를 이루는 경작지의 이미지를 갖는다.

# 문화적 요소

뮤지컬홀과 콘서트홀을 최상부에 배치함으로써 이용객들이 최하층으로부터 리테일을 거쳐서 최 상부의 문화공간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배치를 통하여,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다양 한 경험을 하게 되고, 문화공간이 외부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공동주택

적극적인 필로티 도입과 각 층별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녹지속의 주거' 개념을 실현 시켰다. 수 요자의 선호도 및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평형배분 및 평면구성을 하였으며, 중간층인 30층에 공 동주택 두 개의 타워를 연결하는 Sky Bridge를 두어 부대복리시설로 활용하며, 동시에 도시의 랜 드마크적 요소로 계획하였다.

A project consisting of diverse functions of dwelling, commercial, business and lodging facilities, the Daesung D-cube City is planned as a new landmark in the Sindorim area, the gateway to southwestern Seoul.

The Daesung D-cube Cit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ly, combining leisure and shopping, the entertainment-based Dream Mall of the basement and the lower floors will be connected directly to the Sindorim Station

Secondly, the Tower is a super high-rise facing the Sindorim Station Plaza, offering a pleasant business environment. It will also function as a landmark in the area, communicating the corporate image of Daesung Industries.

Thirdly, the Skyrex is a residential-commercial complex with a fresh concept, whose brand value will be raised by fresh design in this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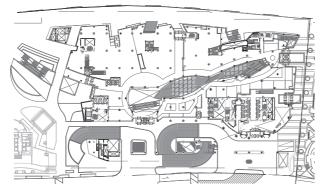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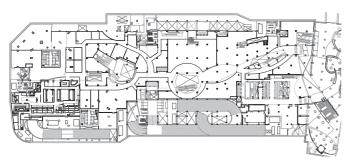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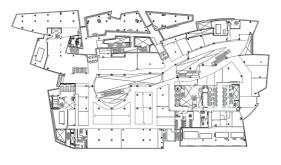
복합시설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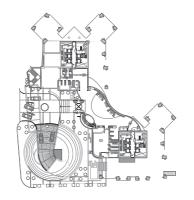


1 1 1 1 1 대 한 건 축 사 협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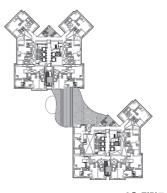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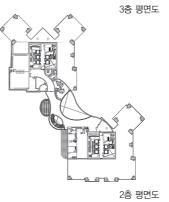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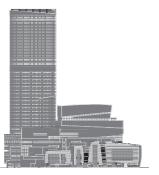
















복합시설 북측면도 복합시설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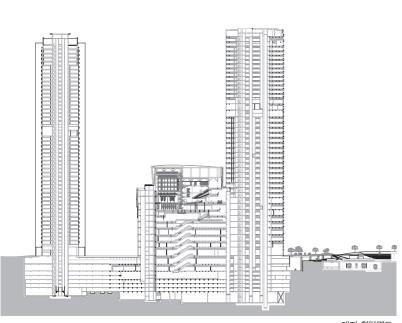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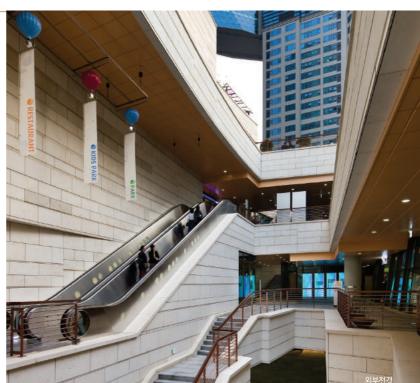














•









Project Team | Lee, Sang-bok / Han, Chan-hee / Kim, Bong-gu / Lee, Mi-ri Client | Han, Sung-rim Location | Pocheon-si Sinbuk-myeon Geumdong-ri 155-2 Site Area | 896.00m² Building Area | 177.99m²  $\underline{\text{Gross Floor Area | 228.58m}^2} \quad \text{Building to Land Ratio | 19.86\%}$ Floor Area Ratio | 25.51%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Nara ENG HVAC Engineer | Sunhwa ENC Building Scope | 2F Electrical Engineer | Sunhwa ENC

Finishing Materials | THK 16 pair glass, Wood panel Photographer | I. NET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허브아일랜드를 지나 조그만 계곡을 끼고 379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조그만 산장이 눈이 띤다. 다소곳하면서 단아한 매스는 자연 속에서 모습을 나타내기를 싫어하는 느낌을 준다.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 주위의 경관과 조화롭게 펼쳐져 있다. 한 채인 듯 보이는 산장은 어느새 여러채로 나눠져 있고 언덕 위 수목원이 마치 개인 정원인 듯 보인다. 처음 언덕을 지나 부지를 보고 난 후 느낌이다.

팬션이라함은 휴식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며 또는 지나가다 아무런 계획 없이 문득 머무르며 재충전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 계곡을 따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발을 담그고 규칙적이며 때로는 조금은 귀가 따가우리만치 매미 소리에 하루 종일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돗자리에 하늘을 보며 물소리와 곤충소리에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계곡을 따라 손으로 감싸 안은 형태의 남향 대지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배산임수로서 풍수 지리에도 아주 적합한 부지다. 주변에는 허브아일랜드라는 허브농장이 위치하고 또 부지 바로 옆 수 목원이 있어 자연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4개동 6채로 계획이 되었으며 풀빌라 개념을 넣어서 각각 채마다 독립적인 공간이 요구되었으며 마당과 개인 스파까지 독립적으로 계획이 되었다. 각 채는 각각 조망권을 형성 하여 각 동 및 채의 독립성을 부각하였으며 독립적인 산책로 및 정원을 가졌다.

중앙에는 팬션을 상징하는 상징수를 심어서 방향성과 통일성을 가하였다. 각각의 동은 산책하듯 굽이굽이 올라가 본인만의 개인공간으로 진입한다. 타인으로부터의 독립과 속세로부터의 탈피다. 멀리서부터 중첩의 효과로부터 한채인 듯 여러채인 듯 보이게 했으며 나지막한 매스계획과 1층과 2층을 조화롭게 계획했다.

어디에서 서서 보더라도 각각의 View는 다양한 파사드를 연출하며 녹이 슬어도 중후하며 오래되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

건축사의 생각과 건물주의 요구 또한 그것을 너그러이 담아주신 건물주의 포용력으로 지금의 팬션이 존재한다고 본다. 도와주신 분 너무 감사하며 조그마한 바램이 있다면 지나가는 객인으로 하여 일상으로부터의 탈피와 편안하고 쉴 수 있는 장소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조금의 안락한 휴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You can see a small mountain villa where is side of creek if you drive No,379 road. That doesn't want to show own shape where is quiet and simple mass. There is well-matched with around the surroundings. Top of the tree garden can be their individual garden where if you see the mass it can be one mass but sometimes can be several mass.

If you justices a pension is for rest place and recharged place without any plan. There is a place where if you take a walk the creek and hear a sound which is the chirring of a cicada tempo is steady and unsteady and can be lost in meditation as your foot put in water, also you can see the sky with bud's sound and water sound on the a rush m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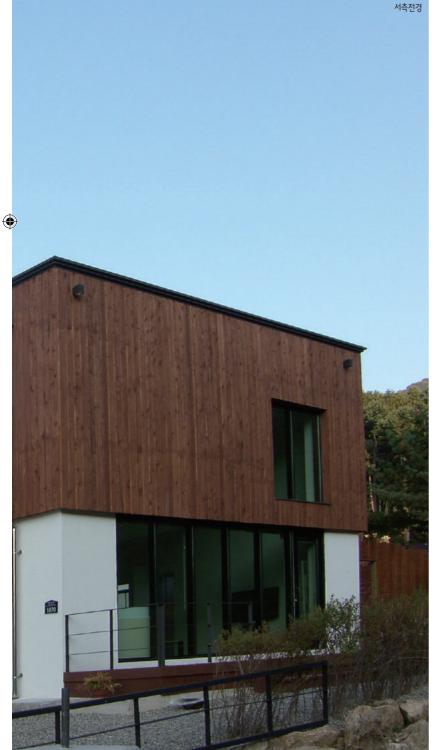
Be a southern exposure site where can wind by hand have excellent condition. And that is very proper for earth condition. There is hub island where is hub's garden and tree garden beside of site and have point with combination of nature.

The site is planed four mass and six rooms as required owner's conditions have individual space own by one and have concept of full villa that have spa and yard one by one.

# That's perfectly concept of full villa.

Each room can have own view and a walking road and yard one by one. There is a symbolic big tree in the center of site where can have direction and unification. I classified a individual and public space and you can go through by road to each room as if you take a walk. Each room has each color one by one so if customer visits once, they can have a mind is one more visiting. I think that I give you the place for can be seeing or not and see and not. This room is escape from other people and mundane life. This building can be one mass and several mass by seeing view and could be plan 1st and 2nd floor. Whenever if time passing too much that can be grave and generous.

This pension could be existed by one of architect and owner's toleration. Thanks for helpful step. I hope that this place can be given to people as a calm, peaceful and comfortable rest space.  $\blacksqu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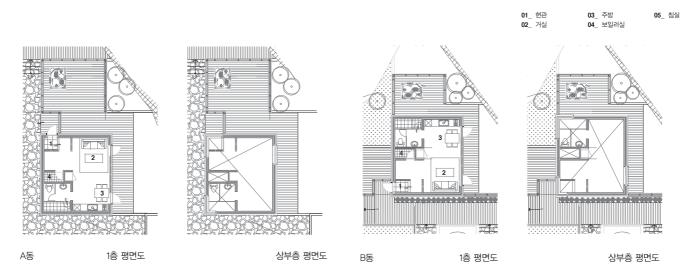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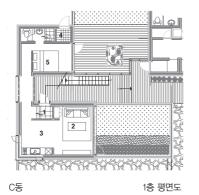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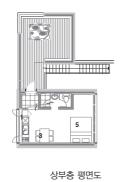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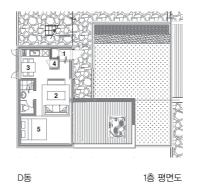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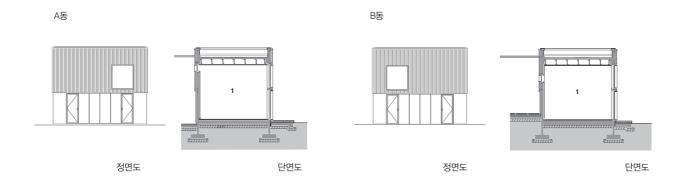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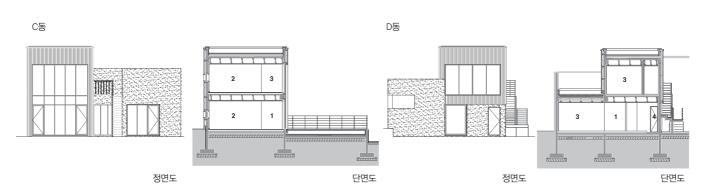


1 1 1 1 1 대 한 건 축 사 협 회

**(** 

04\_ 현관

01\_ 거실 02\_ 주방 03\_ 침실













**(** 

Location | Gyeongsangbuk-do Yeongju-si Busuck-myeon Imgok-ri

Site Area | 1,243m²

Building Area | 165.17m<sup>2</sup>

Gross Floor Area | 145.09m²

Floor Area Ratio | 11.67%

Building Coverage Ratio | 13.29%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Hi Structural Engineers

HVAC Engineer | Samwoo M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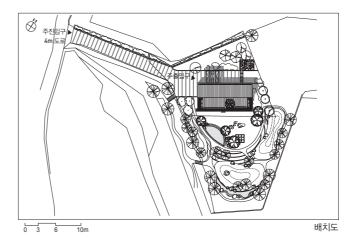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Shinwoo

General Contractor | Housing TECH

Building Scope | 1F

Finishing Materials | Zinc, Exposed Concrete, Wood

Photographer | not disclosed Cost |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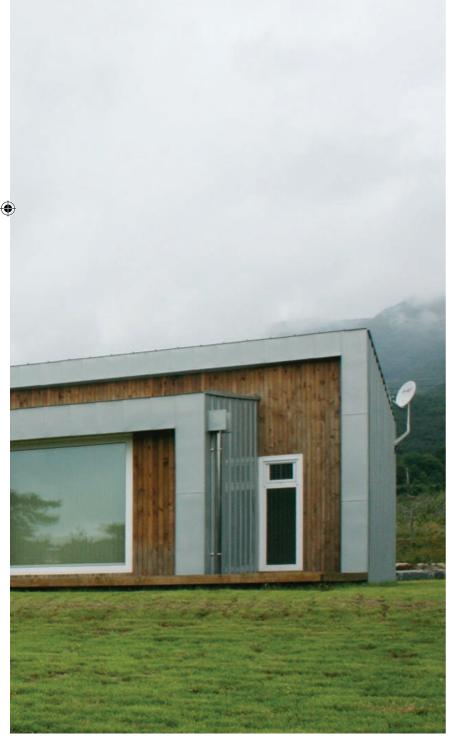






1 1 1 1 대 한 건 축 사 현 회







대지는 소백산맥이 시작되는 능선아래 조그마한 마을에 있다. 대지주변에 사과 과수원이 있고, 동쪽 산 너머에는 고찰 부석사가 있다. 이 대지는 풍수지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관도 빼어나다. 특히 대지남쪽에 잘 자란 소나무 숲은 이미 이곳에 세워질 집을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둔 풍경

대지는 굳이 양택 풍수지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남동향으로 건물을 배치해야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집은 뒷쪽 소백산 능선에 순응하게 배치하고 한옥처럼 높지 않은 비례로 계획한다. 부석사 무량수전앞 안양루에 서면 겹겹이 쌓인 소백산 능선이 시야를 채우게 하듯이 모든 풍경이 거실과 식당과 방에서 조망되도록 한다.

거실과 방을 연결하는 전면 마루는 자연으로의 확장성 뿐만 아니라 마당과의 매개공간이다. 주택은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졌으나 한옥의 배치형식을 평면 안에서 적용해 보려고 하였다. 부부를 위한 방은 안뜰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정원을 지나게 되어 한옥에서 독립된 안채와 같은 효과를 갖게 한다.

이 정원은 식당에서 조망하게 되는 곳으로 나무와 바위와 화초류의 섬세한 조경으로 꾸민다. 건축주가 요구한 진공관오디오 감상실은 자연을 조망하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거실 한 켠에 두어서 거실을 더욱 넓게 사용토록 하고, 거실과 주방 깊은 곳에도 햇빛이 들 수 있도록 고창을 두었다.

매스의 고저 차이로 생기는 천정 속의 공간은 다락을 두어 창고의 기능을 제공한다. 건물은 필요한 것으로만 디자인한다. 자연 속에서 인위적인 장식은 군더더기 일 뿐이다.

The site is located in the small village along the ridge at the start of the Sobaek Mountains. There is an apple orchard nearby and the historic temple Busuck-Sa to the east. Not only the beautiful landscape, but the site also conforms to Pungsu Theory. Especially it seems that the well-grown pine trees in the south are like scenery which has been there just for this new house. And this orientation is inevitable in the view not only of Pungsu theory but also of site itself. The house comforts to the ridge of Sobaek Mountains in the back of the site and it is also designed by unique proportion applied to the Korean traditional house, Hanok, which results in low-rise building. The most of the beautiful surrounding can be seen from the living room and bed rooms just as the scene that the ridges of Sobaek Mountains overlap in front of Anyang-Ru in Muryangsu-Jeon at Busuck-Sa. The Maru which connect the living room and bed rooms not only functions as buffer zone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house called Madang, but as the space expending toward surrounding nature. Appearing single building, this house is composed of multiple spaces by the method applied just like to Hanok. The master bedroom is located beyond the concealed courtyard like as Anchae which is independent space from the main building in Hanok. This hidden courtyard which can be seen from dining room is made up of woods, rocks and various flowers by exquisite style. By placing the audio room as the client's special request in the living room it is possible to listen music while enjoying the peaceful surrounding, which leads also to maximize living room space as well. And natural light can penetrate deeply to the living room and dining room through the top light. The height difference between two masses creates the storage space inside the ceiling. Just design what is really necessary in th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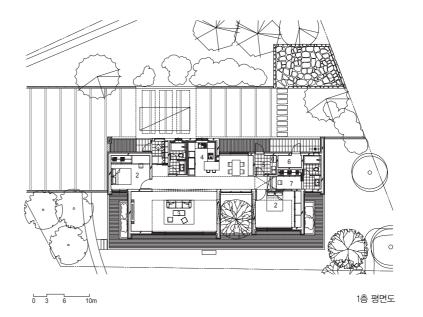
Other than that like artificial ornament is unnecessary for this house in the nature.  $\ensuremath{\X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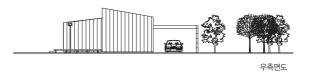




07\_ 드레스룸 08\_ 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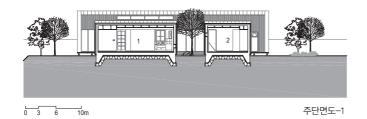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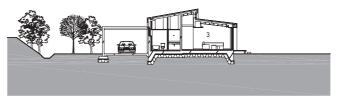






03\_ 거실





주단면도-2





##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8.9일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바일 홈페이지 접속방법

- 주소입력: http://m.kira.or.kr

- 포털사이트: 대한건축사협회 검색후 클릭시 자동연결

- QR코드 인식 후 접속

#### 고바일 홈페이지 이용방법

- ·메인 상단 탭: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의 총5개 게시판을 탭으로 링크,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해당 게시판의 내용을 볼 수 있음.
- · 메인게시판 : 각 게시판의 최근내용을 보여줌.
- · 하단아이콘: 대한건축사협회장의 인사말, 협회설립목적/연혁, 조직, 주요사업, 역대임원, 회원검색, 알림광장, 회원가입안내 등의 내용을 각각의 아이콘을 터치함으로서 볼 수 있도록 구현.
- · 관련 사이트 : 각 회사의 로고를 회전하는 배너형식으로 구현,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 · 오시는 길: Daum지도를 연동하여 확대축소가 가능한 지도로 표현
- · PC버전보기 :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대한건축사협회의 PC버전 홈페이지로 이동



## |QR코드 인식방법|

큐알(Quick Response)코드는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바코드와 비슷한 것인데, 활용성이나 정보성 면에서 기존의 바코드보다는 한층 진보한 코드 체계이다. 아래 QR코드는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의 주소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히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다.

### ○ QR코드 인식방법

스마트폰의 QR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QR코드를 읽어 들이면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입력 없이 바로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 월간「建築士」誌 내용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들어가는 말

21세기는 '건축문화의 내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대로 서, 대한민국 건축의 살아있는 역사의 장이되는 「建築士」 誌 를 통하여 회원의 참여와 소통을 지향하고자 함에, 이 번 설문조사는 미래의 나아갈 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늠하고 또한 잡지로서의 개선의 근거 기초 자료로 삼 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의 구성은 I. [기본사항 및 관심도] II. [건축사지 만족도] II. [향후의 방향] 12) [기타 건의 사항]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 각각 4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전체 문항은 12개 항목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으로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1.기대지수/ 2.만족지수/ 3.미래지수/ 4.행복지수라는 4카테고리의 분석지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주관식 문항의 [12)기타 건의 사항]에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나타내 보임으로서 회원 스스로가 참여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또한 회원 각자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는 발주제도, '건축법규' 등과 같은 당면 문제들의 절실한호소를 눈 여겨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 설문조사 기간 :  $2011년 7월 27일 \sim 9월 9일$ 

2. 설문조사 방법: 인터넷, 설문지 조사 병행 3. 지 역: 대한건축사협회 전국 건축사회

4. 대 상: 전국 건축사 정회원

5. 전체 설문참여인원: 486명

(1차 : 220명, 2차 : 115명, 서면제출 : 151명)

#### I . 기본사항-관심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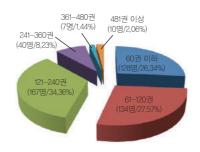
1)응답하시는 건축사님의 만 연령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답변 : 총 486명)



설문 조사의 연령대는 20~4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래의 기대지수가 젊게 나타났다. 특히 40대(42,59%)가 50대(41,98%) 보다 0,61% 더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

2)지금까지 건축사님이 보유하신 건축사지는 몇 권 정도이십니까? (답변: 총 486명)



「건축사」지는 보통 40대의 경우 개업 후 10년이라고 하면 120권정도 (12권/년X10년)보유하게 됩니다. 121~240권이라고 답한 회원이 34,36%로 가장 많은 것은 10~20년 정도 건축사지를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특별한 것은 40년 정도 이상 된 회원들은 480권 이상이 되므로 각별한 애정을 보내드리고자 한다.





#### 3)「건축사」지는 얼마나 자주 보시는 편입니까? (답변 : 총 486명)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궁금하였던 부분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회원들의 〈관심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기대지수이기도 하였다. 바로 이항목의 1, 2번 문항에서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74.49%로서 「건축사」지를 통한 행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건축사」지는 회원들이 보내는 성원으로 광범위한 필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주제의식을 가지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내용으로 매진 할 것이다.

4)위의 3번 문항에서 만약 ③~⑤항목을 선택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총 123명)



〈위의 3번 문항에서 만약 ③—⑤항목을 선택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③대충 목차만 본다(105명/21,60%)/ ④거의보지 않는다(17명/3,50%)/ ⑤전혀 안 본다(2명/0,41%)]라고 물었다. 물론〈업무에 바빠서〉라는 회원도 30.89%로 나타났지만, 3번 문항의〈회원작품(준공작품 등) 게재의 형식적 편집 불만〉을 토로하는 회원이 31.71%나 된다는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편집 기획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 11. 건축사지 만족도-만족지수

#### 5) 건축사」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건축사,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서 만족하는 회원은 37.19%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라는 회원은 55.17%나 되었다. 또한 불만족 계열에도 7.65%의 통계 수치가 보인다. 건축사지 편집위원회의 고뇌가 따른다. 그러나 회원이 원하는 만족지수는 도달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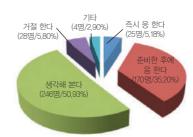
#### 6)매달 「건축사」지를 받아 보시면 처음 어느 부분부터 보십니까?

(답변 : 총 484명)



회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회원작품(준공작품)란〉인 것 같았다. 매달 회원들에게 소개되는 작품이야말로 그 새롭고 신선함은 설계를 천직으로 하는 회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회원작품란〉문항이 1위 (33.4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본다〉도 27.27% 가 되어 2위가 된 결과를 보면, 처음부터 정독을 하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건축사」지로서의 회원과의 소통은회원작품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콘텐츠가 전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일 수도 있었다.

7)만약 건축사지편찬 T/F위원회로 부터 회원님 작품(준공작품 및 계획작품 모두)과 글의 게재요청이 온다면? (답변 : 총 483명)



이번 설문조사에서 건축사지에 대한 〈참여와 소통〉의 문제에서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알아보는데 매우 중요한 지수가 되는 내용이 바로 7번 문항이었다. 회원들은 〈만약 건축사지편찬T/F위원회로 부터 회원님 작품(준공작품 및 계획작품 모두)과 글의 게재요청이온다면? (답변:총 483명) 〉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다. 즉〈① 즉시 응 한다(25명/5.18%)② 준비한 후에 응 한다(170명/35.20%)③ 생각해 본다(246명/50.93%)④ 거절 한다(28명/5.80%)⑤ 기타(14명/2.90%)〉의 내용이었다. 여기서 「건축사」지에







개제하고자 하는 회원은 〈①, ②, ③〉문항에서 나타난 것처럼 yes의 대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축사지편찬T/F위원회는 전 회원에게 동참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정확히 91,31%)들은 90%가 넘게도 편찬위의 (작품, 글)개제 청탁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매우 귀한 문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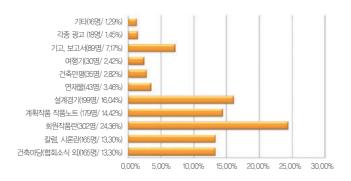
8)위의 7번 문항에서 만약 ④항목의 내용인 〈거절 한다〉를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총 30명)



〈위의 7번 문항에서 만약 ④항목의 내용인 〈거절 한다〉를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총 30명)〉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 답은 〈② 업무에 바빠서〉④ 관심 없다〉문항이 30%나되었다. 또한〈③ 대형작품 게재 위주의 불만〉도 20%정도가 되기도 하였다. 편찬위의 기획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 Ⅲ. 향후의 방향-미래지수

9)현재 「건축사」지 중 가장 유용한 부분은? (3가지만 표기) (답변 : 총 1,241명)



이번 2011년 설문조사에서 〈9.10.11.〉항목은 「건축사」지의 미래지수의 지표 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건축사」지 중 가장 유용한 부분〉을 물었다. 총 1,241명(1인 3가지 표기)의 회원이 답을 하였다. 1위에서 3위는 〈회원작품란(302명/ 24,36%)/ 설계경기(199명/ 16.04%)/계획작품, 작품노트 (179명/ 14.42%)〉의 순서를 갖는다. 6번 항목에서 〈매달 「건축사」지를 받아 보시면 처음 어느 부분부터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도 〈회원작품(준공작품)란〉문항이 1위 (33.47%)를 차지한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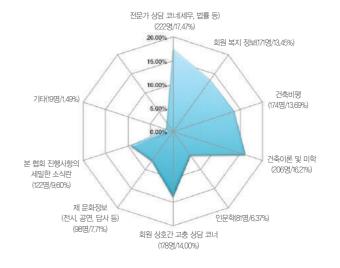
그 맥을 같이한다. 미래는 보다 멋진 편집기획을 통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작품이 차고 넘쳐 풍부한 분유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10) 현 「건축사」지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답변:총1,238 명) (주 된 것 3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이 항목에서는 회원들이 지적하는 「건축사」지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회원들의 현명함이 나타나는 부분이었다. 1위는 6번 문항인 〈미래지향적 콘텐츠 부족〉으로서 14,22%나 되었다. 5위까지를 살펴보면 〈2위—회원작품(준공작품) 게재 시 형식적인 내용과 구성(154명/12,44%)/3위—현상설계 작품 게재 시 당선 근거 및 과정자료 등 미 공개(154명/12,44%)/4위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내용 및 구성의 부족(138명/11,15%)/5위 유용한 콘텐츠/편집 기획 부족(136명/10,99%)〉로 나타났다.

11) 앞으로 「건축사」지에 추가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3가지만 표기) (답변:총1,271명)









《미래지수》의 자료로서 11번 항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생각이 되었다.

〈앞으로 「건축사」지에 추가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을 설문으로 제시하였다. 3가지만 표기하는 것으로 했을 때 답변은 총 1,271명이해 주었다. 특별하게도 〈건축이론 및 미학〉문항이 2위를 차지하면서, 16,21%를 차지하였고, 건축비평도 13,69%로서 4위에 오른다. 이제 미래의 「건축사」지도 〈인문학의 「건축사」지〉가 되어야한다는 회원들의 희망이 있음을 볼 수있는 부분이다.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다변화 전문화 되어가는 시대에 〈전문가 상담 코너(세무, 법률 등) 〈222명〉 17.47%〉〉가 1위에 오르고 〈회원 상호간 고충 상담 코너(178명〉 14,00%)〉가 3위에 올랐다.

#### 2011년 대한건축사협회 월간 「建築士」誌 내용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의 건의사항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건의사항 내용은 회원들의 속내를 진솔하게 드러낸 정성어린 애정과 고뇌가 담긴 것으로써 전체답변이 106 개나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차에 나타난 것은 62개 문항, 2차는 29문항 그리고 3차에서는 15문항이었다. 무려 100문항이 넘는 건의사항이었다. 일단은 6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 3-12항목으로 분류하고, 이어서 각 항목에 따른 문항을 전체적으로 구분 정리하였다.

6개의 카테고리는 〈(1)건축문화 (2)「건축사」지 (3)건축법규/발주제 도 메카니즘 (4)회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5)협회의 업무 6)기타〉로 나누었다. 특히 회원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감 없이 표현한 부분 은 귀 귀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시대에 창작해야 할 건축 정 신의 내면적 아름다움으로써 카테고리의 첫 번째는 〈(1) 건축문화〉를 상위에 두었다. 그에 따른 3항목은 1.건축사의 사회적 위상/ 2.건축 지성의 역할/ 3.건축문화운동으로 나누었다. 나머지 카테고리를 순 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건축사지〉1.차별화된 전문잡 지 2.진실한 에토스의 잡지 3.편집, 디자인, 기획 4.중소규모 프로젝 트 5. 회원 대변의 잡지 6.회원의 참여 촉구 7.건축사란 의미, 건축가 란 용어 8.지역건축사회 9.발행일과 종이봉투 10.실명 건축사 11.인 터뷰, 봉사, 실용성, 실무,정보 등 12.수고, 노력, 감사, 신뢰 ((3) 건 축법규/발주제도 메카니즘》1.실적 지상주의 메카니즘 2.관계법령 〈(4)회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1.먹고 살만 해야지 2.건축사를 위하 여 3.신뢰 〈(5) 협회의 업무〉1.감사와 노력 2.문화적 인식 〈(6) 기타 〉1.신기술, 신 재료 소개 등이다.

이상의 건의사항 내용을 살펴볼 때 회원들의 깊은 사유를 절절히 엿볼 수가 있었다. 이제 이 귀한 자료는 「건축사」지의 발전 근거 토대 가 되어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세계적인 최고의 잡지가 될 것이라고 회원들 모두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건축의 건축사의 작품은 「건축사」지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알려짐은 물론이며, 또한기대, 만족, 미래지수가 모두가 원하는 〈행복지수〉의 단계에 까지 도달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건의사항 내용

#### (1) 건축 문화

#### 1.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

1-1.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데 이는 자업자 득인 면이 많습니다. 건축사로서의 품위를 각자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여론 수렴했으면 합니다.

#### 2. 건축 지성의 역할

2-1. 현업에 종사하다보니 대내, 외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업종 또한 마찬가지이고 모든 건축사가 그러한 것은 아니 겠지만 시금 많은 건축사들의 생활이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이란 생각 이 듭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건축사가, 나아가 건축계가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울러 인터넷 온라인상이나 어느 곳 이든 한글로 된 건축분야의 知的 정보가 다른 분야(인문, 사회, 경제, 음악과 학등등)에 비하여 현저 하게 낮은 수준이란 생각이듭니다 집단적 건축지성의 몫을 담당하는 잡지가 되길 바랍니다.

#### 3. 건축문화 운동

3-1. 우리 모두(건축주, 건축사, 시공자)는 준비된 사람입니까? 건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문화(?)가 다른 상황 속에서 책임과 역할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이 통하는 우리의 건축문화는 어떤 것일까요? 나(건축사)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건축주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시공자는 책임과 역할이야 말로 준비된 자가 할수 있는 우리의 건축문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집을 만들기 위해선 문화(자세)70%와 기술이 30%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기술만 요구하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건축문화 운동이 건축사지 부터 있어야 하기에 뜻을 같이 합니다. /결론: 문화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사지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사의 사회봉사 참여활동, 건축사 주기적 교육(매너교육, 기술교육, 인문, 사회학 교육 등) 건축사 협회 소속 직







원 매너교육(전화예절, 협회방문 시 직원태도 등…) 기술보다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에서 인정받는 건축사로 거듭 나겠지요… 후배들을 위하여 지금 변 화되어야 합니다.

#### (2) 「건축사」지

#### 1. 차별화된 전문잡지

1-1, 한 가 지 내용이라도 심도 있는 내용이 수록되기를 바랍니다. 1-2, 다른 건축 잡지와는 차별화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월간 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 학생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아는 수준이 아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1-3, 10,000부를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건축 잡지로서의 전문성과 질을 갖추어야 함. 건축사를 진정 홍보할 수 있는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함. 유가지로서 널리 대외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수준. 작품이나 글을 엄선하여 수준 높은 건축잡지가 되어야 인정을 받을수 있음. 편집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함

1-4. 건축사의 의식을 향상 시킬수 있는 칼럼과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내용과 향후 건축의 동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함

1-5. 기존 틀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구성 희망

1-6. 건축사 이외의 사람들이 보아도 좋을 정도의 수준 높은 국내 외 작품게재

1-7. 건축문화와 디자인의 가치를 홍보, 교육할 수 있는 내용게재 1-8. 신진 건축사들도 많이 침여하게 하고, 더 많은 회원들이 글 도 쓰고 교류할 수 있는 마당이 되었으면 / 회원작품은 주제별로 다루었으면 좋겠고, 형식적인 사진과 설계 설명 보다는 작가노트를 제대로 넣으면 좋겠다. 지금은 여러 용도의 건축이 형식적으로 소개되고 있고, 때로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많음. 작품수준에 대한 평가는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느 건축잡지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사진, 오래전부터 보았던 것 같은 건물들이 지면을 채우기 위한 내용이라면 곤란할 듯. 그러므로 신진 건축사들의 실험적인 작품이나, 계획안, 스케치 등 좀 역동적인 작품이 「건축사」지를 체워야 할 듯 / 회원 상호 교류공간을 만들어 협업도 하고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 2. 진실한 에토스의 잡지

2-1. 타 상업의 건축 잡지와 건축이라는 목적물을 다루는 점에서는 같은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협회의 「건축사」지 는 사회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그런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건축사를 올바로 알리는 것 이라 봅니다. 현상설계의 당선작을 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성 있는 과정을 밝히는 것 부터가 작품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고, 공정사회, 공정한 경기의 분위기 조성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2. 유행을 따르지는 않고 존재하는 방법보다는 더욱 창조적이 며 색깔이 분명한 건축사지가 되기를…

#### 3. 편집, 디자인, 기획

3-1. 편집디자인을 바꿔야 할 것임.

3-2. 타 잡지에 비해 게재되는 작품 수준이 너무 낮음 / 필진의 수준도 향상 필요(수준 낮은 협회 임원에서 탈피)

협회 회원의 동호인지에서 진정한 건축 저널로 위상 확립 필요(의미 없는 여행기, 위원회 보고서, 협회 행사로 지면 낭비) 표지, 편집의 디자인 수준 향상 (70년대 잡지 수준임)

3-3. 설계 경기 작품을 흑백으로 연재하는데 칼라화하면 좋겠습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는 코너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4. 다른 건축 잡지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은 수준의 양과 내용 및 소상한 협회 업무진행사항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3-5. 회원작품 코너에서 건축개요 한글표기요망

3-6. 설계 작품 지속적으로 소개할 것 요청

3-7. 편집되어진 작품들의 규모나 내용이 대형건축사사무소 위주로 꾸며지며 작품되 일반적으로 큰 작품도 좋지만 규모가 소규모인 작품도 많은 개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3-8. 어떠한 작품이나 글의 내용이 좀더 세밀하게 접근 「건축사」 지를 읽는 회원으로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 겠습니다

3-9. 「건축사」지 전체를 칼라로 인쇄…

3-10. 「건축사」지의 발간은 우리 건축사들의 자긍심이다. 매월 발행되는 「건축사」지를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 감찰설계협회에 보내고 있다. 전체를 영문으로 발간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도 발행해야 한다.

3-11. 글씨체와 편집방법이 변화된 부분은 오히려 어색하고 구독 에 불편함

3-12.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편찬위원 성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 았으면 한다. 편찬위원으로 재임 시 자기 작품 싣는 일을 하지 말아 야 한다고 본다.

3-13. 경쟁력을 가지려면 시간적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시간이다 지난 것들만 수록되는 느낌과 전체적으로 잡지의 디자인이 떨어짐.

3-14. 기타 건축 잡지와 종이 질 부터 차이가 있어 작품 및 사진 등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사협회에서 발간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품질과 회원을 위한다기 보다는 협회로서 최소한의 의무감







(형식적)으로 발간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음.

3-15. 가능하면 지면을 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6. 건축 계획 등에 관한 내용

3-17. 분량(작품)을, 페이지수를 좀 더 늘려야 할 듯

3-18. 페이지수를 조정, 특히 건축에 관하여 많이 기재 요망

3-19. 작품 추가

3-20. 준공작품 게제가 시설물 별로 되어서 나오면 좋겠네요

3-21. 한국 전통건축 소개 및 해설

#### 4. 중소규모 프로젝트

4-1. 너무 대형프로젝트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품성은 떨어지고…소규모건물이나 주거론에 대해 다양하게 접 근했으면 좋겠습니다.

4-2. 중소규모 작품도 자주 게재해서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3. 회원작품 개제하는 것들의 건물규모가 너무 커서 실제 참고 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2,000㎡이하의 중소규모 건축물의 작품도 게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회원 대변의 잡지

5-1. 회원을 대변하는 잡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5-2. 건축사만을 위한 건축사지보다는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 할수 있고 또 건축사의 의미, 권익들을 충분히 호보 할수 있는 「건축사」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5-3. 국가의 건축정책 결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길잡이 역할도 해 주었으면 한다.

5-4. 돈 안드는 〈경제적 현상설계〉의 참신한 제도 정착화의 캠페 인을 「건축사」지를 통해 촉구요망.(스위스의 경제적 현상설계의 모범 답안 참고 바람)

5-5.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적용기준 모호함에 대해 건축사 결의 홍보 등

예) 학교시설 설계대가 표준화(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 1409/20110322)적용이 왜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지 모호함.

5-6. 신문이나 잡지라는 매체는 각각 추구하는 논조가 있어야하므로 「건축사」지는 건축사회원을 대변하는 색깔있는 언론매체로 거듭나야한다. 건축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한다. 협회의 색깔을 대외적으로 과감하게 표현하여야한다.

5-7. 건축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는 매체로서의 제 역할과 건축사의 위상제고에 힘을 기울여 주시길…

#### 6. 회원의 참여 촉구

6-1. 다양한 작품과 회원작품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듯 합니다.

6-2. 그저 미안 할 뿐입니다. 실력이 부족하여 내어 놓을 작품도 없고 머리에 든 것이 없어 내세울 이론도 없으면서 그나마 수고하시는 편집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7. 건축사란 의미, 건축가란 용어

7-1. 건축가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건축사」지에 개나 소나, 그리고 법률용어도 아닌 건축가란 용어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건축사가 아닌자(교수 등)가 버젓이 설계자라고 나와 있던데, 실정법 위반 아닌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 전문적이면서 보다 대중적인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어필하면서 존재가치를 수반해야 진정한 전문지라 할 수 있다. 사료됨. 건축사라는 직업명도 제대로 인식되지도 않는 현실에서 우리들만의 자화자찬은 그만둡시다.

7-3. 가끔 회원 작품 소개시 설계자가 건축사가 아닌 대학 교수 등이 설계자로 나오던데…

7-4. 간혹 회원작품 소개중 설계자가 건축사가 아닌 대학교수가 올라오는데…

#### 8. 지역건축사회

8-1. 지역건축사회 회원작품 특집을 해 보시는건 어떠신지…

8-2. 다양한 콘텐츠와 지방회원 건축사의 작품도 더 많이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지방에 있는 건축사의 작품및 애환을 연재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8-4. 지방의 건축사입니다. 서울 위주,명문대 출신 건축사 위주, 대형작품위주의 편집이 아니라 지방의 소형사무소의 작품도 취급하는 코너 요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유용한 관련내용(자재소개 및 특성 알림, 유관기관 내 건축 소식,법규 및 질의회신 내용 등)이 더 많기를 요합니다. 특별기획(소형사무소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중견사무소 이야기,건축사 성공기,인허가 이야기 등)코너를 요청 합니다

#### 9. 발행일과 종이봉투

9-1. 발행일을 매월 1일로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9-2. 8월이면 9월 것이 오던가 해야지 8월인데 다 지나가고 9월 에 8월을 받아보는 심정 차라리 8월이면 9월호 발행, 사무실에 도착하게 해 주세요.

#### 9-3. 종이봉투

우편으로 배달되는 건축사지 봉투를 비닐봉투에서 재활용종이를 활용한 종이봉투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환경을 생각합시다.건축사







가 앞장서야죠!) 「건축사」지 따로 발송. 건축문화신문 따로 발송…우편 요금 누구 돈으로 냅니까? 가급적이면 같은날 같은 종이 봉투에 담아 보냅시다. 건축사지 잡지책, 휴대하며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크기를 좀더 줄이고. 차라리 두께를 키워서 쉽게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하였 으면 좋겠습니다.

#### 10. 실명 건축사

10-1. 작품 게재 시 공모 당선작의 경우 엄정한 심사로 모방작품은 일체 제외할 것을 제안 합니다. 전체회원의 능력과 자격의 획일화와 평 준화 이념과 건축사가 만드는 「건축사」지의 품격과 권위는 별개의 문 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품격이 다소 떨어지는 듯 함-(편집자님..죄송!!) 실제 작품에 참여한 건축사의 작품과 건축사의 이름만 게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부 사무소의 경우 1년 동안 그 많은 대규모 작품을 혼자서 했다는데, 그런 분이 세계건축의 역사에 길이 안 남으면 코메디겠죠?)

#### 11. 인터뷰, 봉사, 실용성, 실무, 정보 등

11-1. 건축사들이 봉사하는 (실질적:무료 설계,무료 감리) 내용 게제 요청. 이렇게 노력하면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식고취와 더불어 건축사 로서의 자긍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뷰 연재희망

11-3. 첨언하자면 「건축사」지로서 건축사업무 실무에 보다 실용적인 이론 등을 연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4. 디자인이나 설계 기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나 사 례, 교육 강의 등을 많이 수록하였으면 함

해 주었으면 좋겠음

11-6. 보다 다양한 정보와 구성 및 편집으로 업무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사 업계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데 오랜 기간 해온 형식에 안 주하고 있다고 본다. 회원들의 마음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모르나? 완전히 바뀐 건축사지를 요구한다. 이상.

11-8. 소규모 사무실의 정보부재

11-9. 「건축사」지 발행을 중지 또는 개선을 바랍니다

11-10. 좀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수고, 노력, 감사, 신뢰

12-1. 수고하세요.

12-2. 다 같이 노력합시다.

12-3. 감사합니다.

12-4. 건축사지편찬 T/F 위원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2-5. 두껍게, 알차게, 가치있게

12-6. 어려운 가운데 회원 여러분 건승을 빕니다.

12-7. 건축사 잡지 잘 보고 있음

12-8.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열심히 정진하길

12-9. 회원 간의 신뢰, 믿음, 존중

#### (3) 건축법규/발주제도 메카니즘

#### 1. 실적 지상주의 메카니즘

1-1. 발주제도의 개선책-대형 건축사사무소 위주로만 편중되는 〈실 적제한〉은 열심히 작품하고자 하는 건축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젊은 건축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건축사 지는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안 PQ문제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잡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답답하고 다급한, 대부분 건축사의 생 존이 달려 있습니다.

1-2. 건축 설계 시장의 현황과 발주제도 등 개선방안(2010년 건축사 지), 친환경 건축설계 아카데미 지상강좌(2011년 「건축사」지)

#### 2. 관계법령

2-1. 건축법 중에서 모호한 해석에 의해 현재 정확한 법해석이 안되 11-2. 중 소규모 사무소 탐방, 문화계 등 전문직 단체장 기고 또는 본부분들을 실례와 국토해양부 답변을 열거해서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2-2. 개정된 법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개제바람(실무에 아주 유용 예상함)

2-3. 많은 관계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나 바쁜 업무로 변경사 실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움으로 개정법령 및 주요 골자를 요약하여 게 11-5. 건축 설계 용역의 실무에 관련된 정책, 제도, 정보 등을 게재 - 재하여 주시면 법령 변경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수행에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2-4. 「건축사」지 이므로 협회와 회원을 위한 법 개정내용 및 건축사 11-7. 회원 또한 국토부나 서울시의 건축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 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한 내용을 보다 많이 수록 되었으면 합니다.

> 2-5. 건축 법규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의 사유를 파악했으면 함. 2-6. 질의회신 사례나 판결내용 등을 수록하여 판단에 기준이 되었 으면 합니다.

> 2-7. 건축법 판례 등 실무접촉에서의 해결 또는 해셕에 대한 접근방 법에 관한 실례를 많이 게재했으면 좋겠음.

2-8. 건축법규 변경 사항 등의 해설, 질의, 답변 등

2-9. 법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내용

2-10. 법 개정 관련사항

2-11. 법제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자주 올려주시기 바람





#### (4) 회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 1. 먹고 살만 해야지

1-1, 설계만 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점이다. 건축사의 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역에 대한 조사 및 사례에 관한 연재를 하면 유익할 것 같다.

1-2. 다수의 건축사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홀로 건축사분들의 상당수 이상 되는 현실에서 멋진 작품과 멋진 글도 좋지만 한편으로 소외되어 있는 건축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보면 어떨런지요? 예를 들자면 많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을 모아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코너 같은거요. 먹고 살만해야지 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2. 건축사를 위하여

2-1. 건축사의 위상이나 실익을 위한 기획물/ 제도개선을통한 제 안→실무적인 접촉, 그 조치에 대한 경과보고→결과의 도출 보고 등 건축사를 위한 사안에 대하여 시리즈(수사 기법같은 추적?)로 이익 실현 코너 마련은 어떨지. 협회의 대표적인 월간지로서 본 협회는 당 연히 이익단체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2-2. 열악한 설계시장에 안주하지 않고…설계와 더불어 건축사들이 할수 있는 새로운 업역 또는 그런일을 하시는 건축사들의 경험들과 그런 틈새시장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에 관한 정보가 있었으면…

2-3. 건축 현업에 대한 애로사항

#### 3. 신뢰

3-1. 건축사 현 상태의 고통은 어디서 오나? 건축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도면의 실상은 허가방 도면이다. 감리는 형식상 감리를 하고 있다. 고객 만족을 목표로업무를 책임제로 추진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 (5) 협회의 업무

#### 1. 감사와 노력

1-1. 협회발전에 노력하신 집행부에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1-2. 현상설계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협회의 노력 필요

1-3. 대응과 홍보

사안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홍보한다. 예를 들면 구조프로그램의 교육 및 구입에서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진행이다. 개발사에서는 판매를 위해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수차례 무차별적으로 하는데

반해 협회에서는 회원전용게시판을 통해 피동적으로 의사를 밝혔다. 개발사의 할인가 판매 마지막에 가서야 문자 1번, 팩스 1번 보냈다.

#### 2. 문화적 인식

2-1. ① 문화 예술지로서의 접근— 고리타분함이 줄줄 흐르는 표지/ 열어 보면 역시나 한마디만 하면 끝을 알 것 같은 인간들의 초점 없는 야기들…(겨우 원고 부탁해서, 기름기 줄줄 흐로는 사회인사의 뻔한 야기들.)/ 쪽 팔려 이게 「건축사」지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요. 웬…추억의 잡지?/ 기술과 합리로 무장된 자 들의 속 터지는 한계들…상상도, 발침함도 없는 답답함

② 독립적 출판시스템 - 건축사지는 회원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가?/회장, 이사들의 뻔한 입장들. "아 우리 돈으로 만든 잡지, 이익보자는 것 아닌가요?"/건축사 - 건축설계 - 건축을 넘어 문화예술 지로서의 접근은 절대 불가능해진다./건축사신문이 있지 않는가?/건축사지는 객관적이고, 문화예술지로의 독립을 부여해야한다./대상은 건축사를 넘어 국민이 되어야한다.

- ③ 배포- 건축사들에게만 배포하지 마세요./전 국민에게/모든 학생에게/인터넷에 e-BOOK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 ④ 경계- 경우 건축사라는 경계를 넘어/ 오히러 건축 잡지가 미술을, 음악을, 영화를…
- ⑤ 편집장- 고집세고, 문화적 인식을 가지고, 젊어서 재미와 매력이 넘치는 편집장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1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1년에 아니면 6개월 마다 변신을 해야 하니깐.
- ⑥ 예산편성이 첫째입니다. 그거 없이 적당히 잘 만들어 보자는 수작? 이런 것이 내가 꿈꾸는 「건축사」지입니다. / 그런데 절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회장, 이사진들의 고리타분함? 문화적 인식 부재? /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질까요? 후~

#### (6) 기타

#### 1. 신기술, 신 재료 소개

1-1. 시리즈물 게재(신공법, 친환경, 특허, 신재료 등) / 해외 전축 동향

1-2. 해외건축자료 작품과 비평

1-3. 기술적인 정보(상세도면이나, 새로운 기술등의 내용)

1-4. 건축재료, 특히 외장재 중 신제품 위주로 상세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5. 신 재료의 소개코너 📛









#### 월간「建築士」誌 개선을 위한 설문 원문

#### Ⅰ. [기본사항 및 관심도] 해당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4개 문항)

- 1) 응답하시는 건축사님의 만 연령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⑤ 60대 이상 ④ 50대
- 2) 지금까지 건축사님이 보유하신 건축사지는 몇 권 정도이십니까? (1963년 특별법인 대한건축사협회를 설립한 이래 2011년 4월호 까지 통권 제504호)
- ① 60권 이하
- ② 61-120권
- ③ 121-240권

- ④ 241-360권
- ⑤ 361-480권
- ⑥ 481권 이상
- 3) 건축사지는 얼마나 자주 보시는 편입니까?
- 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가끔 작품 게재와 글도 쓴다
- ② 작품은 게재하지 않더라도 옆에 두고 자주 보는 편이다
- ③ 대충 목차만 본다
- ④ 거의 보지 않는다
- ⑤ 전혀 안 본다
- 4) 위의 5번 문항에서 만약 ③-⑤항목을 선택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별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어서
  - ② 잡지로서의 수준 미달
  - ③ 회원작품(준공작품 등) 게재의 형식적 편집 불만
  - ④ 업무에 바빠서 ⑤ 관심 없다

### Ⅱ. [건축사지 만족도] 해당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4개 문항)

- 5) 건축사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 ① 아주만족
- ② 만족 ③ 그저 그렇다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 6) 매달 건축사지를 받아 보시면 처음 어느 부분부터 보십니까?
- ① 칼럼, 시론란 ② 회원작품(준공작품)란
- ③ 현상 공모작품, 계획작품란
- ④ 특집, 연재물, 건축만평, 보고서, 여행기외 모든 글 위주로 본다.
- ⑤ 건축마당(본협회 소식란 외)
- ⑥ 광고 등 기타부분
- ⑦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본다
- ⑧ 순서 없이 그냥 본다

- 7) 만약 건축사지편찬 T/F위원회로 부터 회원님 작품(준공작품 및 계획작품 모두)과 글의 게재요청이 온다면?

  - ① 즉시 응 한다 ② 준비한 후에 응 한다
  - ③ 생각해 본다
- ④ 거절 한다 ⑤ 기타
- 8) 위의 7번 문항에서 만약 ④항목의 내용인 〈거절 한다〉를 선택하 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잡지로서의 수준 미달 ② 업무에 바빠서
  - ③ 대형작품 게재 위주의 불만
- ④ 관심 없다
- ⑤ 게재 시 비용부담
- ⑥ 기타

#### Ⅲ. [향후의 방향] 해당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4개 문항)

- 9) 현재 건축사지 중 가장 유용한 부분은? (3가지만 표기)
- ① 건축마당(협회소식 외) ② 칼럼, 시론란
- ③ 회원작품란
  - ⑥ 연재물
- ⑤ 설계경기 ⑦ 건축만평
- ⑧ 여행기
- ⑨ 기고, 보고서
- ⑩ 각종 광고

④ 계획작품 작품노트

- ① 기타
- 10) 현 건축사지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주 된 것 3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 ① 광범위한 필진(필자POOL)구성과 다양한 주제의식 부족
- ②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내용 및 구성의 부족
- ③ 회원작품(준공작품) 게재 시 형식적인 내용과 구성
- ④ 현상설계 작품 게재 시 당선 근거 및 과정 자료 등 미 공개
- ⑤ 건축 작품 비평의 부재 ⑥ 미래지향적 콘텐츠 부족
- ⑦ 유용한 콘텐츠/편집 기획 부족
- ⑧ 협회의 업무소식과 홍보 부족
- ⑨ 해외 건축의 작품동향 빈곤 ⑩ 기타
- 11)앞으로 건축사지에 추가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3가지만 표기)
- ① 전문가 상담 코너(세무, 법률 등)
- ② 회원 복지 정보

- ③ 건축비평
- ④ 건축이론 및 미학
- ⑤ 인문학 ⑥ 회원 상호간 고충 상담 코너
- ⑦ 제 문화정보(전시, 공연, 답사 등)
- ⑧ 본 협회 진행사항의 세밀한 소식란
- ⑨ 기타
- 12) 기타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라도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







# 건축 초대석

#### Invitation to Achitecture



#### 문 헌 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통신·방 송공학전공(석사)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IT학과 정보통신공학전공(박 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최고위과정(수료) / 철도 청 근무 / 문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한국항행학회 회장 / 한국정보통 신감리협회 수석부회장 / 한국ITS학회 부회장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 사 /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 / IBS코리아협회 이사 / 한국길포럼 이사 / 한국철도공사철도발전 자문위원 / 연세대학교대학원연합회(18개대학원) 총학생회장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총동창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자문위원

### 건축의 사회적 지평확장을 위해

이제 우리 자동차나 휴대폰, 조선 등의 세계적 진출, 동, 하계 올림픽 및 월드 컵 유치, G20 주관, 최근의 k-pop.열기 등은 바로 한국인의 힘의 결과이며, 수많은 국제적 인사들의 잦은 한국 방문은 곧 국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건축 또한 기술이나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길, 환경과 녹지, landscape,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강제적 규제에서 재량적이고 창의적인 틀을 수용하고, 각 지역민의 삶을 기준으로 그들의 적극 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건축사들도 그 책임과 관리, 선도 할 역량은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 및 건축사지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 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사회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히며 개별을 넘어 공론적 건축 담론 의 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지금껏 수없이 찾아 가고 불려(?) 다니던 행태가 머지않아 진정한 '실력'으로 그들 스스로가 건축문화의 큰 가치를 위해 우리를 찾아 올 기대도 해 본다. 작은 파장이 큰 울림이 되도록 기원 드린다.

인간관계에서 먼저 가까운 이에게 잘 하라는 옛 말이 있다. 다 사람이 하는 일 인 만큼 단체 사이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건축사와 ENG. 업무 사이가 떨어 질 수 없는 형제지간이라 할 만하나 잘 교류 치 않는(?) 형제 같은 느낌이 듦은 필자만의 오해이길 바란다.

건축유관단체에서는 벗어나 있는듯하나 무관할 수 없는 관계 조직이라 판단하 였다. "자주 보는데 情 난다"는 말에 따라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먼저 손도 내밀고, 얼굴이라도 비치자는 생각이 들었고 흔쾌히 맞아 주었다.

합력은 이성만으론 되지 않는다.

먼저 마음과 감정이 흐르고 교차해야 하는 것을!

지난 9월에 면담 승인 후, 최종 일시를 정하지 못하는 다소 불안(?)한 과 의 場이 되어 버렸다. 오히려 진솔한 마음과 의견 교환은 그런 상황이 더 정을 보낸 다음 11, 7, 에야 그 약속이 실현 되었다. 협회 회관은 본 협회 와 멀지 않는 곳에 당시의 건축 상황과 일반적으로 가지는 ENG,의 이미 기끔 씩의 따뜻한 비판과 공감의 하소연이 양념처럼 곁들인 것도 마치 지를 담고 있었다.

면담 전, 잠깐 동안이나마 홍보팀과의 사전 소개와 검사(?)가 있었고, 어 쩌면 그것은 서로가 멀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었다.

얼마 되지 않아 사라졌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문 회장님의 밝고 격의 없 는 분위기 주도에 따라 배석한 권익수 실장님(기획협력실), 이명진 홍보 통한 수용은 이제 무엇보다 절실한 덕목이 아닌가. 팀장님, 정장희 기자님과 함께 회장님 인터뷰라기 보단 허심탄회한 대화 진정 양 단체와 회원들의 발전을 보고 싶다!

적절한 게 아닐까 싶다!

오래 만나지 못 한 친지들의 만남처럼 자연스러웠다.

점차 복잡다단해지는 세태 변화 속에서, 장차 지식 집약, 창의 산업, 융, 당초 한 구석에 조금 담겨 있던 ENG.에 대한 선입견은 대화가 시작된 지 복합을 지향하는 설계용역업이란 동일 성격의 업종이 함께 성장을 도모 하려면 조그만 이해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큰 협력과 상호 존중을







박찬정, 정병협 :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기 및 있으니 앞으로는 나아지리라 봅니다. 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헌일: 좋은 뜻으로 이렇게 찾아 주셔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박: 그럼 우선 연혁을 포함 간략한 협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문 : 우리 협회는 약 5천개 엔지니어링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으로, 1973년 기 술용역육성법 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란 명칭으로 출발하였 고, 그 이듬해 창립총회의 개최와 설립허가를 얻었습니다. 1982년에는 FIDIC(국 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에 가입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으며 2004년부터 '엔 지니어링의 날 제정을 통해 대외위상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엔지니어링산업발전 방안"이 국가경쟁력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기본적으로 지식경제부의 정부 수탁사업을 비롯하여, 업체 임금 실태나 경영분석 등의 통계청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유 업무로는 엔 지니어링사업자에 법령 제도 개선사업, 현황 및 관련 통계 자료조사, 각종 교육 사업, 해외진출 지원, 제 경력확인 등 민원 서비스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 다. 또한 9개의 기술협의회와 12개 지회를 통해 엔지니어링의 다양한 기술 분야 의 발전과 지방 중소업체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 :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면서도 저도 개인적으론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일 부 건축사사무소에서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협력적 관계를 잘 유 지하고 있는데요.

기본업무나 조직체계로 볼 때 저희 대한건축사협회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현 재 양 단체 간 관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 : 양 기관은 설계와 감리를 주 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점이 아주 많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설비 및 지반설계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와

건축사의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 욱 그러하지요.

엔지니어링분야는 법률상에서 건설, 정보통신, 환경 등 15개의 기술 분야와 약 100여개의 전문분야로 나 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분야를 금 번의 유사 분야 통·폐합을 통해 48개 분야로 재조 정 하였는데요. 저는 건축분야 또한 엔지니어링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진정한 유대관계를 증대 ·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까워야 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협회 간의 사이가 이와 유사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 (웃으시며) 양 기관이 상호 그러한 인식을 하고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손을 자주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사실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건축분야의 분들과 지금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유 지하고 싶어하지만 건축분야에서 건축은 예술의 한 분야로서 엔지니어링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건축사사무소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우기도 어렵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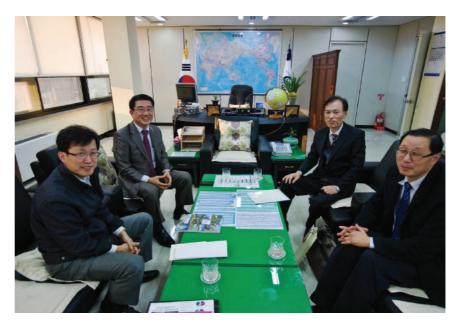
박: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입니다. 아마 갈수록 서로 협력 관계의 역할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협회 장님을 포함한 여러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 쪽에서도 귀담아 들어야겠 지요. 협회장님을 비롯하여 협회 관계자와 공식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요.

누구 탓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자기 할 몫이고, 자기 역할에 달렸겠죠. 현재 제일의 관심사는 무엇인지요?

문: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국제수준으 로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살펴보면 실비정 산(cost)에 보수(fee)를 가산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수를 기본 보수와 성과 보수(incentive)로 구분하여 기본 보수는 소급 적용하고 성과 보수 는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지급하 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엔지니어링 관련 대기를 법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고, 그마 저도 당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 은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일방적 공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에 있어 정당한 대 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탄력적인 대가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이에 맞게 성과 창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요구함 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이 윈 · 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2012 FIDIC 서울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Beyond Green, The New Paradigm'이란 주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 공통된 관심사인 녹색성장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의 패러다임 구축에 대 또한 해외엔지니어링 지원활동을 위해 해외수주 지원금은 큰 폭으로 늘리고, 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FIDIC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활성화해 해외거점 공략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FDIC 서울총회 조직위원회에서 현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단체장이 되셨는데, 15대 협회장에 이어 16 대 협회장으로 재선임 되신 배경과 업무적 성과를 드신다면?

문 : 네. 5,000여개 회원사 중에 65%가 건설 분야로서 역대 협회장님들이 건설 분야에서 많이 하셨고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하셨지요. 50대가 회장된 것도 처음입니다.

협회가 과거 과기부에서 4년 전 지경부 산하로 바뀌면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경부에 엔지니 어링과가 설치되고, 법은 물론 R&D사업 등을 우리 쪽으로 만들어 주는 등 획기 적인 일을 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 고 계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대통령보고, FIDIC 총회의 서울 개최 완벽한 준비 등 공약했던 대부분의 사항을 지키려 불철주야 노력하였고, 대부분의 경 우에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박: 큰 발전의 배경을 이루었군요. 올해의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요?

문 : 네. 사업대가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 ▷실시설계 위주에서 개 념 및 기본설계 등 글로벌 설계제도의 도입과 실천 ▷정부, 지자체 등의 자체설 계를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로 발주 전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최저가로 변질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대해서 는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인력의 경력관리를 금년 5월1일부터 실시하게 됨으로써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와 연합한 전문 인력의 교육을 준비하기위해 금년 4월말 아시 아·태평양 전문 컨설팅개발 프로그램(ASPAC)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엔지니어 링컨설팅연맹(FDIC)과 국제 FIDIC 인증강사 교육에 관련한 MOU을 체결해 현재 교육중입니다

박 : 지식집약산업분야의 육성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만큼 시간문제라

엔지니어링분야 또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움직임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 : 국내는 아직까지 시공 중심의 개도국형 모델(Construction-based Engineering)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 선진국형 모델(Engineering-based 요까지야 있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나라의 문화를 담아내야하는 것에서 Construction)로 점차 전환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확대, 대형 국책 프로젝트 중심의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 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의 방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박 : 저희 건축설계용역업 분야의 해외진출도 이젠 개별업체 노력만을 두고 볼 게 아니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지원과 협력 관계가 절실하다고 보 는데, 엔지니어링 분야와도 다를 게 없겠지요.

함께 합력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 : 엔지니어링산업발전의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어 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 전 세계적인 추세가 엔지니어링이 중심이 되는 EPC형태로 건설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CPE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턴키는 시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엔지니어링의 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엔지니어링은 실시설계 위주보다는 '개념설계'형의 드로잉으로 전환 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 저희 단체나 건축사들의 주장과 너무 흡사하네요.

소프트웨어나 지식서비스가 시공, 혹은 산업을 리드하고 생산을 유도하는 구조 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진 않아요. 회장님 재임 시 저희 건 축사협회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 교류를 부탁드립니다.

문: 네, 그럴 기회가 되면 잘 유념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건축사 단체도 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따로 있는 지 잘 모르겠어요. 힘을 키워야 하고, 회원사 입장에서도 단체가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여러 군데 등록한다고 쓸데없는 경비가 이중삼중 으로 더 나가게 되죠.

다른 시공측보다 우리의 역할이 더 윈.윈 해야 하는 관계죠.

박 : 충고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축설계의 경우 공공이든, 민간 건축이든 외국 건축사에게 의뢰하거나 협력하라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엔지니어링 분야는 어떠신지요?

문: 저희도 그래요. 개선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자세 를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에서 민간 부분에서야 자율적으로 하는데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무슨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적 내용이 없는 한 공공기관 설계에 외국 건축사를 불러들일 필 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의 자립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R&D의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들은 자기 나라의 문화적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차별









와 그에 대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문 : 아파트입니다. 10여년 살다가 옮기게 되면 좀 새로운 개념으로 지어지니까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낍니다. 거의 1가구 2차량이 되어 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부족한 듯합니다.

정: 역시 기능적 관점이시네요.

건축사들의 직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느끼신 것이 있으시면?

문: 우리 모두가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 법령 얘기를 조금하지요. 건축 쪽에서 제안 · 제정된 건축기본법도 우리로서는 쟁점이 되고 있어요. 서로 간의 파트너십과 안정적인 시장 구조가 되면 상관없겠으나 지금의 법안은 무리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시장 여건이 성숙되거나 협력 구조가 강구되기 전에 개 별 법령을 침해하는 걸 만들 때는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전기, 정보통신 분야가 독립해 나가고, 기계설비 분야나 조경 분야까지 기본법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은 건축사가 다 한다고 못 박아 놓았는데, 인테 리어, 조명, 공공환경 등 그것을 다 건축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오 해되고 있어요. 건축사들이 보다 넓게 이해하고 포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 박: 정말 많이 오해되고 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본법 관련 논의에 몇 차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건축 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기본법의 취지가 옳다고 보지만 지난날의 패러다임으 로 지금의 변화를 보려하니 부적응과 논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 저는 면허 관련 기준도 통, 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엔지니어 관련 면허 수가 15~20개나 됩니다. 외국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 최소한 2~3개로 압축이 되더란 얘기에요.

박 : 보다 열린 자세로 자세한 논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좋은 건축이 좋은 인성. 혹은 행복한 삶의 바탕이 된 직. 간접적인 경험이 있으 신지요?

문: 저의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근래 여러 매스컴을 통해 전통 한옥을 찾는 외 국인들이 많아지고, 또한 그들의 경험이나 평판이 좋다는 것을 보면 좋은 건축 은 누구에게나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좋은 느낌 과 감정을 가지다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결국 좋 은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옥에 기거했던 손님과 집 주인의 모습에서도 그런 감정의 교류가 되는 것 같 더군요. 저도 자부심이 생기구요.

박: 그렇지요. 간접적이나마 그런 좋은 모습을 자주 대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경 험이죠. 좋은 건축/도시를 위해 각 분야 관계자들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 :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 좀 사적인 질문도 하겠습니다. 현재 사시는 집 형태 갔으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서로 잘 부합되는 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렵죠. 건축도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력하고. 설계 각 분야도 잘 조합되어야 하고, 자재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고, 시공이나 관련 행 정 지원까지 어느 하나라도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건축이 되기 어 렵겠지요.

> 그렇게 하려면 내 것, 내 분야만의 주장을 넘어 남의 것도 귀 담아 들어 이해하 여 수용할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좋은 기술보다 먼저죠. 아 무리 좋은 기술, 자재,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부리는 사람들이 조화, 협력 관계가 아니면 무용지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 :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대한 생각은?

문: 저희가 다루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특성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탓 인지는 몰라도 다른 것보단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있는 주택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주거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가 제한적이고 좁은 것 같아요. 더군다 나 우리만의 특이한 전세제도로 인해 실 사용자의 선택권이 약해 시장의 불안 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행복도가 낮은 것 같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공 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서민을 위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차별성을 지니고서 평등을 주장하죠. 투기 는 나쁘다고 하면서 자기 집 값 오르기를 바라지요.

좋은 생각이나 마음에 따라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명제로 본다면 결국 좋은 건축문화 환경이 되려면 올바른 정신, 다 함께 잘 살자는 배려가 있어야 점차 그런 환경이 구축되리라고 봅니다.

박 : 근본적 측면을 지적해 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길 해 주시니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건축행사, 혹은 전시회 등에 참여하신 경우와 있으셨다면 그 느낌 은 어떠셨는지요?

문: 언젠가 건축에 대해 이해를 해보고 가까워지기 위해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하는 건축산업대전을 둘러 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지 못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재나 장비, 관련 업체에 대한 소개자료 외 미술전시나 관련 서적 등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큰 발전이 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만, 어 떻든 타 분야의 것도 많이 받아 들이셔서 서로 도움과 이해도 되고 사업성과도 올라갔으면 합니다.

건축의 융, 복합적인 성격이 잘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박 :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더욱 유념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 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 CO2 배출 축소 등 환경 보전 및 관리가 최대 이슈라 할 수 있는데, 그에 대응할 협회의 활동계획은 있으신지요?

문: 엔지니어가 여러 환경적 과제의 해결 주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 회는 물론이고요.

그에 따른 활동 사항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그런 과제에 문 :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를 가꾸어 ... 대해 개별적이거나 공동의 연구 및 노력을 지원하고 그 기반을 좋게 하는 어떤









활동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정책 개발과 실행, 기술이나 특허 등에 대한 보호와 육성 방안, 재정 문제에 대 한 대안 마련, 정보나 자료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박 : 상기 사안에 대해 대가 기준, 국내외 정보와 자료 교환/축적, 제도개선 등 준비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 제가 알기로도 건축사 업무도 기본적인 것은 남아 있더라도 관련 업무나 내용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어느 한 분야가 수직적 위계를 가지고 끌어 나가기보다는 협력적으로 서 로의 강점을 살려 나가는 보다 수평적인 네트워크화로 변해 나가는 것 같습니 다. 엔지니어링과 과학기술, 재료 및 장비, 디자인 등 여러 분야가 함께 교류하 고, 서로를 이해하여 공유부분을 넓혀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접촉이 활발해 졌으면 하지요. 보다 공적 조직인 협회가 여러 기회를 통해 자주 그런 교류를 유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이나 녹색 성장의 동반자 같은 경우는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 오늘은 짧은 시간인 만큼 자세한 사항을 논 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효과적 인 실행 방안을 후속적으로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 :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회적 대우나 인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회장님, 혹은 협회차원의 대응책이

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서로 힘을 합쳐 그 기반 환경을 좋게 하는 데 꾸준히 공을 들여야 하 이젠 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편 우리 내부의 생각이나 행 태를 고치는데 어쩌면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시기심이 유별난 것 같아요. 잘 활 용하면 큰 분발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만, 남 잘 되 는 게 배 아프면 어떻게 함께 성장합니까? 그가 잘 되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나중에라도 나도 도움을 받 지요. 작은 이해와 조급한 이익에 너무 집착하면 더 큰 것을 잃기 쉽죠.

우리뿐만 아니라 건축용역업계에서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부터라도 합심하여 거래 질서를 지키고, 힘들더라도 상대 배려를 해 나가면 결국 서로에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정부도 협회를 통해 해외시

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1건당 최하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 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몇 년 지속하니까 성과도 나오 고 중소업체로서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젠 1년에 11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

박: 부럽네요. 지원 사업은 몇 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됐는지요?

문: 2006년부터입니다. 조금씩 지원금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박 : 검증과정은 협회가 하나요?

문: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변화와 인식을 바탕으로 협회나 단체 간은 물론, 개별 조직 간의 박: 건축용역업계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곤 있지만 체계적인 공적 지원 이 아쉽죠. 직접적인 사업 유발을 위한 지원금은 아니더라도 시장이나 법적 정 보 등 지원할 수 있을 방안이야 왜 없겠습니까!

> 엔지니어링산업분야를 볼 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제도적 · 정책적 지원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 다면 무엇인지요?

문: 세상에 다 만족스러운 것은 없겠지요. 건축계도 마찬가지라 여기지만, 예를 들면 연구와 개발을 게을리 할 수 없는 분야에서의 최저가 입찰제 같은 것이죠. <mark>정</mark> :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기술인이나 건축사를 포함한 창작인 들에 대한 사 정부나 공공기관으로서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편적인 처방보단 미래를 좀 더 보았으면 해요. 연계공사를 노린다거나, 기술력 증진의 기회로 삼 는다거나 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덤핑하 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무슨 투자로 기술을 개발하고, 건전한 경영이 문: 미흡하지요. 후세 인재들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 이루어 질 것이며, 온갖 술수와 비리가 없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위하더라도 장차는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박: 저희들도 백번 동감합니다.

함께 합력하여 꾸준한 노력과 대안 제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화나 대중화를 모색하는 경향이 있는데 엔 인 되는 것을요. 지니어링협회 나름의 활동이나 홍보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으신지요?

문 : 요즈음 국내는 물론 세계 어디서나 지식 정보, 창의 같은 soft skill을 얘기하 책 이전의 이념이 뚜렷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요. 우리 분야는 그에 대응되는 이미지를 갖기 쉬운 데 저도 그런 기술, 지식 또한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서로 먹힌다거나, 혹은 이 화를 이루려면 결국 그런 소양이 없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기술 또한 좋은 인성 🥏 정말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해악으로 활용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은 아직은 우선순위가 아닌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 정: 솔직한 말씀이고 저도 이해됩니다.

름이라 할 만 한데 그를 위한 제일의 관심사는 무엇이신지요?

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인재모시기, 키우기'를 제일로 봅니다. 세계적 힘은 결국 사람한테서 시작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치죠. 굴지 의 삼성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고급인재를 인재를 유치하라고 했다는데. 정 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분야나 건축계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떠들게 아니라 인재를 모시려면 인재를 보는 눈이 있 어야겠지요. 우선 그를 알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해요. 스스로 실력 배양 이 안 되면 볼 수도 없지요. 여러 번 언급은 하였습니다만, 그런 실력만이 아니 라 인격과 도덕성,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재승박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덕위 에 재를 써야지 재가 위에 가면 박덕하여 조직의 번영을 이룰 수 없어요.

#### 박: 항상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실천이 쉽지 않네요.

정말 인화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인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 요. 자기 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더 하죠.

기술 분야라 특허나 지식 개발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시스템이나 컨설팅 기능은 있으신지요?

#### 문 : 아직은 없습니다.

박 : 저희 쪽에서도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연구와 실행 방안을 공부하곤 있으나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건축 환경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 우리 사회에 대한 요구에 앞서 우리가 지향하고 가다듬어야 할 게 무엇이 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우선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엔지니어링 분야나 건축사 업무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시장이 커지고 복잡다변화 되는 시대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름의 노력과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 다. 기끔씩 활동 영역을 가지고 다툴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자기 영역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사회적 힘을 키우는데 합력해야 합니다. 다 나뉘어져서는 사회적 주류에 합류 할 수 없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 기술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전체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한 자기이해 위주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정

만이 아닌 인성적인 측면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사이의 소통, 사회 \_ 끌려는 생각보다 서로 잘 활용한다는 주체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되면

물론 다른 분야끼리 모이면 조금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생물학 그러나 협회의 주 업무나 시급한 일들로 미루어보면 홍보나 대중화 같은 부분 전 진화에서 이종 교배의 경우 그런 이질적 요소들이 부딪치며 갈등과 융합의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상생의 지혜와 경쟁력을 이루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런 문화에 익숙해 질 필요가 있어요.

소통, 융/복합을 통한 창의, 기술 개발 등 상호 시너지 효과의 모색은 시대적 흐 이무튼 이젠 그런 열린 마인드가 아니면 세계 역사,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퇴보되리라는 예상을 여러 석학들이 일러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기술인들이 그런 개념에 약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큰 시각으로 봐야 하고 우리가 이제 앞장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정말 진솔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 정병협









### KEPCO 충북본부 사옥

#### **KEPKO Choungbouk District Division**

당선작 \_ 신동재 정희원 (주) 다울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성화2택지개발

지구 60-4 일원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

주요용도 사무실

**대 지 면 적** 4,200.00㎡(전체대지면적 9,466.00㎡)

건축면적 2,360.77㎡ 연 면 적 20,791.38m²

건 폐 율 56.21%

용 적 률 272.81%

모 지하 3층, 지상 7층 발 주 처 KEPCO 사옥건설처

설계담당 김미섭, 조준상, 김진섭, 김은영, 이진곤

건물의 컨셉은 'Open Cube'로서, 자연과 소통하고 스마트그리드의 열린 기술을 상징하며 지역주민에게 열린 한 전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는 여덟 개의 박스를 결합하는 개방적 아트리움공간으로 구현된다.

SITE는 택지개발지구내의 업무시설용지로서, 남측은 전면도로와 완충녹지에 접하고 차량은 북측과 동측에서 진입 되며 서측에는 근린공원이 형성되어 있다.

남북으로 분리된 접근로를 강하게 연결하는 내부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랜드마크 로서 기하적 형태의 매스를 위 치시킴으로써, 수직·수평으로 열린 친환경적 배치로 완성되도록 하였다. 대지후면은 주차와 작업차량 등을 위한 공간이 되고 전면은 보행자의 공간이 된다. 남북으로 연결되는 보행자동선은 산책로와 우측의 개발예정부지와 연 계된다.

#### 건축개념

건물은 나란한 두 개의 매스위에 ㅁ자의 사각매스가 겹쳐진 형태로서, 내부는 수평의 콘코스와 수직의 아트리움 이 연결되는 'Eco Atrium'이 형성되고, 4개의 떠있는 매스는 도시로 열린 게이트를 형성하는 'Floating Cube'가 된

#### 내부공간 및 평면계획

저층부 평면은, 남북방향의 메인로비를 중심으로 3개층의 11자형 매스에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창구 강당 등 업무지원시설 위주로 사용된다. 4~6층은 주 사무공간으로서 복도끝은 사방으로 열리고 남측의 녹지공간으로 아 트리움이 개방된다. 7층은 직원식당 체력단련실 등 후생공간 위주로 구성된다.

#### 입단면계획

입면은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외피와 기하적, 상징적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3층까지의 저층부 매스와, 중간의4층, 5~7층의 고층부 매스로 구성하였으며 남측의 고층부매스에는 Double Skin

단면계획은 솔리드(매스)와 보이드(아트리움)의 결합으로 다양한 공간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중앙의 아트리움은 패시브 친환경 계획의 중심으로서 남측의 더블스킨과 결합되어 이상적인 에너지절감형 단면으로 계획되었으며 건물내부에 흐름과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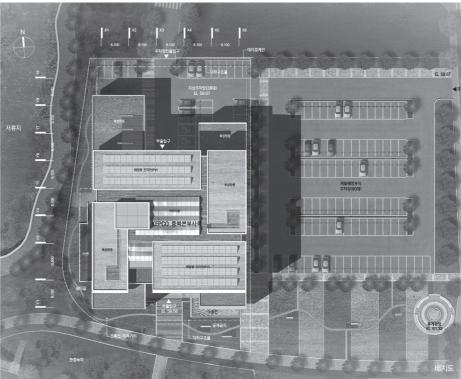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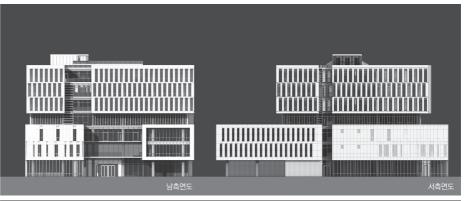
1 1 1 1 대 한 건 축 사 협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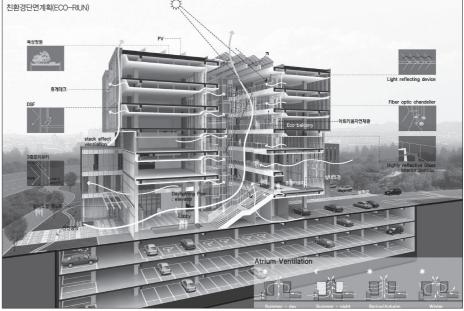












**(1)** 









## KEPCO 충북본부 사옥

### **KEPKO Choungbouk District Division**

우수작 \_ 이용호 <sup>정회원</sup> (주)행림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성화2택지개발지구 60-4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 지 면 적** 9,466㎡(신축부지:4,200㎡ / 여유부지:5,266㎡)

건축면적 1,815.58㎡

연 면 적 20,734,06m²

건 폐 율 43.23%

용 적 률 255.04%

모 지하 3층, 지상 7층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설계담당 김성원, 윤재석, 윤택용, 양성원, 김기홍, 정용욱, 박서원, 정승호, 최명환, 신동찬

#### 계획개념

본 계획안은 e-CUBE(energy cube)라는 디자인 개념으로 녹색기업한전과 녹색수도 청주의 하나됨을 표현함으로 써 Global Top 5 Energy & Engineering Company 구현을 그 목표로 하였다. 계획의 주안점으로는 녹색 기업 한 전과 녹색 도시 청주 그리고 청주시의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직지라는 요소를 기초로 돋움(Landmark), 펼침(Green Spread), 그리고 소통(Community)이라는 주제로 지역과 하나 되는 그린커뮤니티 허브로 계획하였다.

첫째, 돋움(Landmark)은 상징성, 지역성, 정면성의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열린 녹색에너지 기업의 이미 지와 청주시의 Identity, 직지를 반영한 입체적인 매스를 계획하였다. 둘째, 펼침(Green Spread)은 주변 Context에 부합되는 그린빌딩계획 및 에너지 절감 극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입면을 계획 하였다. 마지막 으로, 소통(Community)의 계획은 주변 컨텍스트와 소통하는 내/외부 공간계획과 자연/문화/도시를 아우르는 입면 요소를 반영하였다.

#### 인면계회

도시 내 Context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입면경관을 창출하였으며, 청주시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직지의 금속활자 와 한국전력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한 매스개념을 도출하여 energy cube(e-cube)로 표출하였다. 또한, 입면에 적용된 재료 및 수직, 수평루버 등과 같은 건축요소의 적절한 계획으로 합리적이며 기능적인 친환경 건물을 구현 하였다.

#### 배치계획

배치계획은 크게 4단계의 배치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1단계: 대지 중심에 건축물을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진입광장을 확보하고 북측의 저층주택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외부주차장으로 활용.

2단계: 대지 남측 및 서측의 근린공원을 끌어들여 주민에게 열린 사옥으로 계획.

3단계: 전면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도시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남측은 근린공원과 연계된 도심형 광장으로, 저층 주거단지에 인접한 북측은 직원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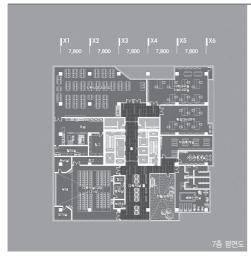
4단계: 진입마당 및 다양한 외부공간 구성을 통해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배치를 구현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차량과 보행동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동선체계를 구축. 또한 도시컨텍스트와 주택단지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 여 주출입구를 25미터 전면도로에서 근접 배치함으로써, 정면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 며, 건물의 동측하부에 필로티를 두고 주차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요구되어진 지상주차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하였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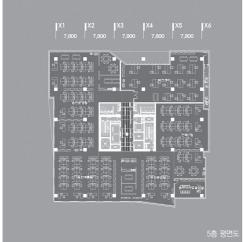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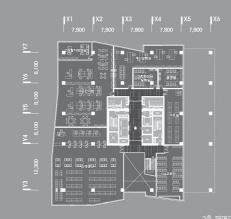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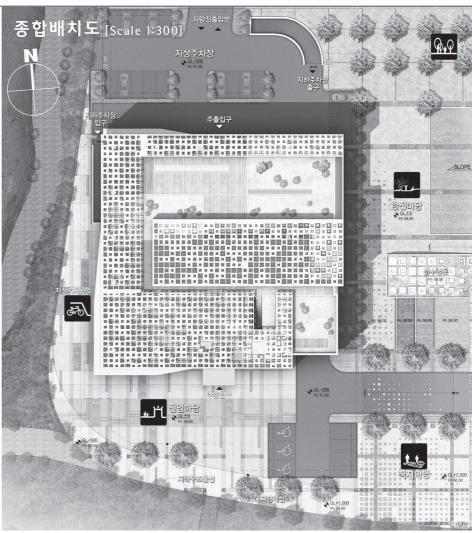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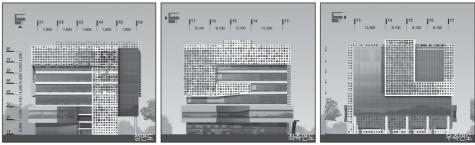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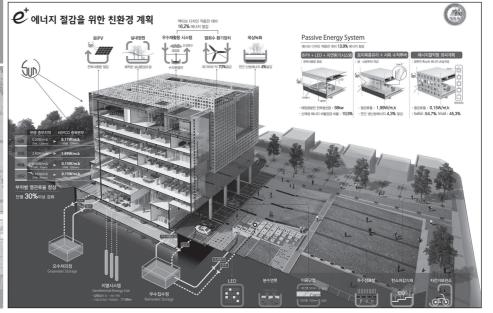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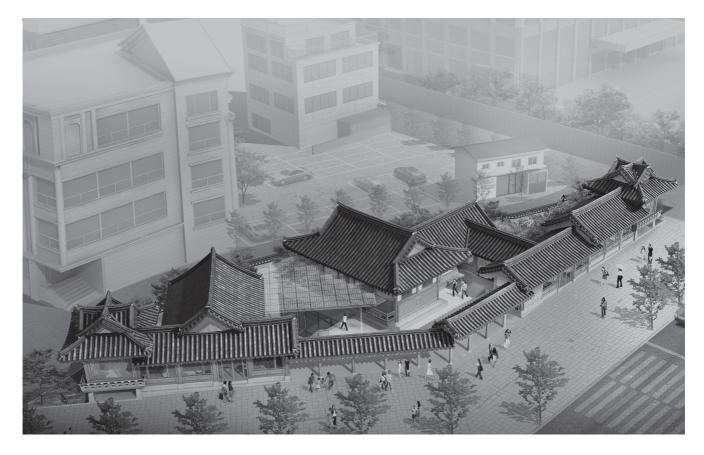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시설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 돈화문 국악예술당)

Traditional culture Center in Seoul (Digital Museum for a court life,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Center, DonHwamun)

당선작 김용미 정회원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908.20m² 건축면적 234.85㎡ 연 면 적 1,621.23 m²

조 지상: 한식목구조, 지하: 철근콘크리트조

모 지하 2층, 지상 1층 규

외부마감 전통한식기와, 회벽, 로이복층유리

#### 돈화문 국악예술당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958.60 m² 건축면적 226.71m²

연 면 적 1,710.85 m<sup>2</sup>

건 폐 율 56.21%

조 지상: 한식목구조, 지하: 철근콘크리트조

모 지하 3층, 지상 1층

외부마감 전통한식기와, 회벽, 로이복층유리, 전벽돌

**발 주 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담당 이승연, 김석진, 송은정, 임형호, 공혜라, 문태모,

이정섭

#### 돈화문 앞 광장 하나되기

전통문화시설이 들어설 자리는 전면으로 돈화문을 바라보고 있고 북향으로 앉은 대지이다. 이곳은 예부터 돈화문 을 중심으로 한옥과 물길로 둘러싸인 광장이었고 이를 되살릴 필요가 있었다. 돈화문과 디지털 전시관, 국악예술 당 셋을 한옥가로로 둘러싸 통일감을 부여하는데서 설계를 시작하였다.

####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

- 지붕의 높낮이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표현

이 부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전시관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전면의 한옥을 회랑으로 처리하였고 마당의 선큰을 통해 바로 지하전시관으로 연결시켰다. 2.1m의 대지내 고저차를 이용하여 경 사진 가로를 따라 회랑에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회랑 너머 보이는 본채의 지붕 중첩미를 표현하고, 회랑 의 양쪽 끝을 십자각으로 마무리하였다. 지상에서도 디지털전시관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한옥지붕사이에 Digital roof를 설치하였다. 하부는 디지털 모듈을 이용하여 디지털 분위기를 만들고 상부는 태양광 패널(BIPV)을 설치하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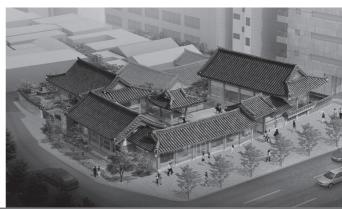
대지남쪽으로는 선큰을 뚫어 지하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였고, 대지레벨이 높은 쪽에 전시실을 두어 필요한 높이 를 확보하였다

#### 〈돈화문 국악예술당〉

- 도심 속 여백만들기

돈화문으로 열린 누마루형식의 휴게홀은 사람들을 국악예술당으로 초대한다. 남쪽으로 열린 국악마당은 사람들의 쉼터이자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지하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지하공연장의 홀과 사무실은 선큰정원으로 충분한 빛과 자연환기가 되도록 하였다. 공연장은 국 악전용극장으로

개방형 무대이 고 적정가시선 을 확보하기 위 한 무대경사도 로 계획하였다 하부플래넘을 두어 효율적인 공조계회과 공 연장의 안정적 인 음환경을 확 보하였다. 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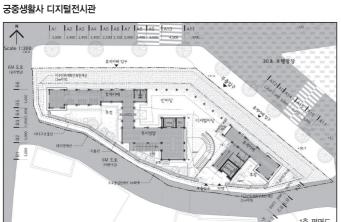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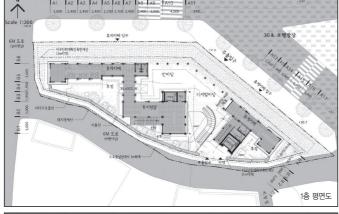


**(** 

## 1 1 1 1 1 대 한 건 축 사 협 회

#### 돈화문 국악예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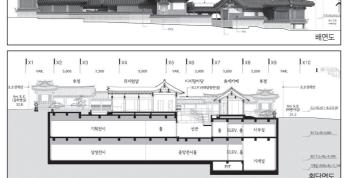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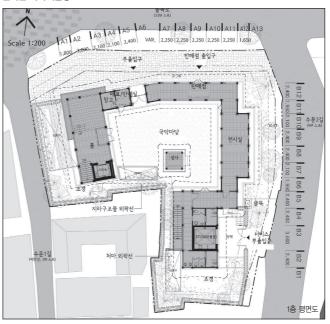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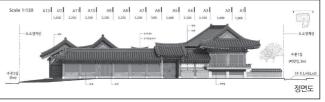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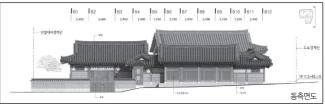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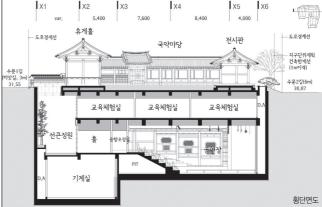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시설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 돈화문 국악예술당)

Traditional culture Center in Seoul (Digital Museum for a court life,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Center, DonHwamun)

**가작 \_ 조영돈** <sup>정회원</sup>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김도경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5-9번지 외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돈화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철도

주요용도 문화시설 전시관

대지면적 908.2m²

건축면적 249.16㎡

연 면 적 1,630.2m²

건 폐 율 27.43% 용 적 율 27.43%

**모** 지상 1층, 지하 2층

#### 돈화문 국악예술당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2-2번지 외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돈화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시설 공연장

대지면적 958.6m²

건축면적 277.42m²

연 면 적 1,708.71㎡

건 폐 율 28.94% 용 적 율 28.81%

**모** 지상 1층, 지하 3층

설계담당 유선건축 - 조영돈,김율모,최점순,이숙경,정원 정,공주희,김연호 / 강원대- 김도경, 김이슬

#### 둘·어우름

둘은 어울림의 시작이다.

"하나의 어울림 터는 소통과 시간의 흔적" 이며-(궁중생활사 디지털 전시관)

"둘의 어울림 소리는 소통과 교감의 울림" 이다-(돈화문 국악예술당)

일상 속에서 소통과 교감의 흔적을 발견하고, 삶의 울림으로 세월이 흐른 흔적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소통의 울림. 왕과 나, 과거와 현재가 더불어가는 흥겨운 관계를 만든다. 그래서 둘. 어우름은 서로 다른 관계의 어울림이다. 과 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창덕궁의 돈화문 앞, 이곳은 궁을 지원하는 시설로 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격은 높 이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접근하기 쉬운 열린공간으로서 계획 방향을 세웠다.

배치에 있어서는 한국 전통건축의 채 분 화의 특성을 공간의 기능으로 분리하였 다. 두 채사이에 회랑을 두어 채와 채를 연결하는 동선의 역할과 돈화문과의 연 계성을 고려한 주진입로의 역할을 하는 비움의 공간으로서, 내외부의 소통을 적 극적으로 활성화 시켰다.

마당에 있어서는 남향에 위치한 한국전 통 마당을 도입으로서 공간의 전통성 구 현과 공연 및 열린공간의 공공적 활용 기 능을 줌으로서 이용객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아늑한 마당을 형성하였다.

건축의 입면요소로는 조선시대 우리나 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된 익 공형식을 적용하고 엘리베이터와 측벽 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보여지는 꽃 담을 계획하여 궁에 대한 격을 갖추는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또 하나의 건축 특징으로 디지털 전시관 의 다실은 율곡로와 돈화문로와 만나는 가각부로 랜드마크적인 경관계획을 위 해 레벨차를 이용한 누각을 배치하여 정 자목과 돌의자등을 활용한 휴게공간을 구성하였다. 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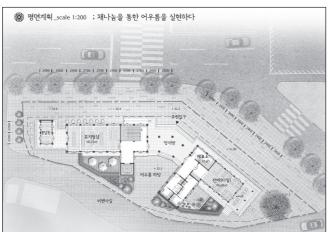


**(** 

1층 평면도

**(** 

####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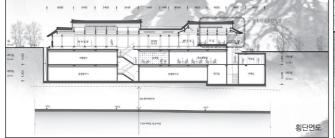












#### 돈화문 국악예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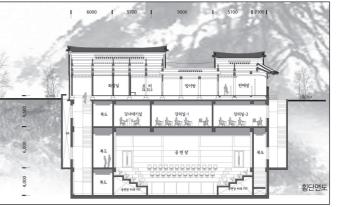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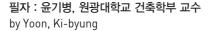


연

# 변화하는 건축

Changes in Architecture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아리조나대학과 호주 시드니대학을 졸업하였다. 삼희도시건축과 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 근무하였다. 현재 건축계 동향을 전하는 블로그 ABRIEF (http://www.abrief.net)와 지속가능한 사회에서의 공간환경문제를 다루는 블로그 SUSTAIN(http://www.sustain.or.kr)을 운영하고 있다.

#### 목 차

- 1. 변화하는 건축 실무 환경 Changes in Architectural Practice
- 2. 지속가능성에 따른 건축의 변화 Sustainability and Changes in Architecture
- 3. 기술에 따른 건축의 변화 Technology and Changes in Architecture
- **4. 새로이 출현하는 아이디어들** Emerging Ideas in Architecture

변화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이다. 우리 건축사들의 어려움은 여느 때 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 전 세계적 공통의 현실이다. 이는 건축사들이 처한 외적 시장 상황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불황이 아닌 환경의 변화이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 시장 진출이 모색되고 있으며,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사무소 규모의 경제가 주목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특화의 필요성과 브랜드확보가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건축설계 이외의 디자인 시장

으로의 진출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속적 건축사의 영역에 대한 잠식과 함께 건축사 능력에 대한 회의가일어나고 있다. 젊은 건축사들은 건축사의 핵심 능력이 과연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미래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생존을 위한 건축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 나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 4. 새로이 출현하는 아이디어들

#### 4. Emerging Ideas in Architecture

#### 서론

건축계 불황의 늪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건축사사무소들이 프로젝트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스타건축사사무소 또한 직원을 감축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주요 이슈로 '토건' 중심의 경제개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건축사는 사회적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전에 시장 축소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 불황은 변화를 촉진한다

불황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과거 서구의 경제 공항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일부 클라이언트는 파산하였으며, 또 다른 클라이언트는 경비 절감에 나섰다. 연구 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프로젝트는 취소되었고, 건축사와 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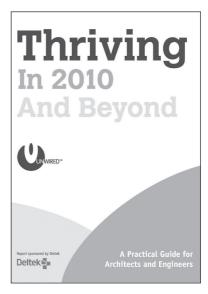
역사적으로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디자인은 발전하였다. 1930년대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 운동이 왕성하였다. 이태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0년대 후반 세계 디자인의 중심으로 발돋움 하였다. 불황이 디자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생활 전반에서 변화를 추구하여야 하는 사회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불황은 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 또한 발전하였다. 미국 대공황이라 불리는 시대는 1929~1939년까지 약 10년간이다. 1920년대 미국 경제 호황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에 따른 불황을 겪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기간 중 좋은 건축이 행하여 졌다. 대표적으로 102층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건축이다. 터파기를 1930년 1월 22일 시작하여 1931년 5월 1일 준공식을 가졌다. 1930년대 102층 건물을 15개월 만에 완공하였다. 록펠러 센터가 1931~1940년간의 기간에 완성되었다. 또한 라이트의 낙수장 건물이 1936~1939년 기간 중 완성되었다.

호황 기간 중 많은 프로젝트들이 명품을 가장하여 진행되어 왔다. 불황은 이들 가짜를 가려내는 기회일 수도 있다. 전 세계의 은행들이 프

로젝트 진행에 대한 신중성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의 은행과 보험회사들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연한 공간의 사용성, 그리고 건물의 수명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프로젝트 시행이전에 세심한 계획과 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인 LEED 인증을 추가적 비용 없이 설계 및 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라 호사스러운 건물을 계획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대신 절제된 건축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보고서 「Thriving in the Downturn: a Practical Guide for Architects and Engineers」는 기존 건물의 개보수를 통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의 시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회사 Deltek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 건축사와 엔지니어가 건설 디자인 분야에서 경기침체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이다. 건설 산업은 현재 생존의 모드에 들어 왔으나, 곧 새로운 게임을 생각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가 정지된 현재, 특히 상업 부분에서 기존 부동산을 재활용하는 분야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며,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의 호황과는 반대로 건축사와 엔지니어는 경비 절감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경쟁적으로 질적인 성과물을 제공하여야 하는 환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전과 혁신이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건축사와 엔지니어가 건설 디자인 분야에서의 경기침체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 (Thriving in the Downturn: a Practical Guide for Architects and Engineers)







#### 서비스에 관한 변화된 생각

불황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 주지만, 또한 우리를 돌아보며 또한 현명해 질 것을 요구한다. 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건축사와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하게 되고 있다. 앞으로 어느 분야로나아가고자 하며, 또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생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건축사로써, 전문가로써, 디자이너로써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과 함께, 자신이 무엇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며, 변화의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의 질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리고 좋은 디자인을 위한 비즈니스에 관한생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함께 앞으로무엇을 하여야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현실적 능력과 핵심적능력으로 시장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불황은 건축계에 새로운 능력을 계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타 산업에 비하여 뒤쳐져 왔던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따른 정보, 에너지, 시스템 통합, 시공성, 시뮬레이션 및 다른 모델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공간의 효율성과 사용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설계능력,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함께 기술과 지역사회를 어우를 수 있는 새로운 작업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최신 기술을 이용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혁신적 디자인 방식의 개발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건축사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전문가들을 리드하여야 하는 능력을 요구 받고 있다.

#### 변화하는 건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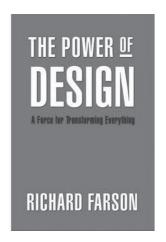
(

시장의 어려움은 첫째, 사무소 규모의 양극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 예로 미국 시카고를 포함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무소를 갖고 있는 Perkins+Will의 경우 시카고의 Environments Group을 흡수하였다. Environments Group은 65명의 전문가와 지원 인력을 가지고 있는 시카고에 단일 회사로는 가장 커다란 규모의 실내 부분의 회사이다. 이와 같이 설계 분야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인식되기 위하여 규모를 키우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헬스 케어분야의 디자인 회사인 HDR Architecture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가장 커다란 디자인 회사인 CUH2A가 합병하여 가장 종합적인 S+T 디자인 회사를 만들었다. 이 회사는 생명과학 연구, 물리학, 건강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가진 회사로 1,700명의 건축사와 엔지니어 및 계획가를 전세계 40곳에서 경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 난 10년간 새로운 부류의 건축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작업은 거 대한 이론적 배경도 없으며, 스타 건축사를 탄생시키지도 않았다. 이들은 유토피아적 이상향으로 미래의 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안하고 있지도 않으며, 새로운 혁신적인 건물의 형태를 설계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들은 일련의 독립적이며 작은 규모의 노력들을 통한 자신의 지역사회나 제3 세계에 공간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학교와 함께 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집과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실험에 옮기고 있다. 가진 자 만을 위한 건축이 아닌 모두를 위한 건축, 그리고 함께하는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건축사들의 자생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로 건축사 역할의 변화이다. 건축사의 전문성이 무엇이고 건축사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건축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즈니스 관리와 시공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건축사들은 새로운형태와 디자인만을 생각하며,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과정을 늘이고, 복잡하고 비싼 것을 만든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난은 스타 건축사에 의하여 더욱 확산되고 있다. 비록 건축사들이 대지의 타당성과 프로젝트 수익을 늘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아껴가며 효율성에 대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새로운 시공 방법을 지도를 통한 경비 절감과 프로젝트 질의 향상에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심리학자 Richard Farson은 건축사들은 대부분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나, 다른 개념으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사들은 공간을 디자인 한다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을 개선하고 증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일반 대중의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는 핵심이며, 이를 통하여 건축사는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치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축사는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Richard Farson의 책 'The Power of Design」 그는 이 책에서 건축사들은 공간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시대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축사들은 이 불황을 커뮤니티 건설에 대한 노력으로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 이는 할일이 없어진 것에 대한 '하면 된다'는 정신일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열정이라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여간, 프로 보노 디자인 작업이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꼬르뷔제의 생각 즉 '좋은 디자인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의 윤리적 입장을 지지하며, 특히 빈부 격차와 자원의 고갈 시대에서의 건축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건축사의 설계를 통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윤리경영을 통한 사회적 지지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건축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로 건축 영역의 변화이다. 건축사사무소의 위축에 따른 건축사 졸업생의 인근 분야로의 진출을 그리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최근 건축과 졸업생의 취업 경향은 건축사사무소 이외의 분야로 진출이다. 정부, 컨설팅 회사, 시공관리, 정치 등으로의 진출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인의 진출은 건축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줄 가능성을 키워주고 있다. 즉, 이들은 직접 건축 설계를 하지않을지라도 건축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야로의 진출이며, 이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건축실무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건축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에서의 고위층의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며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건축 설계 이외에 정부 및 연관분야, 도시계획 분야들의 진출이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 새로운 개념의 도입

새로이 출현하는 생각의 첫 번째로는 개방이라는 개념이다. 건축 설계는 개인적이며, 그 자체로 완성된 작품이라는 개념으로부터의 변화이다. 설계는 집단 지성에 의하여 만들어 나아갈 수 있으며, 프로젝트는 영원한 미완성의 개념으로의 변화이다. 오픈소스 디자인은 집단 지성에 의한 설계 개념이다. 오픈소스 디자인은 생각과 설계를 공유하며, 창의성과 기술을 공유한다. 자신의 디자인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다양한 사람과 함께 디자인을 리뷰와 협업을 통하여 보다 나은 설계안을 만들어 간다. Creative Common의 개념으로 건축사의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는 받는 방식이다. 대표적 사례로 건축분야의 비영리 기관으로 Architecture for Humanity를 들 수 있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Open Architecture Network에서는 건축에 관한 계획안과 엔지니어링 시방, 시공 방식에 관한 지식을 공유한다. 즉, 이곳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올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설계와 프로젝트 시방을 다운로 한다. 특히 아이티 지진 사태나 쓰나미에 의한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재난 구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방적 건축을 추구하는 다른 사이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World Architecture Community는 2008년 발족한 사이트로 전 세계 건축사들이 모여 포름과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대화와 비평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장이 형성되고 있다.



Architecture for Humanity가 운영하는 Open Architecture Network

두 번째로 타 분야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에 의한 개념의 도입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신경과학 분야이다. 특히 신경과학계의 실증적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간 환경이 인간의 느낌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미치고 있는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간환경에서 천정고와 색, 그리고 다른 디자인 요소들이 인간의 창의성과 집중력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 두뇌활동과 연계하여 연구가 되고 있다. 연구와 지식을 근간으로 일무 건축과에서는 감성지능 디자인이라는 과목으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부 건축사사무소는 신경과학자를고용하여 조명과 음향, 방향감각과 건축 디자인에 관한 신경학적 연구를통하여 설계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환자의 회복과 작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헬스 케어 디자인을 위한 연구와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생물학 분야의 개념 도입 또한 시도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생체 모방 공학이다. 건축은 자연으로부터 벗어난 다른 공간환경을 만든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의 변화이다. 이는 건축은 자연과의 조회를 생 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계획에서도 자연계로부터 디자인 지혜 를 얻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흰개미 집의 내부 기후 조절 시스템을 모방하여 고층 건물에서 자연형 냉난방 시스템으 로의 도입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모사 나무의 경우 건드릴 경우 잎이 오므라드는 현상을 깊이 연구하여 이를 동작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개념의 도 입으로는 생명공학 분야를 이용하여 살아 있는 나무로 건축물을 만들 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분재 형식으로 나무를 원하는 방식으 로 키워 나아가거나 혹은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원하는 형태로 식물을 키워 나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의 시도이다. 건물이 무생물이 아닌 생물 로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집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bigcirc$ 

건물이 하나의 생명체로 스스로 판단하고, 자가 치유하며, 스스로 변형을 통하여 수선이나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집을 구상하고 있다. 건물이 거주자의 느낌과 건강을 느끼고 이에 적합하게 반응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소통에 대한 노력이다. 우선적으로 사회봉사의 중 요성에 대한 강조이다. 지금과 같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비 영리 단체들의 역할이 여느 때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디자인은 부유 한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를 위하여 디자인이 사용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의 지식과 능력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같 은 좋은 의도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IA는 'Institute Guidelines to Assist AIA Members, Firms and Components in Undertaking Pro Bono Service Activities'라는 가이드라인을 발간 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시간과 전문성을 어떻게 사 회봉사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Public Architecture Organization은 민간단체로 1%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2005년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 건축 및 디자인 분야 사무소는 회사 시간의 1%를 공공 봉사에 투자한다. 현재 미국에 400개 이상의 회사와 150개 비영리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 여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건축사 스스로 자신의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도운 커뮤니티와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사회적 소통을 위하여 건축사의 애완견을 위한 개집 설계, 유명 건축사의 집에서의 주말 보내기 프로그램, 건축사 바비인형 만들 기 등의 이벤트적 노력 또한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설계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슬로우 시티와 슬로우 푸드 운동과 함께 천천히 삶을 살고자 하는 설계의



Public Architecture는 민간단체로 1%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념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주택은 21세기 빠른 사회적 리듬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활을 단순하며 휴식 공간으로의 계획 개념이다. 주택은 가정생활에 초점을 맞추며, 축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의 계획 이 중시된다. 부엌이 주택의 중심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일조 설계에 대한 강조 등 삶을 질을 추구하는 노력의 설계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개념이 재조명 받아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집은 고정적이며, 개조를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는 개념으로부터 공간의 재배치가 가능한 가변형 주택이 주목 받고 있다. 사회고령화에 따라 수용시설로의 이주보다 자신의 주택에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적 만족과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함께 리모델링에 따른 쓰레기 배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변화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의 개념 또한 영원한 미완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하고 있다. 즉, 프로젝트는 영구히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사 직업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현실로 변화하고 있다.

#### 결론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건축기관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반적 노력으로 회원들의 작품을 알리고 홍보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UIA는 전 세계 건축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건축사협회 RIBA는 RIBAPedia라는 인터넷 지식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대학의 소개로부터 연구 자료에 이루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좋은 인재의 확보만이 미래 건축계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건축과 대학생을 돕기위한 노력을 협회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미국건축사협회 AIA는 경제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헤쳐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 할지라도, 헤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Navigating the Economy Web site를 개설하여 시장 보고서, 재정 관리에 대한 조언, 바람직한 실무의 예, 관련 글 등을 수록하여 회원이 불황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건축은 힘든 전문성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하지 않은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전문 분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건축사는 많은 돈을 벌기 힘들며,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일이 제대로 진행 되지 않을 경우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축사는 무한한 열정을 필요로한다. 만약 종일 그림을 그리거나 계획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지 않을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직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모든 것을 바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전문인으로의 변화이다. 圖





##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The cultural marketing and role of lighting

필자: 이지은, 현 Yeon Design 디자인실장, 중부대학교 외래교수 by Lee, Ji-eun



2004년 건국대학교 디자인문화대학 공예학과 졸업, 2011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간디자인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 경관조명 전문업체인 연디자인에서 디자인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중부대학교 인테리어학과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공간환경디자인학회 조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공간디자인학회(KISD), 한국기초조형학회, 한국조명디자이너

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한강시민공원지구 및 연변 민간건축물 경관조명 기본설계용역(2007), 광주천 교량 개선사업 경관 조명실시 설계 용역(2007), 인천 송도 스트리트몰 B블럭 경관 기본, 실시설계(2010-11), 의정부 기본경관계획(야간경관/2009-2010) 등이 있다.

목 차		
1.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손장복	동양대 교수
2. 미디어 파사드-건축과 조명의만남	방선주	숭실대 석사
3. 도시 공공디자인과 빛환경	김국선	김포대 교수
4. 도심 보행자중심가로의		
야간경관과 경관조명 연출	이지은	홍익대 석사
5. 조명디자인과 컬러	서혜옥	중앙대 교수
6. 도시 빛환경과 조형성	김영진	이화여대 석사

최근 도시 내 보행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일회성 디자인계획으로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중 도심부 보행자가로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야간경관에 다양한 조명과 환경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고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으면서 야간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체계성 있는 야간경관 계획이 필요하며 이것은 향후 국내 가로보행공간에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현 시점에서 일차원적 조명 계획에서 그치지 않는 도시경관

요소로서 조화를 생각하며 사회적 교감을 이룰 수 있는 다채로 운 체험적 야간 공간 연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재는 다양한 건축적 요소와 가로적 요소가 공존하는 공 간인 도심부 보행자중심가로로 야간경관조명이 활성화 되거나 연출의 중심이 된 사례에서 야간가로 구성요소의 공간특성 및 효과를 살펴보고 장, 단점 등의 도출을 통해 공간 특성에 맞는 조명연출 적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 보행자중심가로에서 보행자 시점 중심의 연속 경관을 고려한 아간이미지 연구와 시퀀스요소 적용사례들을 통해 경관조명 시퀀스 표현 요소를 다룰 예정이다.









## 4. 도심 보행자중심가로의 야간경관과 경관조명 연출:

도시의 시퀀스 경관 요소로서의 경관조명에 관하여

4. The night scene of the urban pedestrian street and Landscape lighting direction:

About the Landscape lighting as the sequence element of landscape of the city

#### 시작하며

오늘날 도시환경은 시민들에게 있어 다양한 경험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중 가로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의 구성요소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심 속 보행공간은 사람의 통행을 수용하는 통과 공간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삶이 반영되어 변화, 발전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보행자중심가로는 가로변 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및 보행자간의 상호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보행자중심가로에서도 야간 경관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서 단순한 야간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기능적 역할 외에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심미적이고 풍부한 야간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특히 보행자가로에서 야간경관 연출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건축조명 및 쇼윈도의 빛, 가로등, 옥외광고물, 경관조명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되는 빛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통해 공간의 특성은 살리면서 빛의 효과적인 연출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안전성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층 개선된 보행자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 연재는 다양한 건축적 요소와 가로적 요소가 공존하는 공간인 도심부 보행자중심가로로 야간경관조명이 활성화 되거나 연출의 중심이된 사례에서 야간가로 조명요소의 공간 특성 및 효과를 살펴보고 장, 단점 등의 도출을 통해 보행자중심가로 조명연출 적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 보행자중심가로의 국외, 국내 경관조명 사례분석을 통한 현황 검토

분석 대상으로는 가로경관사업 중 야간경관이 활성화된 보행자가로 공간 사례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대상지의 범위는 가로 유형 중 도심상업가로와 보행자전용가로로 한정하였다.

#### 도쿄 에비스가든 플레이스(Yebisu garden place)





〈공간 특성 및 효과〉

- 고풍스러운 유럽풍 분위기와 어울리는 따뜻한 색온도의 면조명 방식이 공간과 조화를 이룸
- 가로를 따라 지중조명 업라이팅, 풋라이팅 등 수목의 생동감이 야 간에 극대화되어 연출
- 계절에 따른 수목의 변화를 고려해 계절에 따른 각기 다른 야경 연출

#### 라스베이거스 트레몬트 스트리트(Fremont Street Experience)





〈공간 특성 및 효과〉

- 가로의 대표적인 특징은 카지노 유흥시설인 주변공간 특성과 연계 되는 LED조형물의 연출
- 전체적 조명연출의 컨트롤로 조명쇼의 진행 유무에 따라 연출에 차 등을 두어 효과적인 및 효과
- 가로의 결절부에는 무대나 간이상점 등 문화적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며 볼거리를 제공







#### 도쿄 캣 스트리트 (Cat's Street)





〈공간 특성 및 효과〉

- 보행등은 상징성 표현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열주형태로 보행자의 은은한 동선 연출
- 고층의 랜드 마크 건축물은 없으나 각각 상점분위기에 맞는 국부 면 조명 방식의 건축조명과 상점 쇼윈도조명의 아기자기한 조화를 이룸
- 간접조명방식의 은은한 조명패턴의 반복, 색온도의 통일성 등 과하지 않고 세련된 조명방식으로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

#### 의정부 행복로 문화의 거리







〈공간 특성 및 효과〉

- 확산형 보행등의 광원 노출과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조명의 시각적 광 공해 요소로 가로경관의 저해요소로 나타남
- 전체적 가로의 조도는 높은 편이나 많은시설물 노출과 광공해 요소
- 4개의 광장부마다 다른 콘셉트로 시선을 끌고 있으나 규모에 비해 요소가 많음

#### 대구 동성로 걷고 싶은 거리







〈공간 특성 및 효과〉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으로 주변 건축물, 간판조명, 시설물 등이 조화를 이루는 편
-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건축일체형 조명 방식이 많으나 일부 옥외광고물 및 쇼윈도조명의 지나친 휘도로 시각적 방해 요소가 나타남.
- 오픈스페이스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체험적 요소 부족

#### 인천 송도 커낼워크 (Canal Walk)







〈공간 특성 및 효과〉

- 상업 및 주거시설의 빛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적합한 조도확보
- 결절부 환경조형물, 바닥분수, 무대시설 등 확보, 조명연출 비교적 잘 되어있음
- 요소별 튀는 조명 없이 전체적 균형을 위한 건축물과 시설물의 실루 엣을 부각 시켜주는 조명방식으로 특징적임
- 블록별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화 콘셉트에 맞는 빛 요소 미흡

국외사례의 경우 배경적요소의 연출이 과하지 않고 체계가 잘 잡혀 있어 전체 야간경관이 혼란스럽지 않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핵심적 요소별 특징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잘 된 편이었다. 또한 국내보다는 전반적인 가로의 조도는 낮지만 분위기 있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감성적 공간으로 어필하며 지역 내 랜드 마크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국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권장조도 이상의 다소 과장된 광원요소가 많았으며 주변 환경과의 상관성이 고려되지 못한 개별요소의 부각만 이루어져 산만하고 조화롭지 못한 야간경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국외,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성으로 경관 시퀀스를 고려한 야간경관 연출에 대한 고려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보행자중심가로의 전체적인 경관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진 공간이므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조명연출의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시퀀스적 개념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보행자중심가로의 시퀀스 경관의 특성과 야간경관 의 경관조명 연출

보행자중심가로 경관계획 시 고려해야 할 특징적 요소로 모든 가로 가 연속적으로 지각 된다는 것이며 고정적인 시점에서의 조망점인 장면(scene)경관과 보행의 이동 등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다양한 시점을 갖고 있는 동적 경관 대상인 시퀀스(sequence)경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간에는 조명되는 대상위주로 보여지는 경관 특성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한 장면의 경관요소를 선택하고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조명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계획적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 주간과는 달리 경관을 용이하게 조작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관조명을 통한 시간별, 단계별 디자인으로 빛과 시간성에 맞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유동적인 시퀀스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빛의 여러 요소를 위계에 따라 구성하고 컨트롤하여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색온도의 강조 등을 통하여 질서적이고 점진적인 빛의 시퀀스를 연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야간경관 연출에 있어 시퀀스적인 경관연출은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디자인 기 법에 대해서는 발전되지 못하였지만 다양한 방향에서의 장면(scene)의 심미적인 구성과 경관의 연속성을 강조한 시퀀스(sequence)라는 시점 적 연출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분절된 야간요소들의 조화와 흐 름을 따라 스토리 있는 풍부한 야간의 가로 보행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시퀀스 경관조명 개념도

야간경관에서 나타나는 시퀀스 요소는 시각구성요소에 의한 시퀀스, 시각구성 변수에 의한 시퀀스, 보행자의 경관체험에 따른 시퀀스로 나 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퀀스 및 요소 표현기법을 위한 야간경관 시 퀀스 표현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형성

형태, 선, 색, 질감, 비례, 스케일 등 야간경관을 이루는 조명시설물의 형태나 재료 등의 동적 균형에서 오는 시각적 이미지는 야간경관의 시퀀스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처럼 연속되어지는 빛의 자극들은 일관된 힘을 갖는 연속적 형태로 지각 되어질 수 있다.





Absence of Light

도쿄 오다이바 해변공원

#### 시간성



Greenpix

시간의 연속적 변화는 경관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시간 별, 단계별 디자인으로 빛과 시간 성의 맞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며 유동적인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인간과 환경의 상호적인 관



청담 갤러리아백화점

계 속에서 자연 순환 원리인 사계절의 변화 등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공간 안에서 또 다른 야간의 자연 환경을 느끼게 해준다.

#### 우연성





Light Brix

서울 길음역 지하도

참여디자인을 고려한 인터렉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고려하며 관람객을 오브제인 구성요소로 인식하며 문화적 소통을 중시한다. 이때 빛은 사람의 행동에 따른 우연성을 토대로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사람의 움직임의 변화에 따라 조도, 색온도 등의 빛 변화를 통해 조명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람은 활기, 정열, 안락함, 휴식 등 다양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 위계성





일본 도쿄

서울 청계천

전체의 공간은 주체와 객체의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빛의 여러 요소를 위계에 따라 구성하고 컨트롤하고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색온도의 강조 등을 통하여 질서적이고 점진적인 빛의 시퀀스를 연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획된 연속은 동작을 유도하며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 연계성





Line of Work

Reproject

야간의 다양한 경관요소 안에서 조명시설의 다양한 콘텐츠와의 결합과 가로시설물과의 통합화 등은 공간 안의 모든 요소를 빛의 요소로 연결하여 야간의 공간 흐름을 유연하게 연계시켜준다.

#### 확장성





제니홀저 작품 – 런던

Body Movies

야간의 공간은 빛에 의해 고정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감각적 지각으로 인한 다양한 시각적 확장을 불러일으킨다. 외부 건축물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빛과 외부공간의 조명연출의 어우러짐을 통해 외부와 내부의 경계는 사라지고 확장되고 서로 중첩되기도 하면서 주간과는 또 다른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빛이란 정지된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정적인 공간에 빛의 역동적인 효과로 공간의 확장성을 주어 새로운 시퀀스를 연출할 수 있다.

#### 마무리

최근 국내의 보행자중심가로 경관조명 연출현황을 살펴보면 기법이나 양적인 면에서는 적극적인 조명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통합적 계획 및 주변경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공공요소로서 보행자의 야간 활동 공간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많은 보행자중심가로에서는 아직도 감성적 요소가 아닌 단편적이고 무분별한 조명계획으로 경관을 해치는 빛 공해 요소가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향후 국내 보행자가로 공간의 개발 및 이미지 창출에 있어 개선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1차원적인 안전을 위한 조명 계획 뿐 아니라 폭넓은 사회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적 공간연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 차원의 재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야간 가로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며 올바른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행자가로를 전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도심 보행자가로에 대한 관심과 가로경관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명계획 시 지속적인 시 퀀스적 및 요소 표현기법의 연구와 활용으로 연속성에 따른 빛의 공간 체험을 통해 보행자들에게 이질적 요소의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제공하고 스토리 있는 보다 풍부한 야간의 보행자가로를 연출해야 할 것이다. **固** 







## 자연, 감성, 그리고 생태건축 이야기

The Story of Nature, Sensibility and Ecological Architecture

## 필자: 정아영, 백석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전공 교수 by Jung, A-young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국립츠쿠바(筑波)대학교와 국립치바(千葉)대학교에서 '공간과 감성'에 관하여 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하세가와디자인연구소와 건우사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다.

현재 일본감성공학회, 일본디자인학회 정회원으로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감성디자인연구원(http://ried.

kr)에서 감성과 공간,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포럼과 학술발표 등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목 차

#### 1.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감성

The New Perspective to the Nature = Sensibility

2. 감성과 공간디자인 Sensibility and Space Design

3. 감성의 생태건축에의 접근 The Approach to the Ecological Architecture of Sensibility

인류는 인류탄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을 자연에서 보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에 적합한 형태와 방법으로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가속화된 도시화에 따른 지구환경문제는 건축분야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인간이 조화롭게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창출에 대한 방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태건축(Ecological Architecture)이 지구환경 보존문제에의 건축적인 측면으로의 대표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재는 앞으로 3회에 걸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태 건축의 감성에의 접근과 그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이야기하 고자한다. 먼저, 자연에 대한 시대적인 과제에 대하여 회고해보고, 옛 선조들의 전통가옥에 대한 생태적 지혜를 자연 속에 담긴 감 성으로서 이해해 볼 것이다.

아울러, 생태건축의 오늘날의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생태건축의 시대적인 과제로서의 감성적 접근을 알아 볼 것이다. 또한 생태건축의 감성으로의 접근은, 감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의 소개와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옛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담은 감성의 생태 건축적인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재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 하고 있는 생태건축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기대한다.







## 1.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감성

#### 1. The New Perspective to the Nature = Sensibility

#### 인류와 자연

인류가 자연에서 살았던 시간은 오백만 여년으로, 인류 탄생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계산하여 보면 인류 역사의 99.996%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이 자연과 떨어져 살게 된 것은 불과 몇 백년에 불과하지 않으며 문명을 이루며 살아온 시간은 길어야 3만년 미만이라는 말이다. 이렇듯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에서 보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에게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한 수단으로서 살집을 짓고 살았고, 이때 자연소재를 이용하였다. 지역에서 얻어지는 자연소재를 가지고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먹을거리와입을 거리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인간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절약하며 지속적인 자연 순환체재를 유지하고, 자연에 도전하기보다는 자연과 환경에 적합한 형태와 방법으로 자연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다.

#### 자연에 대한 시대적 과제

오늘날 우리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유래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 며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와 번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가속화된 도시화로 인류는 편의 누리고 있다. 물질풍요를 추구해온 우리 사회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주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경향은 대량화, 대규모화를 추구하며 막대한 원재료와에너지를 투입하며 발전해온 건축분야에서도 역시 발견 할 수 있다. 인간을 위한 공간조성, 즉 건축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주어진 자연에 인위적인 행위를 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실내 환경 공간에 있어서 인공적 환경조절을 위한 장치가 요구되어지기 시작한 이후, 최적의 실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막대한 기계 설비를 투자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는 자연에의 인위적인 행위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인공적 환경조절로 인한 인위적 행위는 주로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파괴를 감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자연 파괴 행위는 자원고갈, 대기오염, 오존층 파괴 등을 야기 하고 때문에 지구의 균형은 깨져가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에 따른 지구보존문제는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 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서, 다양한 분야를 통한 해결로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는 건축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이 조화롭게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창출에 대한 방책을 최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 가운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연친화적 건축 지향, 에 너지 지향적 건축을 추구하는 생태건축(Ecological Architecture)은 지 구환경 보존문제에의 건축적인 측면으로의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 다. 환경을 배려하는 건축(Environment Conscious Architecture), 저환경부하건축(Low Environmental Impact Architecture), 공 생건축(Synergetic Architecture), 지속가능한 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생태건축 개념은 지금 이 시대 를 위해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자 자연을 바라보는 절실한 시각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연에 녹아든 지혜

시대적인 새로운 시각으로서 이해되는 생태건축은 이미 오래전 우리 선조들의 공간에 대한 지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우리의 전통건축 은 수세기동안 자연과 함께 해온 수세기 동안의 지혜를 자연환경에 순 응하며 발전하였다.

특히 전통가옥의 건물 배치, 공간 구성, 장식, 재료 등은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역의 환경, 기후, 계절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있게 계획하였으며, 이는 쾌적한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먼저 우리의 전통마을은 산을 뒤로 하고 하천을 바라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가파르지 않은 남향 산기슭에 발달했다. 이러한 전통마을의 배치는 바람을 순화시켜주어 북서계 절풍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땔감 등 연료채취가 용이하여 겨





울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하며,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에 유리하였 성취해온 자연에 대한 실천의 결과와 그 속에 담겨진 우리들의 감성이다. 또한 비옥한 논밭과 취수가 편리한 풍부한 샘물은 농사를 짓고 살다. 이렇듯 전통적 생태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자, 지혜이아가기에 유용하였다. 면, 감성인 것이다. 전통적 생태건축 속에 숨어있는 감성을 읽어내는

각 지방별로 개성을 갖춘 가옥의 공간구성 또한 그 지역이 가지는 기후환경과 주변의 환경요소, 생활양식 등을 고려하여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지혜의 흔적으로, 주간 축열 기능과 온습도 조절기능이 뛰어나, 실내공간의 온도를 주간에는 외기보다 낮고 야간에는 높은 온도분포를 가지게 하였으며,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무난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새의 집을 뜻하는 소거(巢居)에서 유래한 대청마루에 나와 앉으면 펼쳐진 산천인 천연 바람막이가 되어 준다. 또한 여닫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창문, 남중고도를 고려하여 여름에는 마루의 바깥선 정도로 햇볕이 들어오고 추운 겨울에는 해가 방안까지 닿을 수 있게 계획한 처마도 있다. 또한 추운 겨울에는 땅을 파내어 그 안에서 불을 피우고 지내던 수혈주거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온돌을 사용한 구들과, 집의 기단을 높임으로서 구들과함께 지반의 습기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겨울의 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발정해왔다.

그 뿐인가, 전통가옥을 지어내는데 사용한 대부분의 재료는 재생 가능한 자연적인 것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상태로 사용되었으며, 다시 재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전통가옥은 대지의 일부인 듯 보이기도 하여 땅에서 태어나 다시 땅으로 되돌아갈 것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이렇듯, 전통적 생태건축은 기존의 자연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그에 적응하는 공간구축을 이루어냄으로써 공간을 위한 유지와 관리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자연조건에 대하여 적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소모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자원재생을 통하여 공간 자체가 자원순환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며, 그것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다.

#### 감성을 읽어 내는 것

새로운 의미로의 현대적인 생태건축은 전통적 생태건축의 자연조건에의 적응, 자원의 순환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자연과의 조화로운 접목을 본받아 새로운 시각으로 전개되어야한다. 여기서의 새로운 시각이란, 비단 전통적 생태건축의 기술이라든가 형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이 주는 혜택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살기위한 옛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는 일 일 것이다. 선조들의 지혜는고민과 생각 그 자체이며, 그를 통해 얻어진 깨달음이며 또한 그들이

성취해온 자연에 대한 실천의 결과와 그 속에 담겨진 우리들의 감성이다. 이렇듯 전통적 생태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자, 지혜이며, 감성인 것이다. 전통적 생태건축 속에 숨어있는 감성을 읽어내는 것, 즉 현대적 생태건축이 전통적 생태건축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접목을 본받아 새로운 시각으로 전개해야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

우리의 삶이 자연에서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감성 역시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을 선호하며 만들어져 왔다.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웅덩이에서 놀다가 돌아오거나, 비가 내리면 집 툇마루에 앉아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것을 계속 바라보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방울을 손바닥으로, 손가락으로 만져본 추억. 또 집 앞 감나무 잎에 떨어진 빗방울이 덤블링 하듯 튕겨져 내려 흙바닥에 떨어지는 정감 넘치는 기억 등 그리운 기억을 하나쯤은 추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인간은 인공적인 환경보다 자연환경을 선호하고, 차가운 재료의 직선적 느낌보다 부드럽고 따스한 재료의 곡선미를 더 좋아한다. 그러나 흙 대신 콘크리트로 마무리된 지표에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감성을 자아내지는 못하는 경직된 환경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조 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固** 





#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 최적설계

Sustainable Optimum Design by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Efficiency

필자: 우지환, (주)엑스퍼트벤처 건축사사무소 by Woo, Jee-hwan, KIRA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1992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법인 설립 이후 건축사로서 현재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주)엑스퍼트벤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같은 대학원에서 건축환경공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정부지정 법원감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초고층복합화사업 심의위원, 대한민국법원행정처 법원전문심리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저작권T/F 위원, 서울시 성동구청 도시분쟁조정위원, 부천시청 외부전문가감사위원,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겸임 연구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친환경을 주제로 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목 ㅊ

- 1. 전과정 평가와 최적설계 시스템
  Life Cycle Assesment & Optimum Design System
- 2. 공동주택 전생애 환경부하 평가 시스템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System of Apartment House Life Cycle
- 3. 친환경 건축물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the Program for Sustainable Building Optimum Design
- 4. 환경부하 및 경제성의 친환경 최적설계 Sustainable Optimum Design of Environmental & Economical Efficient

우리가 과거 인식해온 지구 온난화는 단순한 자연의 섭리와 우발적 기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등한시 해 왔으나, 오늘날의 온난화는 계속되는 과학자들과 학자들에 의한 기상과 기후변화의 지속적 연구 결과와 더욱 표면화 되며 심각해지고 있는 자연 현상 등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재산은 물론이요 생명의 위협을 넘어 하나뿐인 지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구 위험을 알리는 경종은 대단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우리에 의한 일련의 건축행위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건축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 들게 한다.

이와 같은 지구 보호를 위한 중대한 문제의 해결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에 공동주택 의 전생 애 주기에 관한 환경부하의 저감과 이를 위해 수반되 는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최적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 1. 전과정 평가와 최적설계 시스템

#### 1. Life Cycle Assesment & Optimum Design System

#### 서론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기후변화협약의 경향에 따른 '국제 사회의 가장 광범위한 기후변화협약(포스트 교토협약)'의 탄생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1997년 UN(United Nations)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5년간(2008년~2012년)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 감축 의무국에서 제외되었던 교토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스트 교토체제가 대두되어 2013년 이후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하여 범세계적 기후변화협약 채택을 위한 합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서 향후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범세계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제 사회에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포스트 교토체제가 기회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대기업이 녹색경영선언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저감 설비 및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선진국이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조류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국은 수출 경쟁력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도 상실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제재를 가하는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가 대두되고 있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의 탄소저감 노력이 미진하다고 인식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높다. 아울러 건설산업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녹색산업육성의 기회 또한 상실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기후변화에 소홀한 대응으로 인하여 무역제재에 따른 수출피해, 에너지 효율화 지연 및 건설산업 유망분야에서의 경쟁력 열위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처할 수 있다.

#### 전과정 평가의 배경 및 전망

#### LCA의 시도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ment : LCA)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한정된 에너지와 천연 자원의 고갈에 대한 우려는 에너지 사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의 자원 공급 및 사용을 전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초기 출판물 중에는 Harold Smith가 화학제품과 중간원료 등의 생산에 이용되는 에너지의 누적 총량 계산에 대한 연구 결과를 1963년 세계 에너지학회에서 발표한 것이 있다. 이것이 제품의 제조과정에 걸친 에너지의 사용 총량을 계산하려는 첫 시도로 기록되어 있다.

#### LCA의 연혁

1960년대 후반에는 지구의 문제를 모형화 하여 예측하려는 노력들이 전세계적으로 유발되었다.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구의 자원과 에너지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결과, Meadows의 저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와 로마클럽(Club of Rome)의 「생존을 위한 청사진(A Blueprint Survival)」 등이 출판되었다. 이들은 자원과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화석연료의 고갈이 빠르면 몇 십 년이내에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발생되는 폐열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빙산의 용융, 기상이변 등도 발생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 이러한 경고들은 산업 전과정에서의 에너지양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려는 노력을 유발시켜, 대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비용 예측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걸쳐 대체 에너지원의 비용과 환경영향을 추산하려는 이른바 '연료순환(Fuel Cycle)'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들은 환경 배출물의 양도 추산하였으나 주관심사는 에너지 문제였다. Resources for the Future라는 단체와 미국 환경청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 등에 의해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이 연구는 펄프, 제지, 정유, 철강 산업 등에서의 에너지와 원자재 양을 계산하였다. 그 중 1969년도에 코카콜라 회사를 위한 연구가 개시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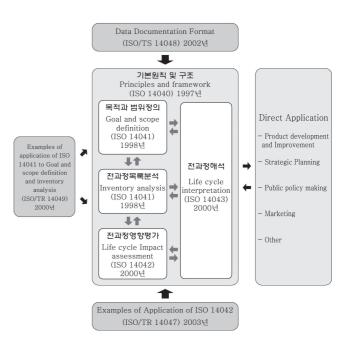
국에 있어서 전과정 목록분석 방법의 기초가 되었다. 각종 음료수 용기들 중 어느 것이 환경 배출물이 가장 적고 천연 자원 공급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각 용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연료의 양과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적 부담을 정량화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다른 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전과정 목록분석 연구를 행하였다. 이 시기에 사용된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정부의 발간 문서나기술 보고서로부터 얻어졌는데 이는 기업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5년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는 동안 석유파동의 위기감이 사라 집에 따라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유독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문제로 옮겨가게 되었다. 전과정 목록분석은 이 기간 중에도 계속 수행되었으나 그 방법론의 개선속도는 크게 둔화되었다. 이른바 녹색운동(Green Movement)이 태동하였고 유럽의 녹색당 등의 활동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깨워, European Commission이 환경 이사회를 발족하면서 유럽인들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유럽의 전과정 평가 연구자들도 미국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방향의 접근 방법을 개발하였다. 환경 이사회에는 유럽전체에 통용되는 오염 관련 규제를 표준화하는 작업 외에도 1985년도에 액체 식료품 용기에 관한 규제를 제정하여 회원 업체로 하여금 액체식료품 용기와 관련된 에너지 및 원료 소비와 고형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 감시하도록 하였다.

1980년도 후반에는 고형 폐기물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녹색운동 등의 압력으로 재활용에 대한 노력이 촉발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심각한 대기 및 수질오염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증가되었다. 이러한 압력들의 결과로 기존의 에너지, 원료, 폐기물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기체, 액체, 고체 배출물 문제를 포괄하는 환경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독성화학회(The Society of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 SETAC)와 미국의 환경 보호청(EPA)을 중심으로 전과정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90년에 SETEC에서 주최한 워크숍에서 미국의 관행에 따라 제품의 자원 사용량과 환경 배출물을 정량화하는 과정이라고 불리게 된 Resource and Environmental Profile Analysis(REPA)를 수행함에 있어서 LCA(Life Cycle Assesment)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비슷한 시기에 EPA에서도 전과정평가 관련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가이드라인과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1993년에는 전과정목본석 가이드라인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1993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가 국제환경경영의 표준화를 위해 환경기술위원회(TC 207)를 발족

시켜 환경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화 작업을 개시하였으며, 전과정 평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TC 207 산하에 있는 제5분과 위원회(SC 5)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까지의 표준화 진척 상황을 살펴보면 전과정 평가의 기본 원리와 골격을 다루고 있는 ISO 14040(Life Cycle Assessment—Principles and Framework)은 1997년 6월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목적 및 범위 정의와 전과정 목록분석에 대한 표준이 ISO 14041(Life Cycle Assessment—Goal and Scope Definition and Life Cycle Inventory Analysis)은 1998년 중반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



ISO 14040 Series

#### LCA의 전망

지난 20여 년간을 되돌아보면, 전과정 평가는 기술자들이나 기획분석 전문가들에 의하여 중요한 도구로 발전되었으며, 음료수 용기나 식료품 용기, 즉석 식품 포장 및 선적용 포장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포장을 평가해왔다. 이는 폐기물의 흐름 중포장물의 양을 줄이거나 포장물생산 공정 중의 환경적인 배출물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일부연구에서는 기저귀나 세제와 같은 소비나 용품이 다루어졌으며 또한동일 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한 공정의 대안들이 비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분석하는 도구로 전과정 평가 기법이 부상하게 된 것이며, 자원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함에 따라 전과정 평가의 방법론에 대한 개선이 가속화되었다. 미국과





 $\bigcirc$ 

유럽의 많은 컨설팅 회사와 연구기관들은 그 방법론을 더욱 가다듬고 확장시키고 있다. 최근 고형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퇴비화 하는 것이 강조됨에 따라 이러한 폐기물 관리 방법을 전과정 평가에 포함시키는 접근 방법이 개발되었다. 환경 자원의 요건과 배출물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전과정 평가 방법은 목록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발전 가도에 있다.

### 최적설계

#### 최적화

최적화(Optimization)는 '최고'란 의미의 라틴어 'Optimus'로부터 유래되었다. 최적화 이론과 그 해법은 일찍이 수학의 한 분야로서 유럽과 미국에서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산업, 군사, 행정 등의 여러 조직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최적화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해법 또한 나름대로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려 할 때 우리는 몇 가지 대안 중에서 재정적인 고려와 함께 구입이유, 사용기간, 애프터서비스, 사용대상, 구입가격 등의 여러 조건을 비교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게된다.

#### 최적설계

최적설계란 설계 사양을 수학적 모델로 구성하고 이를 수학적인 방식으로 설계치를 구하는 자동화 설계기법이다. 설계자의 통찰력과 경험적 기술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설계방식에서도 획기적이고 창의적인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나, 체계적인 설계변수의 변화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수학적인 방법으로 설계변수 변화를 구할 수 있는 수치적인 설계법을 모색하게 된다. 최적설계에서는 중요한 시스템 변수를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변화시켜 가장 좋은 설계라고 정한 기준의 만족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설계를 마치게 된다. 최적설계의 기본개념은 최적설계의정식화, 도해 최적화, 최적화의 기법, 최적설계의 해법, 반응표면 모델에 의한 최적설계 등을 통해 그 이론을 알 수 있다.

#### 최적설계 시스템

지금까지의 최적설계는 주로 단일 분야로 한정된 범위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고성능 다기능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 품설계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공학적 원리들(구조해석, 동역학, 열 유 체유동해석, 제어, 전자기장해석 등)을 동시에 고려하며 각 분야간 상 충된 설계 조건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설계기법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설계기법을 통해 여러 분야의 공학적 설계원리들을 동시에고려하여 균형 있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최적설계 결과를 구하는 설계자동화 신기술이 곧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MDO) 기술이다. 다분야 통합 최적 기술인 MDO는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의 약자로 대형화되고 복합적으로 구성된 System을 위한 공식적인 설계방법론 중의 하나로써 정의할 수 있으며, MDO를 통하여 설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연관된 분야와 현상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 최적설계의 적용

이상과 같은 최적설계의 관련 내용을 건축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최적설계 시스템에 관한 최적화 이론, 최적설계 시스템의 이해, 설계 최적화 과정, 최적화 기법, 최적설계 방법 및 설계문제 정식화 등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주택의 전생애 친환경 최적설계 평가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최근 국내 및 국제적인 개발 성향에 편승하여 독자적으로 개발된 PIDO(Process Integration and Design Optimization) 불인 PIAnO(Process Integration, Automation and Optimization)를 최적설계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尚** 





## 소식

## **NEWS**

### 협회소식

### 제10회 이사회

2011년도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10월 21일 오후 4시에 우리 협회 회의 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등록원 업무 범위의 건, 「건축사사무소 임금실태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시행의 건, 건축직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목내 전용의 건, 건설기술자 인터넷 경력 신고 프로그램 개발의 건, 현암건축상 「TOP AWARD」 운영위원 선임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2011 한국건축산업대전 협회장 표창의 건, 2011년 인적재난유공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 시도건축사회 제명회원 및 직권폐업자의 미납회비 결손처분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등록원 업무범위의 건
- 건축사등록원의 업무범위에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포함하는 문제는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므로 통합관리 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협의키로 하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사무소 임금실태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시행의 건
- 연구용역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므로 용역기관과 비용 등 세 부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직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목내 전용의 건
- 건축사등록업무 신설 등을 계기로 직제·정원 등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 수시감사시 직제 및 정원 검토 요구
- ▶ 행정위원회에서 인력운영에 관한 외부기관 용역시행 건의 등
- 제4호 : 건설기술자 인터넷 경력 신고 프로그램 개발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 : 현암건축상 「TOP AWARD」 운영위원 선임의 건
- 기증자로부터 회의비와 심사비, 상금 등 해당 예산이 확보된 후 그범위내에서 시행토록 하고,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기증자와 협의 하기로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2011 한국건축산업대전 협회장 표창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1년 인적재난유공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
- 회장단에 위임함. ☞회원(아키씨엠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현석) 추전
- 제3호의안 : 시도건축사회 제명회원 및 직권폐업자의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위원회 개최 현황

#### ■ 제6회 정책위원회

제6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4일 가평군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상담료 도입의 건
- 건축사 상담료 도입취지와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검토
   자료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관련위원회나 TF에서 논의되
   도록 회장에게 건의하기로 함.
- 제2호 : KAFF 2011 발전방향의 건
- 서용주 위원이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1의 진행사항과 문제 점 등을 보고하였음.
- ▶ 위원회 구성상의 문제 : 부스를 유치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 필요
- ▶ 한국건축산업대전운영규정 개정 필요 : 대형업체들의 부스유치를 위해 사업위원회를 조기에 발족하여야 하나 현행 규정과 맞지 않 아 어려움이 있음.
- ▶ 우수건축자재 추천 및 심사방법 보고
- •제3호 : 친환경 건축연구원 활성화 방안의 건
- 차기 정책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기타: 주제별 자유토론 결과

• 제1주제: 연합회제도로의 전환문제(이종정 위원장 발표)

• 제2주제 : 정관중 정회원 구성 문제(오동욱 위원 발표)

• 제3주제 : 본협회 조직문제(조충기 이사 발표)









#### ■ 제10회 법제위원회

제10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법 체계개편 방향 설정의 건
- 피난과 안전을 확보한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 중 인접대지경계선 과의 이격거리 규정과 도로사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 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바, 논리 개발을 위해 외국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 제2호 : 기타의 건
- ① 포럼에 관하여
- 금년도 법제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건축계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건축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화두를 던지고자 "건축이 국가브랜드다"라는 주제 하에 11월 셋째 주 목요일(11/17)부터 매주 또는 격주 목요일마다 아래와 같은 분야 별 주제들로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며 포럼 세부계획(안)을 사무처 에서 작성하여 10월 21일(금)까지 위원장에게 검토 받아 진행하기 로 함.
- ② 워크숍에 관하여
- 12월 첫째주 법제위원회 회의를 워크숍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법제 위원 및 법제 관련 TF팀 위원이 참석하도록 하며, 2011년도 법제위 원회 총 결산 및 2012년도 건축 관련 법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 기로 함.
- ③ 구조안전확인서 작성 교육에 관하여
- 구조안전확인서 작성요령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여 회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④ 소규모 내진설계 기준 설정에 관하여
- 유영찬 박사를 초청하여 소규모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기획연구에 우리협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법제위원회에 초청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 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 전반적으로 건축분야 전문가인 건축사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법으로 사료되며 건축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⑥ 건축사 홍보 팸플릿 제작에 대하여
- 환경부 등 건축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정부기관과 대국민 홍보 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사의 정의 및 업역을 간결 명료하게 정 리한 팸플릿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무처에서 초안을 작성 하여 10월 21일(금)까지 위원장에게 검토 받은 후 홍보편찬팀에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함.

#### ■ 제11회 법제위원회

제1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 개정(안)의 건
- 개정(안)의 내용 중 "주요구조부"에 '기초'를 포함하는 내용, "건축"의 정의에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내용, "리모델링"의 정의 부분에 대해 리모델링 TF팀에서 다시 한번 논의(개정사유 보완)하여 법제위원장 및 법제담당이사의 확인을 받아 위원회(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제2호 :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안)의 건
- 국토부(안)은 작년에 발주하여 금년초에 완료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에 대한 내용을 호도하여 개악한 것으로 이 상태로 정리된다면 우리의 공공 대가기준 자체를 아주 퇴보시킨 것임. 아래 합의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파악됨.
- ① 표준업무와 표준 외 업무를 구분하는 내용.
- ② 분리발주 시 계획 · 중간 · 실시설계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
- ③ 설계대가: 기본(건축허가신청시 설계도서)과 상급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법제위원회 안으로 정리하기로 하며, 추후 대가기준 개정 추진은 협회차원(부회장, 사무처)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3호: 건축 관련 제도개선방안 타당성 검토의 건
- 회원이 제시한 건축 관련 제도개선방안들이 현행법령으로 개선이 가능한지와 법령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을 건 축사업역TF팀에서 검토(11/11일)하기로 함.
- 제4호 : 2012년도 법제도개선사업비 요구의 건
- 2011년도에 민간분야 대가기준 연구, 감리제도개선 연구를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1월 이사회에 상정할 연구 발주계획(안)을 사무 처에서 작성하고 위원장이 검토하여 위원회 안으로 마련하기로 하 며, 2012년도 법제위원회 예산안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5호 : 기타의 건
- ① 포럼에 관하여
- 11월 27일부터 포럼을 진행하기로 하되, 포럼 1회에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 방안과 기존안(1주제/1회)과 동시 검토하여 위원장이 계획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② 워크숍에 관하여
- 협회 내에서 12월 7일(수) 당일로 계획하여 워크숍을 협회 3층 국 제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법제위원 및 관련 TF위원이 모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당초 기획된 워크숍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철처히 준비하고 기획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11월이사회에 계획안을 상정할 것임.
- ③ 유지관리 관련 건축법 개정(안) 추진에 관하여
- 유지관리 관련 건축법 개정(안) 추진 및 대응 관련하여 사무처에서 작성한 안에 동의하며 이의 추진은 협회차원(부회장, 사무처)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제7회 행정위원회

제7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사무기구 개편 및 건축사등록원 운영규정 검토의 건
- 제1호와 제2호 안을 통합하여 논의키로 협의함.
  - ▶ 건축사등록원 원장을 협회장이 겸직하게 되면 추후 등록원 업무가 이관될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등록원장을 겸직하지 않고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장과 담당이사가 협의 · 정리하여 회장께 보고키로 협의함.
  - ▶ 건축사등록원 소속으로 등록관리실을 두고 〈붙 임 1〉과 같이 관련 부서를 편제키로 함.
- 건축사등록원 운영규정 중 제5조는 사무기구표에 맞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키로 협의함.

제5조(사무기구)등록원 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부회장중 1인으로 하고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은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1. ~ 5. 〈내용생략〉

#### ▲기타사항

- 차기회의부터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에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검토한 후 회의에 참석키로 함.

#### ▲회장 건의 또는 정책반영 요청사항

- 협회 조직 구성과 사무처 직원의 업무효율 및 적정성에 대한 외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 ■ 제5회 리모델링 T/F

제5회 리모델링 T/F 회의가 지난 10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법 개정(안) 축조심의의 건
- 리모델링에 대한 용어정리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건축법 개정 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으며, 이를 법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 가. 건축법 개정(안)에 대하여
- 1) 주요구조부의 범위에 기초와 바닥을 포함하도록 함(안제2조제1항7호)
- 2) 건축이란 범위에 신축, 개축, 재축, 이전과 함께 "리모델링"을 포함하도록 함(안제2조제1항8호)
- 3) 대수선범위를 조정하고 10호 "리모델링"을 실정에 맞도록 재정의 함(안제2조제1항9호)
- 4) 리모델링에 개축을 포함하도록 함(안제2조제1항10호)
- 나. 건축법시행령
- 1) "대수선의 범위"를 조정(기초와 바닥을 대수선범위에 포함)함(안제 3조의2)
- 2) "리모델링의 범위"를 신설함.(리모델링범위에 대수선이 속하도록함)(안제3조의5)
- 3) 건축위원회 중 미관지구내 대수선을 미관지구내 "외부형태가 변경되는 리모델링"으로 조정함(안제5조)
- 4)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리모델링"을 포함하였음(안제6조의2)

#### 다. 건축법시행규칙

1) 적용의 완화, 증축축할 수 있는 범위에 피난 및 소방시설을 추가함 (안제2조의4제2호나목7)

#### ■제7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제7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윤리선언서 작성의 건
- 윤리선언서는 전문과 일반적인 사항 몇 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세부 사항은 규약이나 지침으로 규정하는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조인숙위원이 정리하기로 함.

#### ■제3회 건축사업역 TF

제3회 건축사업역 TF 회의가 지난 11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 관련 제도개선방안 타당성 검토의 건
- 건축물 대장 작성에 관한 저작권 확보
- ▶ 세움터 프로그램의 개정이 필요함.
- 용도변경시 주차장 산정기준 개선
- ▶ 용도변경 및 증·개축 시 추가되는 법정 주차대수 산정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함.
- ▶ 법제위원회 안건 상정
- 인·허가 서류의 간소화
- ▶ 민원인 차원에서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 ▶ 인·허가 신청시 계획표만 제출하고 도면은 착공시 제출해야 함.
- ▶ 전기 · 설비 도면은 허가에 포함될 필요가 없음.
- ▶ 법제위원회 안건 상정
- 행정전산화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개선
- ▶ 허가수수료, 현장조사수수료 등은 각 지자체 별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지역별 실태를 파악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하기로 함.

#### ■제4회, 제5회 정관개정추진 TF

제4회, 제5회 정관개정추진 TF 회의가 지난 10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안) 각 조문별 검토 및 작성의 건
- 효율적인 정관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검토(제4회 안건)과 조문작성(제5회 안건)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조문별로 검토 후 즉시 작성키로 함.









#### ■ 제11회 건축영화제 TF

제11회 건축영화제 TF 회의가 지난 11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평가의 건
- 건축영화제 시행평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의함.
- ▶ 영화선정 과정
- ▶ 안전문제
- ▶ HAF, GV
- ▶ 사무국 설치
- ▶ 홈페이지 개설
- ▶ 영상지원프로그램
- ▶ 영화상영장소(극장)
- ▶ 상영영화 선정시기
- ▶ 예산확보

#### ■ 제4회 재경위원회

제4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예비비 사용의 건
-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제11회 이사회 에 상정하기로 합의함
-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사용목적 : 2011년도 11∼12월분 위원회의비 예산 부족분 충당
- 사용승인 요청액 : 15,000,000원
- 예산과목 : 예비비 → 위원회의비
- 제2호 :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협회의 2011년도 수지결산안 심의와 2012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함
- ▶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위원장 : 김의중 이사
- 위 원(5인): 신만석, 윤재화, 이주권, 조동욱, 홍사원
- 제3호 :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건
- 협회 재정수입을 감안하여 2012년에도 금년과 같이 실제 재정수입 에 기초하여 실행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함
- 아울러, 본 협회 각 위원회와 사무처에 2012년도 사업계획 예산요 구안을 작성 제출토록 요청하도록 함.

#### ■ 제3회 건축사연금 TF

제3회 건축사연금 TF 회의가 지난 11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연금기금 조성 기반 마련의 건
  - 건축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축사 업무관련 운영제도(업무)중 다음 사항이 건축사 '연금기금 조성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심 도 있게 검토하기로 함.
- ▷연금기금 조성 기반마련을 위한 검토대상 운영제도(업무)
- 설계 · 감리분리제도 (상주감리 제도)
- 조사검사업무대행제도 (서울건축사회 특검제도)
- 감정료 제도 (법원 감정료 등)
- 건축설계도서 저작권등록제도 도입을 통한 '도서검토비' 징수제도
- 심의제도
- 다른 기관(단체)의 건축관련 연구 등에 건축사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연구수입 창출
- 이울러,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방안 보고서' 마련시 상기 제도(업무) 등을 연금기금 조성방안으로 검토하되, 궁극적으로는 '설계비정상화'가 선행되어 '건축사 연금제도'로 연결되도록 하여 회원의이해를 구하는 장기적인 목표하에 연금사업을 강구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 연구보고서 마련의 건
- 내년 정기총회에 제출할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방안 보고서'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작업을 수행할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키로 하고 각 위원별로 연구보고서에 들어갈 목차를 작성해서 위원장 메일로 보내주기로 함.
- ▶ 소위원회 구성
- 목 적: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방안 보고서』 마련
- 소위원회 : 김청권위원장, 김세환, 최오용 위원 필요시,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참석토록 요청하여 운영
- 회의운영 : 소위원회 자체운영(사무처-회의통보, 장소준비, 회의비 지급등 지원) 2011, 11, 24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개최

#### 서울시건축사회, 서울시와 간담회 및 조사감정 실무교육 '법원 감정 세미나'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강석 후)는 서울시와 간담회 및 감정업 무 실무교육 '법원감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10월 17일 서울 시 주택본부에서 열렸으며, 서울

시 김효수 주택본부장 및 서울시 건축과 관계자와 강석후 서울시건축 사회 회장 및 임원, 25개구 건축사회장단이 참석해 건축사업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의견으로는 〈조사·검사 업무대행제도 개선(검사원지정을 착공시점으로 변경)〉과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업무 공영제 도입(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건축사협회 디자인 심의제도, 도서검토제 신설(협회가 디자인 설계도서 무료검토)〉、〈상설(교차)점검 업무 건축사협회로 이관하여 수행(준공 후 확인업무 협회로 이관)〉、〈건축사업무대가 기준의 현실화(서울시가 협회안을 국토해양부로 건의요청)〉、〈건축전문가









는 "건축사" 용어 사용 요청(건축사를 설계자 등 건축가라는 용어 사용 금지)). 〈건축위원회 및 공공건축가(사) 활동에 건축사 참여(건축사의 참 여확대)〉 등이다.



또 감정업무 실무교육 '법원감정 세미나'는 지난 11월 7일 건축사 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350여명의 전국 건축사 회원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회원업무 중 건축

사법에 명시된 건축물의 조사감정 업무에 실무적인 도움을 주고 법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축물의 하자나 피해감정, 구조안전에 대한 소송관련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 관련 전문가들 중 시공기술사나 구조기술사들보다 건축사가 종합적인 전문가로서의 적격자라는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의 실무교육에는 서울건축사회 감정위원회가 지난 1년간 연구하여 책자로 발간한 '건축물의 조사·감정서 작성 요령집'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으며, 감정업무의 대표적인 업무형태인 설계비 청구감정, 구조안전관련 감정, 하자 및 공사비 관련감정, 감정보고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주제별 발표가 있었다.

## 대구시건축사회, 2011 대구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및 2011 하반기 건축문화기행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택붕) 는 '2011 대구건축인 한마음 체 육대회'와 '2011년도 하반기 건 축문화기행' 행사를 개최했다.

'2011대구건축인 한마음체육대회'는 지난 10월 29일 신천하수

종말처리장 내 유소년축구장에서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 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 및 대구광역시 건축직 공무원, 그리고 대구광역시 시교육청 시설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건축인이 한마음이 되는행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임병헌 남구청장, 이노수 (사)대구 건축문화연합 이사장과 대구시의회 의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또 '2011년도 하반기 건축문화기행'은 지난 11월 5일 구례 운조루와 화엄사 및 구층암 일원에서 지역 건축인(건축사, 교수,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건축사회는 한국 전통건축에 대한 고찰과 이해를 통해 새로운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전통건축 뿐 아니라 현대 건축물의 문화기행 등 각종 건축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대전건축사회, 2011 가을 친목회 개최



대전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성 회)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 까지 1박2일간 경주, 감포 일원 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2011 가을 친목회'를 개최 했다.

대전지역 건축사 회원들은 양동마을, 감포 문무대왕수중릉 등의 지역을 관광하고, 다음날 경주의 많은 문화재를 탐방하며 건축사 선·후배동료들 간의 우의를 다졌다.

#### 충북건축사회, 불우이웃 집수리 봉사 개최



충북건축사회(회장 이재삼)는 지 난 10월 29일 2011충북건축문 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불우이웃 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개최 했다.

이번 봉사에는 충북건축사 사랑

나눔봉사단과 충청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직원이 함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우이 웃을 찾아 도배, 장판교체, 등기구 교체, 페인트 도색 등 봉사활동을 전 개했다.

#### 2011 건축사 자격시험 368명 합격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368명 명단을 고지했다.

올해 시험에는 총 3,882명이 응시해 368명이 합격, 지난 해 합격률 (9.1%)보다 0.4% 높은 9.5%의 합격률을 보였다.

여성 합격자는 75명(20.4%)으로 지난 해(19.9%)보다 0.5% 증가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 6일 국토해양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2011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예정자 명단은 국토해양부(www.mlm. go.kr)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 건축계소식

####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선정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대상에 경기도 수원시의 〈화성역사문화경관사업〉 등을 포함한 총 14개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수상작은 지자체, 업체 등이 제출

한 81건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 건축, 조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경관대상」은 우수경관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지역의 경관향상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경관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형성하여 건축물, 공공공간, 주변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져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우수한 경관을 조성한 사례를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 2011 충남건축 · 공공디자인문화제



'2011 충남건축 · 공공디자인문화 제'가 지난 11월 3일 개막을 시작 으로 11월 6일(일)까지 논산 백제 군사박물관에서 5,000여명이 관 람한 기운데 성료 됐다.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 최종옥), 충남 공공디자인협회, 논산시가 주최하고 2011 충남건축· 공공디자인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행사이다.

개막식에는 도민, 학생, 건축인 등 1,000여명과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유병기 도의회 의장, 김종민 전북지사,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강석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석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문화·송덕빈 충청남도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2011 충남건축 · 공공디자인문화제'는 '공감'을 주제로 네 번째로 열렸으며,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전시부문으로 충남건축문화대전, 어린 이집 그리기 및 만들기, 충청남도건축상, 충남공공디자인전, 충청남도 교육청 작품전, 충청남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건축사작품 전, 교수초대전, 찬조작품전 전시와 부대행사로 도용복 교수의 '글로벌 시대의 세계문화기행' 세미나와 상상마당, 명재고택, 돈암서원 답사를 내용으로 한 건축문화기행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치러졌다.

이번 2011 충남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를 통해서 도민, 학생, 건축인 등의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으로 건축문화 축제의 장으 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건축사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 었다는 평이다.

#### 2011 대한민국건축문화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2011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목동 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인류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집'을 주제로 하여 일반 전시 및 특별 전시, 각종 세미나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크게 일반 전시와 특별 기획전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일반 전시는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수상작 전시〉, 〈올해의 건축 BEST 7(한국건축가협회상)〉, 〈젊은 건축가전〉, 〈특별 기획전

- 집〉, 〈국제 교류전 '스페인 카탈루냐 건축'〉 등이 전시됐다.

또한 건축 토론 문화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건축토크쇼〉, 도시 공간의 재발견을 위한 〈건축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선보였다.

올해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모든 예술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로 개막식 당일(11월 11일)에는 국악협회의 협조로 온 국민의 축제가 되리라는 염원을 담은 농악대의 길놀이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부터 대한민국 건축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행사 장소인 예술인센터까지 이어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정책포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한옥센터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정책포럼 '한옥 산업화와 신한옥의 미래'를 개최한

이번 포럼에선〈한옥 산업화와 신한옥의 미래〉,〈한옥의 거주

성능,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 〈한옥의 평면개발과 경제성〉, 〈한옥의 산업화, 현주소와 향후 과제〉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031-478-9647









#### KCC. 2011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 2개 부문 2년 연속 1 위 수상



KCC는,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주관하고 한국품질경영학회가 후 원하는 '2011 한국사용품질지수 (KS-QEI)' 인증수여식에서 수성 도료, PVC(비닐계) 바닥재 등 2 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사용품질지수란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 지수연 구회가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측정모델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경험자 및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하 는 종합지표이다. 한국사용품질지수는 소비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므로 특히 조사 신뢰성이 높은 지수로 평 가되고 있다. KCC 관계자는 "전문가뿐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 면서 경험한 실증적 소비자들에게 KCC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점 에서 본 수상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수성도료와 PVC바닥재 2개 부 문 모두 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 미가 크다"라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트렌드 리서치를 통 하여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품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www.kccworld.co.kr

며, 끝으로 세번째 파트에서는 참고자료를 정리했다.

#### 인프라의 걸작들

박원호 저 | 320쪽 | 한솜미디어

이 책은 시인이자 기술사인 저자의 세 번째 책이다. 첫번째 저서인 '초고 층빌딩, 홀로도시를 꿈꾸다'에서 초고층빌딩의 내용을, 두 번째 저서인 ' 건설 엔지니어의 도전에서는 소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는 도로, 다리, 성채, 시장, 집회시설 등과 같은 공동의 기반시설을 다룬 내용이다.

이 책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류 문명의 꽃을 피우게 한 도시기반시설 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름하여 문명의 뿌리, 도시의 뿌리에 대 한 탐색이다. 인류 문명을 대표하는 기반시설들을 고르기 위해 시대별,

대륙별, 공종별로 안배하여 12개를 골

또한 만리장성이나 피라미드처럼 익 히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기능 측면에 서 인류 문명에 깊이 공헌한 것들을 고르려고 애썼다. 즉 관개시설, 상수 도, 고속도로, 터널, 철도, 항만, 발전 소, 신도시 등에 관한 건설 과정과 그 이면에 얽힌 이야기들이다. 건설엔지 니어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판과 흥미진진한 에피소드 중심으로 꾸며졌다. 崮



## 시간안내

#### 그린빌딩 AtoZ

김광우 외 역 | 258쪽 | 기문당

이 책은 그린빌딩 운동에 의해 다루어진 전 범위의 이슈들에 대해 더 상세히 알기 원하는 모든 이를 위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녹색 실천으로의 전환을 위한 이론과 비즈니스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사고방식을 단순한 서비스 공

급자 또는 공급사슬 참여자에서 관심 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옹호자로 전 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 세계적인 이슈들, 역사적인 견해와 그린빌딩의 전례들, 현재 그리고 성장중인 기술, 추세 자료들을 다루고 있다.

첫번째 파트 '오늘날의 그린빌딩'에서 는 세계적인 관계에서의 그린빌딩, 그 린빌딩의 역사, 그린빌딩이란 무엇인 가?, 그린빌딩 주창자 되기를 다루고 두번째 파트 '그린빌딩의 A부터 Z까 지'에서는 그린빌딩 용어를 망라했으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 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 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 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 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 건축사회/9927-0503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 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 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 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 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 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 출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8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87 (도년 시호)(63)(64 - 623 - 63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 - 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 -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 - 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 (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워지 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 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 (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 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 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 조지여거추사히//n31/767\_220.

####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 (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 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추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 (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 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 (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 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 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 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 (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 건축사회/(041)86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 지역회장/(041)942-5922

####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 (063)631-2223 - 인사지연거축사회(063)852-1515

####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 (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

####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사지연거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연거축사회/ 성전시국건축사회/(053)801-0580 \* 정부시국건축사회 (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친 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연거축사회/(054)536-8855 · 아동지연거축사 교(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 지역건축사회/(054)8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한지연거축사회/(054)278\_6129 · 구위 의성지연거축 12(85 · 포함시탁간독서학(1004)276~61(85 · 교취,확장시탁간독 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 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37-0487 · 김해 시거축사회/(055)334-6644 · 마사지연거축사회/(055)245 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 (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 거축사회/(055)762-6434 · 지해시거축사회/(055)547-4530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 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 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 Kim, Eunmee |

# 어려운 시기를 넘는 우리의 자세

공식적으로 경제 팽창시기였던 1995년 이후 15년 동안 - 평균적으로 미국의 국민 총 생산량은 매년 3%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지금까지 5.56% 하락하였다. 그 결과로 건축,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 디자인 종사자들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지금 우리의 상황도 건축계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은 새로운 경제가 원하고 필요하거나 혹은 더욱 중요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어떤 종류의 건축과 Urbanism인가? 라는 절실한 명제를 던지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미 과대 포장된 어리석은 '스타'건축 시스템과 바로크식의 터무니없는 낭비 스타일을 답습한 디지털 성형 가공 건축의 죽음을 공언하며, 더욱 현실적이고 수수하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시대의 시작을 환영하기 시작했었다. 특히 요즈음 같은 어려운 경제적 시기는 이러한 주장이 시대적 요구인 것처럼 보이게도 한다. 하지만 앞선 high design에 대한 비평은 최근 장관을 연출한 '스타'들의 업적을 종종 무시하고, 때때로 성공적인 국제 사무소에 대한 지역적 시기심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면 결국 건축사들이 오랫동안 논쟁해 왔던 목표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디자인의 성공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우려할 정도로, 한동안 건축계 전문가들은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부류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짝 거리는 새로운 도시창조를 실현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건축사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지만, 디자인 전문가들인 건축사가 우리의 도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고 발전하고 살아갈지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충분히 재 생각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국소수의 민간 발주와 정부 RFQs의 보류의 상황 속에서 보여지듯, 지금은 건축과 도시 계획, 그 직업의 본질을 재생각하고 사무실 내부에 연구의 문화를 적극 받아들여 발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이다. 마치 과거 퇴보의 역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러한 시기를 겪는 동안 분명히 건축 이론에 대한 영향,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작품은 거대해져 왔으며 그들 모두 번창하였다. 1930년의 경

제 공황은 건축사사무소들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고 (MoMA's 1932 Modern Architecture 전시회에 다 보여 지지 않았다.) 그리고 도시 계획가들을 물리적 디자인으로부터 벗어나 공공정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아이러니 하게도 여러 흥미 있는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유발하였다. Frank Lloyd Wright의 Broadacre City, CIAM의 Athens charter, WPA의 innovative Greenbelt, 그리고 TVA의 새로운 마을 프로그램은 모두 이 시기의 작품들이었다. 또한 이 황량한 시기동안 우리의 디자인 교육은 변환되었다: Walter Gropius는 Harvard에 GDS를 설립하였고; Mies van der Rohe는 Armor Instituted을 th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로 바꿔 놓았다.; Buckminster Fuller, Josef and Anni Albers, 그리고 Black Mountain College의 다른 이들도 근대 교육에 예술과 디자인을 불어 넣었다.

1970년대의 경제적 위기 또한 John Hejduk의 실험과 Cooper Union의 영향력 있는 건축교육을 등장시켰으며, the Institute for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 에게는 빛나는 시절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도발적인 Delirious New York의 탄생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 모델 혹은 독립 유닛을 수용한다는 것은 거대 사무소의 다운사이징이나, 건물을 세우는 것을 희망하는 젊은 건축사의 개업 연기, 또는 건축사들이 멋진 자동차를 소유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당치 큰 프로젝트의 설계비 인하를 의미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면에 이 시기는 앞선 역사적 선례에서 보듯 진실로 건축사들이 초심으로 돌아와 밤을 지새우며 미래를 다시 생각하고 심지어 어떻게 사고할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않고 대비 하고 견 더낸다면 용산 프로젝트에서 굴욕적으로 안방 까지 내어준 우리 건축계가 이 고비 이후 세계 건축계에 새로운 강자로 나타 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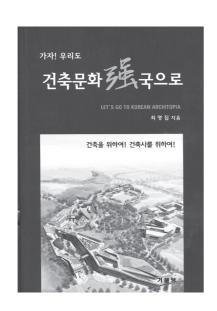


<sup>\*</sup> 윗글의 일부는 http://archpaper.com 의 기사 일부를 발췌 번역, 인용했습니다.



### **Book Review**

## 건축문화 강국으로



최영집 지음 / 기문당 / 2011

#### 건축을 사랑한 건축사

2011년 8월 22일 한권의 책을 손에 들었다. 최영집 전 대한건축 사협회장이 건축사로서 살아온 30년의 삶이 담겨있었다. 사무실 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책을 작은 가방에 넣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었다. 책이 꽤 무거웠다. 두툼한 한권의 책이 더 무거워보였던 것은 최전회장의 30년 인생이 활자로 빼곡하게 들어차있었기 때 문이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그 사람의 인생을 조각한다.'는 이야기 가 날을 세워 나의 뇌리로 파고들었다. 듬직한 책의 모양이 영락 없이 저자를 빼다 박은 모습이다. 속으로 작은 미소가 눈썹위에 스쳐 지났다. 그러면 그렇지, 그의 성정과 집념과 열정이 자연스 럽게 그가 전해준 책의 외모로 모아졌다. 다시 한 번 그의 책을 어루만졌다. 역시 그의 인생을 닮았다.

'아름다운 표면은 무서운 깊이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니이체. 그의 책을 손에 쥐고 제일 먼저 떠오른 문구였다. 설계도면처럼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의 목차들은 쉬지 않고 건축사로서 살아온 그의 삶의 궤적이 그려놓은 인생의 파노라마들이다. 평생을 걸쳐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지면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행운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행운을 그냥 부러워만 할수 없는 것은 글이 갖는 깊고 무서운 속성 때문이다. 인류역사의위대함은 문자의 기록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글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수많은 익명성사이로 얼굴을 가릴 수 없다. 세상에다 날카로운 글자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을 지울 수 없도록 조각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적어도 자신의 가벼운 마음을 누르고 깊

은 생각을 수없이 정제하여 활자로 조각하지 않으면 자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그는 머리말부터 서슴없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솔직하고 강 직한 글귀로 장식하였다. 평소의 그의 성정을 이 말보다 더 정확 하게 짚어내지는 못할지 모른다.

'건축을 위하여! 건축사를 위하여!

건축문화강국을 위하여!' (본문 p34)

느낌표를 세 번이나 찍어가며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는 그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이 땅의 건축사치고는 후배들보다 축복을 받은 세대이자 80~90년대 경제개발의 후광을 받은 건축사임에 분명하다. 그의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는 '일감이 있는 발전도상국에 산다는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것인 줄 그때는 몰랐다.' (본문 p35) 라고 술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에서는 세월의 그늘에 숨어 행복한 할아버지로 물러서지않고 끊임없이 현실 속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이상과 철학을 건축사집단속으로 불어넣으려 노력하였음을 그의 책이 증명하고있다. 그 점이 바로 그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내용이라민는다

그도 평범한 건축인이자 건축사이자 이 땅의 아버지로서 무거운 어깨를 누르는 세상의 짐을 지고 걸어갔던 우리주변의 선배이자 동료이자 선생으로 살았다.

'사실 지금에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미래를 개척하고 가족을 책임져야할지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억지로 감추고 살던 시기였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고 오로지 건축사 면허만 따면 하늘의 별을 딴 듯 세상을 다가질 것만 같아서 건축사에 인생을 걸었고 길이 남을 건축작품을만들 꿈에 젖어 있었다.' (본문 p36)

이 땅의 건축사라면 어느 누가 이 글귀에 가슴의 진동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이처럼 기록은 다소간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공 적인 선언조의 글귀들로 읽는 재미를 적게 할지 모르지만 한 인 생의 기록으로 지난시절의 건축환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사실적임만은 생동감으로 꿈틀거렸다.

머리말의 말미에 그는 눈에 띄는 활자체로 이렇게 적었다. '이 글을 쓰는 중에 딸이 딸을 낳아 할아버지가 되었다. 역사는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며 발전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건축계도 대를 이어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본문 p39)

가장 사적인 이야기로 자신의 공적인 사명감을 이것보다 더 적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 것이다. 누구나 시간의 섭리 앞에서는 공평하다. 할아버지가 되어 이글을 마무리한 그의 모습이 떠올







랐다. 공자 왈 '인생을 이야기하려면 손자를 가슴에 안아 봐야한다.' 시간의 준엄함과 세상의 섭리를 가슴에 안고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그는 분명 행복한 건축사임에 틀림없다.

#### 영원한 돈키호테

'건축의 길은 어렵고 험하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사실 무엇이든 지 만드는 일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기 쉽고, 설사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보람과 희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끼지도 못한다.' (본문 P266)

장인시대의 열정이 지식정보화시대 카피세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오죽하면 네덜란드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렘 쿨하스는 '건축사는 위험한 직업이다.'라며 단언하였을까. 마치 전투기의 조종사처럼 중력을 이용해 적기보다 더 빠르게 날아서 적의 꽁무니에 나의 전투기를 들이밀고 기계와 나의 심장이 일치하듯 감각적으로 방아쇠를 날려야한다고 역설하였다. 작금의 건축설계시장의 현실을 너무나 사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건축설계시장은 아직도 변해가는 건축시장 환경을 읽어내는 시각이 너무 복잡하고 혼선이 많다. 개인의 사적성취감과 사회적인 건축환경을 만드는 일은 다를 수있다. 적기가 날아다니는 우주공간의 과학적인 분석과 적기의 꽁무니를 따라잡을 방법을 찾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대다.

엔트로피를 쓴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면 당연히 무질서의 상태를 경험하며 무질서는 피할 수 없는 엔트로피의 진행과정으로 보았다. 우리가 처한 건축환경 또한 무질서를 겁내면서 새로운 질서로 편입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불성설인지 모른다.

#### 그는 행복한 건축사

'내 인생을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

이제는 그만 조용히 사라지고 싶을 뿐이다.

내 인생이 충분하지 않는가.

이것으로 내 할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본문 P440)

나는 그와 두 번의 해외여행을 함께 하였다. 1999년 북경UIA총 회 참석차 그와 일행이 되었다. 그는 교수인 아내와 동행하지 못하고 혼자였지만 건축문화의 해 기획위원장으로 원로와 후배의가교역할을 하면서 한국건축의 위상을 키우려 동분서주하였다. 두 번째는 지난 2010년 12월 멕시코 깐꾼에서 열린 'COP16"의 UIA주최 기후변화포럼에서 그의 면모를 더 솔직하게 볼 수 있었다. 참석자가 3명이라는 숫자의 긴밀감도 있었지만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수장으로서 전세계 건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연을 하기로 되어있었다. 밤새워

원고를 수정하며 짧은 순간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개인적인 사건이자 동시에 한국건축사의 위상이 걸려있는 일이었다. 통역 을 사용하려다 급하게 방향을 바꾸었다. 참여건축사들이 하나같 이 영어와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잠든 사이에도 밤새 원고를 다듬고, 다듬어서 완벽하게 영어로 강연을 마쳤다. 덤으로 질문까지 영어로 받는 것을 보고 그의 열정과 노력에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왔다. 그는 UIA회장 단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작은 선물까지 돌리며 대한민국건축계의 숙원사업인 2017년 UIA총회서울유치를 위해 온몸으로 뛰고 있었다. 대한민국 건축계를 사랑하는 그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 간이었다.

그의 마지막 글처럼 아쉬운 열정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숨길 수 없다. 뉴욕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마무리글 앞에 자리를 틀었다. 그의 아들, 도빈군의 표현대로 그는 행복한 보수주의자이자 이 시대 행복한 아버지, 건축사임에 틀림없다. 도빈군은 보수주의를 언급하며 그 시작을 인간의 호기심으로 거슬러 올라갔으며 호기심을 새로움에 대한 욕망이라 하였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호기심을 창조의 근원으로 설명하였다. 최영집 전 대한건축사협회장 그는 이미 현실을 떠났다. 그의 영광스런 흔적을 한권의 책으로 남기며 자신의역할을 마무리하였다고 술회하였다. 미겔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역사는 진실의 어머니이자 시간의 그림자다.'라 적고 있다.최영집 그는 이제 진실의 어머니 품으로 시간의 그림자 속으로들어갔다.

그러나 나는 그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 끝은 이시대 건강한 보수로서 후배들과 후학들을 위해 새로운 호기심의 진원지가 되어 창조의 근원으로 이끌어야할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후학들을 위해 그의 마지막 호기심의 선물인 건축상 TOP AWARD를 선물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싶다. 도빈군의 글처럼 보수주의의 핵심은 끊임없이 자기비판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벼려야함을 그는 알고 있으며, 선배로서 진정한 보수의 실현 또한 그의 열정으로 다스려져야함을 아들 도빈군의가슴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저서를 통하여 건축사로서 삶의 철학이 있고 기록을 남길 줄 아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었음을 잠시나마 건축사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尚** 

글쓴이: 김희곤 / (주)방총 건축사사무소

• 스페인 재생건축가(스페인 국립마드리드 건축대학원)

•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 아버지는 매일 가출하고 싶다(다산북스/2010) 저자

• 건축사지편찬T/F위원회 위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1년 9월말

구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 합계						
건축 1인		1인		축 1인		인	3인	이상	소	계	1	인	2	인	3	3인	2	인	5인	!이상	소	: 계	<u> </u>	계
사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437	5,437	95	190	8	24	5,540	5,651	1,629	1,629	233	466	55	165	24	96	22	144	1,963	2,500	7,503	8,151		
서울	851	851	23	46	2	6	876	903	833	833	133	266	37	111	9	36	14	84	1,026	1,330	1,902	2,233		
부산	472	472	14	28	2	6	488	506	101	101	20	40	2	6	2	8	2	14	127	169	615	675		
대구	456	456	20	40	4	12	480	508	67	67	18	36	2	6	2	8	2	10	91	127	571	635		
인천	273	273	3	6	0	0	276	279	69	69	5	10	1	3	0	0	0	0	75	82	351	361		
광주	200	200	1	2	0	0	201	202	39	39	8	16	2	6	2	8	0	0	51	69	252	271		
대전	248	248	5	10	0	0	253	258	36	36	5	10	5	15	0	0	1	15	47	76	300	334		
울산	179	179	5	10	0	0	184	189	19	19	2	4	1	3	0	0	0	0	22	26	206	215		
경기	765	765	1	2	0	0	766	767	235	235	21	42	2	6	3	12	1	5	262	300	1,028	1,067		
강원	176	176	2	4	0	0	178	180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06	213		
충북	216	216	3	6	0	0	219	222	34	34	4	8	1	3	2	8	1	9	42	62	261	284		
충남	251	251	1	2	0	0	252	253	51	51	4	8	1	3	2	8	0	0	58	70	310	323		
전북	247	247	4	8	0	0	251	255	22	22	2	4	1	3	1	4	0	0	26	33	277	288		
전남	203	203	1	2	0	0	204	205	18	18	2	4	0	0	0	0	1	7	21	29	225	234		
경북	370	370	5	10	0	0	375	380	37	37	4	8	0	0	0	0	0	0	41	45	416	425		
경남	411	411	6	12	0	0	417	423	29	29	2	4	0	0	0	0	0	0	31	33	448	456		
제주	119	1119	1	2	0	0	120	121	14	14	1	2	0	0	0	0	0	0	15	16	135	137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준회원			
건축사회	건축사	2급	계	비 율	군외면
합 계	8,151	10	8,161	100%	23
서 울	2,233	3	2,236	33.9%	10
부 산	675	1	676	7.9%	9
대 구	635	0	635	7.7%	0
인 천	361	0	361	3.8%	0
광 주	271	0	271	3.7%	0
대 전	334	1	335	3.7%	0
울 산	215	0	215	2.6%	0
경 기	1,067	2	1,069	12.2%	2
강 원	213	0	213	2.6%	0
충 북	284	0	284	3.0%	0
충 남	323	3	326	3.1%	0
전 북	288	0	288	3.0%	0
전 남	234	0	234	1.9%	0
경 북	425	0	425	4.6%	1
경 남	456	0	456	5.0%	1
제 주	137	0	137	1.3%	0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 계	비고
회원수	5,651	2,500	_	8,151	
비율	69.33%	30.67%	_	100%	
사무소수	5,540	1,963	-	7,503	
비율	73.84%	26.16%	_	100%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 



